이기적 국어

김도성의

국어강사
김도성

월간지 02월호

국어 성적은 오른다, 강하게.

김도성 선생님

現) 종로학원 단과 전과목 1위(9년연속)
現) 종로학원 재수종합반수강 1위
現) 유인어스 학원
前) 강남 대성 두각학원

수능특강 핵심 제재 및 수록 현황

독서

차례	핵심 제재	기출 여부
1.1.1	독서: 자기 선택적 독서, 우츠, 웨드윅, 북매치	기출 없음
1.1.2	인문: 노직, 권리, 국가, 강제력, 보호 서비스, 자연 상태, 권리 침해, 보호 협회, 극소 국가, 최소 국가	1
1.1.3	사회: (가) 공공 선택 이론, 정치적 의사 결정, 뷰캐넌, 털록, 의사 결정 비용, 외부 비용, 뷰캐넌-털록 모형 (나) 이상적인 의사 결정, 애로, 선호 영역, 무제한성, 파레토 원리, 완비성, 이행성, 독립성, 비독재성, 불가능성 정리	2
1.2.1	예술: 탄소 연대법, 연륜 연대법, 벌채 연도, 연대 측정 방법, 춘재, 추재, 코어링법, 카메라 촬영법, 변재	3
1.2.2	기술: 헬리콥터, 회전 날개, 기류 속도, 전진익, 후퇴익, 동압, 정압, 양력, 받음각, 플래핑, 플랩 업, 플랩 다운	4
1.2.3	사회: 가격 규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자유주의 경제학, 시장 균형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중 손실	5
1.2.4	인문: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미의 실재성, 아리스토텔레스, 질료 형상론, 가능태, 현실태, 미의 의미 내용,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6
1.2.5	인문: 아리스토텔레스, 공간, 데카르트, 연장, 뉴턴. 절대 공간, 절대 시간	7
1.3.1	예술: 아방가르드, 예술 제도론, 예술적 지위, 예술계, 사회적 맥락,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	8
1.3.2	인문: 고프먼,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 공연, 리프킨,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연극적 자아, 표면 연기, 심층 연기	기출 없음
1.3.3	과학: 휴이시 연구팀, 행성 간 공간 섬광, 태양풍, 벨, 펄서, 중성자별, 골드, 자기장 축	기출 없음
1.4.1	독서: 정약용, 독서 방법, 정독, 초서 독서법,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	9
1.4.2	사회: 제임스 콜먼, 합리적 선택 이론, 효용 최대화, 자원의 통제 상황, 사회적 균형 상태, 사회적 자본, 원초적 사회 구조	10
2.1.1	역사 편찬 관행, 삼국사기, 구삼국사, 신당서, 구당서, 사륙변려문체, 유교적 역사관, 천인감응설	11
2.1.2	크로노토프, 바흐친, 시공간적 표시물, 명시적 시공간, 함축적 시공간, 심리적 시공간	12
2.1.3	코나투스, 스토아학파, 스콜라 철학, 르네상스, 자기 보존,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13
2.1.4	보들레르, 들라크루아, 아카데미 미술, 현대성, 인상주의, 마네, 플라뇌르	기출 없음
2.1.5	근대 문명, 도덕 국가 이념, 위정척사 사상, 쇄국 정책, 존화양이 운동, 이항로, 박은식, 간이직절, 양지	기출 없음
2.1.6	환경 관리주의, 사회 생태주의, 근본 생태주의, 심층 생태론, 과타리, 생태 철학, 주체성 형성, 동질 발생, 이질 발생	14
2.1.7	지멜, 르네상스 초상화, 렘브란트, 개체성, 형식 법칙, 총체성, 개별성, 객관 문화, 주관 문화	15
2.1.8	아방가르드, 카지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블라디미르 타톨린, 구축주의, 순수한 감상, 이콘화, 현대 추상 미술, 미니멀 아트	16
2.1.9	조선 궁중 의식, 음악과 정재, 봉래의, 전인자, 후인자,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세종대왕, 용비어천가, 궁중 의례	17
2.1.10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근대주권, 임무니타스, 무누스, 코무니타스, 홉스, 사회 계약론, 자연권, 면역 패러다임, 도눔	18
2.1.11	윌슨, 사회 생물학,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 현실적 존재자, 공재, 합생, 객체적 불멸성, 개체 유전, 유전자 결정론	19
2.1.12	이기론, 율곡 이이, 도덕 실천, 기정진, 운동 변화, 동일성, 다양성, 전우	20

문학

차례	제목	기출 여부
1.1.1	추일서정 -김광균	1
1.1.2	백구야 놀라지 마라 -김천택	2
1.1.3	백초를 다 심어도 -작자 미상	기출 없음
1.1.4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자 미상	기출 없음
1.1.5	해산 바가지 -박완서	3
1.1.6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임방	4
1.1.7	만선 -천승세	5
1.1.8	연경당에서 -최순우	6
1.1.9	곡예사 -황순원	7
1.1.1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인훈	8
1.1.1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9
2.1.1	찬기파랑가 -충담사	10
2.1.2	반월 -이양연	기출 없음
2.1.3	사모곡 -작자 미상	11
2.1.4	오관산 -문충	기출 없음
2.1.5	오륜가 -작자 미상	12
2.1.6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존오	기출 없음
2.1.7	말 없는 청산이오 -성혼	기출 없음
2.1.8	대천 바다 한가운데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1.9	마음이 어린 후이니 -서경덕	기출 없음
2.1.10	연 심어 실을 뽑아 -김영	기출 없음
2.1.11	마음이 지척이면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1.12	가슴에 구멍을 둥시렇게 뚫고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1.13	단가육장 -이신의	13
2.1.14	우활가 -정훈	14
2.1.15	봉산곡 -채득기	기출 없음
2.1.16	농가월령가 -정학유	15
2.1.17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16
2.1.18	우부가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1.19	제비가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1.20	기녀반 -허난설헌	17
2.1.21	앞 못에 든 고기들아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1.22	밭매는 소리 -작자 미상	기출 없음
2.2.1	초혼 -김소월	18
2.2.2	이별가 -박목월	19
2.2.3	노정기 -이육사	20

목차

차례	요일	독서	문학	페이지
1.	1주차 월	1.1.2	1.1.1	1
2.	1주차 화	1.1.3	1.14	10
3.	1주차 수	1.1.4	1.1.5	18
4.	1주차 목	1.1.5	1.1.7	28
5.	1주차 금	1.2.2	1.1.8	33
6.	2주차 월	1.2.4	1.1.9	44
7.	2주차 화	1.2.5	1.1.10	51
8.	2주차 수	1.3.1	1.1.11	58
9.	2주차 목	1.4.1	2.1.1	66
10.	2주차 금	1.4.2	2.1.2	75
11.	3주차 월	2.1.1	2.1.3	84
12.	3주차 화	2.1.2	2.1.5	91
13.	3주차 수	2.1.3	2.1.13	98
14.	3주차 목	2.1.6	2.1.14	109
15.	3주차 금	2.1.7	2.1.16	117
16.	4주차 월	2.1.8	2.1.17	125
17.	4주차 화	2.1.9	2.1.20	132
18.	4주차 수	2.1.10	2.2.1	144
19.	4주차 목	2.1.11	2.2.2	150
20.	4주차 금	2.1.12	2.2.3	157

1부 개념학습 1. 독서의 본질 (2)

인문: 노직, 권리, 국가, 강제력, 보호 서비스, 자연 상태, 권리 침해, 보호 협회, 극소 국가, 최소 국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결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은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와 사회적 빈부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복지 제도나 누진세 등과 같은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재분배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다만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조건은 사회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정의로운 세계의 규칙 또는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인간의 출생, 신체, 지위 등에는 우연의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누구나 우연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마지막 조건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일지라도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자발적 기부나 사회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노직과 롤스는 이윤 추구나 자유 경쟁 등을 허용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반면에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한편,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과정도 중시하며,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주장은 소수의 권익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으며, 평등의 이념을 확장시켜 복지 국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11311

1)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하나의 논점에 대한 두 견해를 소개하면서 비교하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롤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장된다면 소수의 불행은 정당한 것이 되고, 반대로 다수의 불행이 나타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벤담은 걸인과 마주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거리에서 걸인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걸인들을 모두 모아 한곳에서 생활시키는 강제 수용소 설치를 제안했다.

① 다수의 처지를 배려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②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③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요?
④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⑤ 걸인이 된 것은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요?

3) 윗글의 **노직**, **롤스**가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은 후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부상 투혼' ○○○, 또 다른 감동을 주다

프로 야구 선수 ○○○은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등판하여 승리 투수가 되었다. ○○○은 1승을 올릴 때마다 1백만 원씩 난치병 치료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다승왕 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 몇 년에 걸쳐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금 1억 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성하여 난치병 치료 재단에 기부했다. 그에게 감동 받은 팬들은 정부에 세금으로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는 복지법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 △△신문

① 노직은 기부하는 행동 자체를 반대하겠군.
② 노직은 복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겠군.
③ 롤스는 복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④ 롤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부한 ○○○선수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판단하겠군.
⑤ 노직, 롤스는 모두 ○○○선수가 다승왕 상금을 받은 것은 자유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인정하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 주창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31707

4)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질문**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①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② 롤스는 '아니요', 노직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③ 롤스와 노직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⑤ 롤스, 노직, 왈처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5)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군.
②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③ 왈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겠군.
④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철학자들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군.
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겠군.

7)㉠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호 간에 우열을 가리게 되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

② 상호 간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

③ 상호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되는 상황

④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⑤ 상호 간에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6)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가) 미국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자로 선정하여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나)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것에 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득세율은 그 두 배 정도인 33~41%라며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초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① (가)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② (가) :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③ (가) : 왈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는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④ (나)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⑤ (나) :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8)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늠했다　② 분석했다　③ 내세웠다
④ 제공했다　⑤ 살펴봤다

1부 적용 학습 (1)

추일서정 -김광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즈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푸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나)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여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20709

9)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추일서정」은 시각적 이미지와 원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물질문명적 소재를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① '낙엽'과 '포푸라나무'는 근경, '급행 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②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11)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현대 도시 문명	비유	아마존 수족관
현대인		수족관 속 열대어

⇩

○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 생명력 회복 소망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 - 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 - 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21311B

12)(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13)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눌려	㉡
3연	들찔레	들찔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매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얹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① ㉠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② ㉡ : '눌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찔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 : '얹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⑤ ㉤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14)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②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③ (나)는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506

15)(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② ㉡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③ ㉢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④ ㉣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17)<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어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ㅡ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ㅡ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춥고 쓸쓸함이 몽당빗자루 같은 날
운암댐 소롯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A]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B]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C]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31703

18)(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19)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시인 김광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의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싸여 작품과 인간이 격앙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

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②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③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④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군.
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20)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③ [B]에서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④ [B]에서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⑤ [C]에서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새들처럼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1) 5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제시된 지문은 '1문단 - 논제 제시, 2문단 - 노직의 정의에 대한 주장, 3문단 - 롤스의 정의에 대한 주장, 4문단 - 노직의 주장과 롤스의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두 철학자의 견해가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한 글이 아니다.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절충적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노직과 롤스의 견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노직과 롤스의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두 견해가 다양한 이론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2) 5
[출제의도] 비판의 타당성 파악하기
3문단에서 롤스는 출생, 신체, 지위 등에 우연적 요소가 개입된다고 보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롤스는 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④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의 세 가지 조건에 인간의 감정적 차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1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노직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는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부하는 행동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문단에 노직은 국가의 간섭에 의한 재분배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③ 3문단에서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3문단의 롤스의 마지막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4문단에서 노직과 롤스는 자유 경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4) 4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롤스는 제1원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롤스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또한 4문단에서 노직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노직 역시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5) 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롤스는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며, 그래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할 것이므로 답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6) 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가)는 미국의 기여 입학제를, (나)는 버핏의 주장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4문단에서 노직은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이라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기여 입학제를 소유물 양도에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3문단에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보았다.

8) 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라는 뜻이므로 '주장이나 의견 따위를 내놓고 주장하거나 지지하다.'라는 뜻의 '내세웠다'가 적절하다.
① '가늠하다'는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의 의미이다. ② '분석하다'는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다.'의 의미이다. ④ '제공하다'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다.'의 의미이다. ⑤ '살펴보다'는 '자세히 따져서 생각하다.'의 의미이다.

9) 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낙엽', '도룬시의 가을 하늘' 등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름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생명력이 상실된 도시 문명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역설적 표현이 (나)의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에 나타날 뿐,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한 부분이 (나)에서 '여름밤'의 반복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 뿐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수족관'과 '아마존강'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아마존 강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생명력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가)에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

10) 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작가가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했다는 ②번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전반부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근경과 '급행열차가 들을 달리'는 원경이 묘사되면서 원근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포푸라나무'가 서 있는 근경과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원경이 묘사되면서 원근법이 나타나고 있다. ③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퇴색한 공장 지붕을 묘사한 것이면서 화자의 황량한 정서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고독한'이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듯 반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돌팔매'는 화자의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풍경임을 알 수 있다. ④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구름을 셀로판지에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므로 회화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1) 3
[출제의도] 시구 및 시어의 의미 이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원시 자연의 생명력이 결핍되어 갈증을 느끼는 모습이다. 따라서 답은 ③번이다.
① 아스팔트는 도시 문명의 소재이고, 고무 탄내는 불쾌함을 환기하는 후각적 심상이므로 ㉠은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도시 건물의 철근에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연상하였고, 간판이 발산하는 열기에서 아마존의 열대 기후를 연상했다고 할 수 있다. ④ 시를 선물하니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시는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⑤ 꽃이 만발한 모습은 넘치는 생명력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

12) 5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자연물인 '낙엽', '길'을 각각 인공물인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의미와 구조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가을', '일광(日光)', '두 시' 등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③ '폴-란드', '자욱-한', '호올로' 등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13) 1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업혀'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매달려 붙어 있는 형상이므로, '업혀' 있는 존재인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공기를 누르고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담쟁이덩굴을 강인한 존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14) 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길'을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길'을 도시적인 이미지와 연관 짓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망명정부의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므로, '낙엽'을 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낙엽이 생명력을 상실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돌팔매'의 하강 곡선을 '고독'하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들찔레'가 '하얀 꽃'을 버리며 스스로 빈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떨어진 꽃이 아닌 꽃이 떨어진 빈자리의 공간적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허공'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행위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것이므로, '허공'은 황량한 생각을 드러내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됨을 알 수 있고, (나)의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허공'이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5) 3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늘어선 고층(高層)'을 창백한 묘석(墓石)'으로,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1연의 '차단ㅡ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를 마지막 연(5연)의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차단ㅡ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에서 반복하여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시는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나)는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키지 않았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의 '내 호올로'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만, 표면적 화자를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는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16) 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으로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적막한 배경인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사물인 '차단ㅡ한 등불 하나'에 주목하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나 호올로'를 통해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길ㅡ게 늘인 그림자'는 문장 부호 'ㅡ'를 사용하여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 다양한 소재들의 '천연'한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17)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는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공허한 군중의 행렬' 등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 '천연'한 자연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차단ㅡ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긴 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찬란한 야경'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울타리 밖에도 화초',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별이 뜨는'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회화적 이미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③ (가)에서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문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과의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주는 것이므로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가)에는 '슬픈', '낯설은', '무거운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마늘쪽',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가)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나)는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8) 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가)에서는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와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와 같이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더 추워야겠다'와 '한껏 가난해져야겠다'와 같이 유사한 시구를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는 점층적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에서는 의성어의 활용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서는 '카랑카랑'을 통해 새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찾기 어렵다. ⑤ 여정에 따른 공간 이동은 (가)와 (나)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9) 2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가)의 작가인 김광균의 개인적 생애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의 화자가 시를 쓰는 것에 대해 고뇌한 모습과, 중국 작가 '노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이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베개 아래라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생활의 문제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시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잠을 못 이루는 사내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했던 시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해방 이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시인이 느낀 피로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가 켠 등불이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로 바뀌는 것은, 힘들고 고독한 상황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신'의 삶을 시인이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시인은 '노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0) 2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과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것은 '살얼음 깔려드는' 힘든 현실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새떼들의 모습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은 먼 바다를 건너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는 치열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스스로를 무거운 존재로 인식하며 '관절통'을 호사스러운 것으로, '그리움'을 속되고 얕은 것으로 인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1부 개념 학습 1. 독서의 본질 (3) -(가)

사회: (가) 공공 선택 이론, 정치적 의사 결정, 뷰캐넌, 털록, 의사 결정 비용, 외부 비용, 뷰캐넌-털록 모형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 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므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지막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A]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다.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은 단일 사안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일 경우,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때 중위투표자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가지며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결국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위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모형으로는 합리적 무지 모형이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공공선택론자인 뷰캐넌은 사회의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헌법정치경제학을 제시했다. 뷰캐넌은 헌법정치경제학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헌법 제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헌법적 정치'이다.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 활동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 활동이다.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헌법 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고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32207

1)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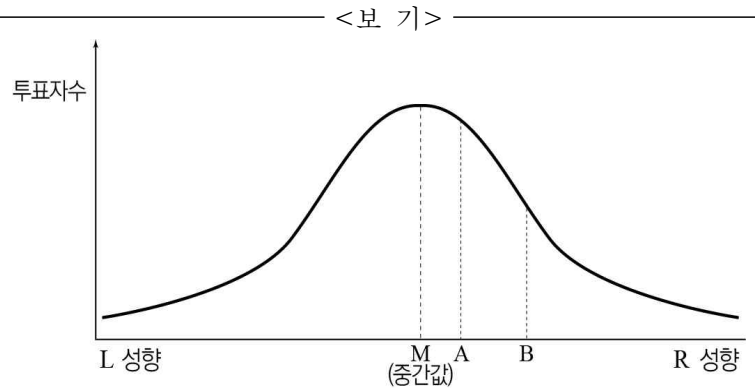
① 공공선택론이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② 공공선택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를 무엇으로 보는가?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④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이론으로 분석하는가?
⑤ 공공선택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2)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은 정치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
②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③ 의사결정의 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④ 정치인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⑤ 유권자는 정치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비용이 이에 대한 이익보다 크면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3)[A]를 적용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정치 성향에 따른 유권자 분포도]

두 정당의 정치인 갑과 을이 단일 사안에 대해 경쟁하는 다수결 원칙의 선거 상황에서 갑은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을은 R 성향인 B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단일한 정점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① 정치 성향이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②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③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④ 정치 성향이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⑤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을은 갑이 제시한 정책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띤 공약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4)뷰캐넌이 ㉠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헌법적 정치를 통해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③ 헌법적 정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④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보다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쉽기 때문에
⑤ 일상적 정치보다 헌법적 정치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의 대안에 합의하는 것이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 등이 있다.

㉠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 * 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 '투표의 역설'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 줄 테니 투표를 통해 선택하라고 제안하였고, 이때 세 사람의 선호 순위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부치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두 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 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된다. 즉,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 <표> 의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이때의 총비용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의사 결정 비용은 투표 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 된다.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 결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사 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하므로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며, 두곡선을 합한 총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결제에서의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이 제도는 의사 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최적 다수 결의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된다.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며,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략적 행위란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를 뜻한 다.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나,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보르다 투표제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 (n-1), …, 1점을 주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점수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 후생 :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수준.

12306

5)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투표제에서든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②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부여 한다.
③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채택된 대안으로 인해 사회의 후생이 감소되기도 한다.
④ 점수 투표제는 최적 다수결제와 달리 대안에 대한 선호 강도를 표시할 수 있다.
⑤ 최적 다수결제는 단순 과반수제와 달리 안건 통과의 기준이 안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와 관련하여 <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의 대안으로 결정된다.
②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갑'과 '을'이 '학교'에 투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된다.
③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는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는지에 따라 투표의 결과가 달라진다.
④ '병원', '학교', '경찰서'를 동시에 투표에 부치면, 모두 한 표씩 얻어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⑤ 대안에 대한 '갑', '을', '병' 세 사람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아도, 투표의 결과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7)ⓑ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어진 점수를 투표자가 임의대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투표자는 중도의 대안에 관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있기 때문이다.
③ 점수 투표제와 달리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이 다수에게 선호도가 매우 낮으면 점수 합산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⑤ 순서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할 경우, 모든 투표자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도 최종 승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1부 개념학습 1.독서의 본질 (3)-(나)

사회: (나) 이상적인 의사 결정, 애로, 선호 영역, 무제한성, 파레토 원리, 완비성, 이행성, 독립성, 비독재성, 불가능성 정리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보통 세상만사가 대부분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는 가장 합리적인 원칙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으며 비(非)합리적인 면이 매우 많다는 주장이 있다.

1914년 영국 해군의 수는 15만 명, 군함(軍艦) 수리창의 관리자와 사무원은 3200명, 여기에 근로자가 5만 7000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4년 후인 1928년에는 전쟁이 없어 해군이 10만 명으로 줄고 군함 수도 줄었지만, 수리창 관리자와 사무원은 오히려 4600명으로 늘었다. 또한 해군 본부의 관리자 수는 2000명에서 3600명으로 늘었다. 해군의 수는 30% 정도 줄었지만, 수리창의 관리자와 사무원 수는 40%, 본부 관리자 수는 무려 80%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해야 할 업무'는 줄었는데도 관리자들이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 '사람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결국 업무량 감소와 관리자 수의 변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이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여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한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사회 생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N. Parkinson)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영국 해군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955년 관료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파킨슨의 법칙'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양(量)에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것과 출세를 위해서는 부하의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자꾸 늘린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수는 업무의 증감에 상관없이 매년 평균 6% 정도 증가한다는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 수식으로 만들었다.

㉠ 파킨슨 법칙은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비단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어느 조직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될 수 있다. 작은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큰 기업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이른바 '대기업 병(病)'에 걸리게 된다. 대기업 병에 걸린 대다수 기업에서는 파킨슨 법칙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파킨슨은 사회 곳곳에서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허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적 유용한 의사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말 우수한 사람이 조직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한다면 그 조직, 그 사회는 훨씬 더 발전한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제 밥그릇 찾기', '자기 식구 챙기기', 그리고 '책임 회피' 등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 요소들이 만연한다면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이사회 제도와 최고 경영자의 역할 강화, 또는 수평적인 팀(team) 제도를 통해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대국이 되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한 번쯤은 파킨슨의 법칙을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사회도 구성원들 사이에 혈연, 지연, 학연, 파벌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 등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 요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 갇혀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다.

20711

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② 파킨슨 법칙은 어느 조직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③ 조직 내부의 인간적 결속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④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요소들은 사회의 갈등을 유발한다.
⑤ 기업의 성장이 파킨슨 법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9)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도 회사 이익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창출되는 이른바 '피플 비즈니스(People Business)'가 주목받고 있다. '피플 비즈니스'는 회사의 자본 투자와 이윤 창출의 대부분이 인력과 관계되는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영 구조에서 기업들은 인력을 수익원보다는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 회계, 법률, 광고,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산업 구조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기업들은 인력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피플 비즈니스'가 고(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방식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① 위 글에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문제를, <보기>에서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② 위 글에서는 인력을 수익 증대의 원천으로, <보기>에서는 인력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위 글에서는 인력 감소를 통한 효율화를, <보기>에서는 인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④ 위 글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보기>에서는 조직의 합리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위 글에서는 비합리적 요인으로 인한 인력 증가 문제를, <보기>에서는 인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다루고 있다.

10)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겠군.
② 조직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겠군.
③ 중요한 사안일수록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군.
④ 수평적인 팀 제도를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겠군.
⑤ 서로의 화합을 위해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겠군.

11) ㉠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산지석(他山之石)
② 금과옥조(金科玉條)
③ 아전인수(我田引水)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1부 적용 학습 (4)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자 미상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검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씌어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ᄅᆞᆷ다 도듯가
ᄌᆞ 목 지 호 고 려 님 지 슘 덩 겨 ᄉᆞ 라
그 개 도 호 고 려 개 로 다 듯 고 ᄌᆞᆷ 즘 ᄒᆞ ᄂᆞ 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 된다.

(나)
개야즛지마라밤ᄉᆞ람 이다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님 츄심 단니노라*
그개도호걸의집갠지듯고ᄌᆞᆷ즘 ᄒᆞ 더 라

*두목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츄심 단니노라 : 찾으러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 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 조 (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 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 임 오면은 꼬리를 홰홰 치며 치뛰락 내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임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 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얄밉고 잦미우랴
낯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 아 요리 납작 조리 갸웃하되 낯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뻗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을 엉성거리고 컹컹 짖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 작자 미상, 「살구」 -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 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본 차원의 변모 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 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22예시

12)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즛지마라'라고 한 것은 '밤ᄉᆞ람 '이 개가 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②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③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두목지 같은 호걸'로 풀이되어 '호걸'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④ 종장의 'ᄌᆞᆷ즘 ᄒᆞ 더 라'는 '호걸'이 '님 츄심'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⑤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즛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를, 종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13) '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와 (다)의 개는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

②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환기되고 있다.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다른 데서 시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④ (나)의 개는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다)의 개는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⑤ (나)의 개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다)의 개는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14)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a~c에 따라 적절 하게 구별한 것은?

	ⓐ	ⓑ	ⓒ
①	(가)→(나)	(나) → (다)	(다) → (라)
②	(가)→(나)	(다) → (라)	(나) → (다)
③	(나)→(가)	(나) → (다)	(다) → (라)
④	(나)→(가)	(다) → (라)	(나) → (다)
⑤	(다)→(라)	(나) → (다)	(가) → (나)

15)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 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임'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임'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 겠군.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처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1) 5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과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한 뷰캐넌의 헌법정치경제학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1~4문단에서 공공선택론이 기존의 정치학과 다르게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 인간,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공공선택론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를 개인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정치시장은 경제시장과 달리 거래 행위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공공선택론은 첫 번째 가정인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통해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고 국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시장에서 국가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된다고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의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를 통해 정치인들의 효용도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고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통해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공공재와 행정서비스가 그들과 결탁한 이익집단에만 집중된다는 내용을 통해 정치인이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과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을 비교하여 정보의 습득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해 유권자는 정치인의 정책 공약을 습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책 공약을 습득하기 위한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더 크면 정책 공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3)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A]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내용을 통해 <보기>의 상황에서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제시한 갑에게 투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L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제시한 갑에게 투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 다수결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중위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을 통해 을이 공약을 수정하게 된다면 중간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갑과 유사한 중간 성향의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4)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7문단에서 뷰캐넌은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헌법 규칙을 만들어 헌법 안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을 준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① 뷰캐넌은 헌법이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뷰캐넌은 입법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적 정치라고 보았다. ④ 뷰캐넌은 개인이 각자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일상적 정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⑤ 뷰캐넌은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 의 대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일상적 정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5) 2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보르다 투표제(5문단)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점에서 시작해서 차례 대로 n-1점, n-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최하 1점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부여한 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투표의 전략적 행위는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로서, 4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투표제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대안이 채택이 되면 이로 인해 채택이 되지 않은 안건을 지지한 사람 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④ 4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수 투표제는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잘 반영된다.
⑤ 단순 과반수제는 안건 통과의 기준은 몇 가지 대안이든 과반수를 얻는 안이 통과된다. 이에 반해 최적 다수결제에서는 투표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최소 화되는 곳이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그러므로 안건에 따라 안건 통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6)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한다면, 갑은 학교, 을은 학교, 병은 경찰서를 택할 것이므로, 다수결로 보면 학교가 두 표를 얻어 먼저 채택이 될 것이다. 이후에는 학교와 병원이 최종 투표에 부쳐지는데, 갑은 병원, 을은 학교, 병은 병원에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대안으로는 두 표를 얻어 병원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학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한다면 갑은 병원, 을은 학교, 병은 병원을 투표할 것이므로, 병원이 채택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을 위해 투표한다면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 (갑은 병원, 을은 경찰서, 병은 경찰 서를 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경찰서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
③ 투표의 역설이란 개념은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결과가 달라지므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
④ 동시에 세 안건을 투표에 부치면 세 사람이 병원, 학교, 경찰서에 각 한 표씩 투표하게 되어 세 안건 중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⑤ 갑, 을, 병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최종 투표 결과는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7) 4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5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수에 의해 중도의 대안으로 부여된 점수들의 합산 점수보다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들의 합산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오답풀이] ② 투표자는 중도의 대안에 관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에 관해서도 점수를 배분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③ 점수 투표제에서도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이 드러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3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구성원들 사이의 혈연, 지연, 학연, 파벌 등의 결속을 '비합리적 의사 결정 요소'로 간주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 갇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③의 '조직 내부의 인간적 결속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9) 5
[제시된 내용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다른 상황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는 '인력의 증가 요인', 즉 사람들이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인력이 증가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인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에서 <보기>는 인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3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반응한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은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 볼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결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일수록 빠르게 해야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반면 업무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인력 증대를 지적했으므로, ①의 반응은 적절하며, 수평적인 팀 제도를 통한 의사 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의 반응도 적절하다. 또한 '책임 회피'나 '제 밥그릇 챙기기' 등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②와 ⑤의 반응은 적절하다.

11) 1
[관련된 한자 성어 찾기]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한자 성어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 상, ㉠에서 파킨슨의 법칙은 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법칙이지만 그것의 교훈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른 산의 나쁜 돌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타산지석(他山之石)'과 가장 관련이 깊다.

② 금과옥조(金科玉條)는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③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④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의 뜻이고, ⑤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12) 2

'두목지 호걸'은 화자가 자신을 찾아오길 바라는 인물이지만, '도적'은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화자는 다만 밤 사람이다. 도적은 아니므로 개더러 짖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오답해설] 1.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두목지 호걸'도 '밤 사람'이다. 화자는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개가 짖지 않기를 원했다. 개 짖는 소리에 그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3. ㉠에서도 (나)에는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호걸'은 화자가 호감을 가진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 개가 짖지 않게 되었으니 '두목지 호걸'은 화자를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님 찾으로 다니'기에 용이한 상황이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5. 초장에서 화자는 개에게 짖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진 개가 제시된다.

13) 5

(나)의 개는 짖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드러난다. 한 편, (다)의 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 미운 임이 오면 반기고 고운 임이 오면 짖기 때문이다.

[오답해설] 1. (나)의 개는 짖음으로써 화자가 자신을 찾아오길 바라는 '두목호걸'이 화자를 찾아오기 어렵게 만드는데, 개에 대한 화자의 요청(=짖지 마라!)을 통해, 개가 두목지 호걸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에서 개는 고운 임이 화자를 찾아오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이 개에 대해 화자는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개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반응을 통해 고운 임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읽어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가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2. (나)에서는 "그 개"라고 말하지만, (다)에서는 "요 개"라고 칭하고 있다. "그 개"라고 한다면 개와 화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요 개"라고 한다면 개와 화자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이를 두고 물리적 거리가 환기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나)의 화자는 두목지 호걸을 기다리지만, 개는 밤 사람을 보면 짖어버린다. 이는 분명 화자와 개의 반응이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자는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을 "고운 임"이라 표현할 정도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개"는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4. (나)의 개는 화자의 요청을 듣고서는 짖지 않는다. 하지만 (다)의 개는 고운 임에 대해서는 컹컹 짖는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 것인지, 화자는 이 개에게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나)에서의 개는 화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존재이기에 교감이 가능한 대상이라 볼 수 있고, (다)에서는 화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기에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이라 볼 수 있다.

14) 4

세 가지 차원의 변모를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앞에서 작품을 감상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연결해봐도 좋겠다. 이본 차원의 변모는 (나)에서 (가)로의 변모일 것이고, 작품 차원의 변모는 (다)에서 (라)로의 변모일 것이다. 갈래 차원의 변모는 나에서 다로의 변모라고 볼 수 있다.

15) 4

(라)를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맥락에 준거하여 감상하면, 종장에 등장하는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정미칠적이 '박살' 나게 되는 계기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 규칙'은 일본에 협조한 정미칠적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한일신협약 자체를 비유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오답해설] 1. (가)는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 혹은 그 후손이 만든 도자기에 적힌 시조이다.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시조를 기록한 것이기에,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① 선지와 같은 논리로 판정할 수 있다.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시조를 도자기에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의 작품을 도자기에 새기면서, 자신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만일 (다)의 '고운 임'이 화자가 만나지 못하는 대상이리ㅏ 본다면, 개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가 짖지 않아도 화자는 고운 임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정미칠적은 한일싡폅약 ㅈ인에 찬성한 인물들이다. 적당히 '친일파'정도로 받3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친일파들이 '타처 사람'에게 아첨을 떨고 있으니. '타처 사람'을 일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안사람'을 조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부 개념학습 2. 독서의 방법-사실적 읽기

예술: 탄소 연대법, 연륜 연대법, 벌채 연도, 연대 측정 방법, 춘재, 추재, 코어링법, 카메라 촬영법, 변재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의 측정에 성공했다.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 냈다.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 이 원자핵에 들어 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이고, 산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이다.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 한다. 예를 들면 탄소의 경우, '탄소-12'는 원자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이며, '탄소-14'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동위원소이다.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의 이유로 본래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붕괴라 한다.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한다.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14'가 된다. 붕괴 전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 일컫는다. 붕괴 전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는 모원소이고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14'는 자원소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한다.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의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남은 모원수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의 1/4로, 세 번째 반감기에는 또 남은 모원수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의 1/8과 같은 식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는 1 : 1로 같아진다. 두 번째 반감기에는 1 : 3으로 되고, 세 번째 반감기에는 1 : 7로 된다.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14'는 5730년, '포타슘-40'은 13억년, '우라늄-238'은 44억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슘-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 : 3이라면 반감기를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이 암석은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006

1)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원자핵의 구성 물질을 세부적 묘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④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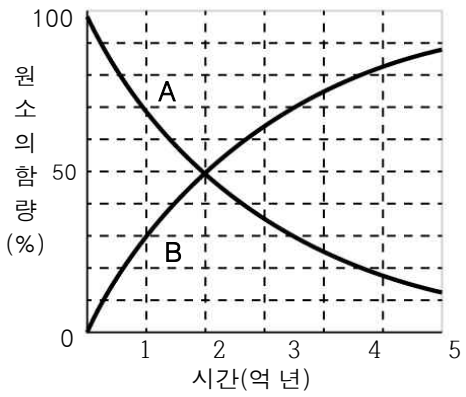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② 질소-14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③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④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3)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 S가 생성될 때 방사성 동위원소 ㉮를 함유하고 있고㉮는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었다.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를 측정한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 : 3이었다.

①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②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③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16로 줄어든다.
④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 : 1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 년이다.
⑤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감소한다.

4)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②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
③ 그는 혼자 힘으로 쓰러진 가세를 일으켰다.
④ 아침에 몸이 피곤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⑤ 그녀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켰다.

5)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탄소-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cosmic ray)의 충돌에 의하여 계속 공급된다.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에서 탄소-14의 생성 비율이 탄소-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으며,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12와 탄소-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고 한다. 식물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갖으며, 식물 내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대기 중의 탄소-12와 탄소-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다.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에 변화가 생긴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가 질소-14로 변하기 때문인데, 이때 생성된 질소14는 기체이므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 나간다.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의 그 비율과 비교하면 탄소-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와 탄소-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탄소-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

①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연대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겠군.
②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14의 개수가 줄어들겠군.
③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에 변화를 일으키겠군.
④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겠군.
⑤ 죽은 생물 안에 남아 있는 질소-14의 양만 알아도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유물의 정확한 제작 연대를 측정하는 작업은 고대사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방사성탄소동위원소(^{14}C)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물의 나이를 알아내고 있다.

탄소(^{12}C)는 원자번호가 6번인 원소로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물의 연대 측정에 쓰이는 탄소는 중성자가 8개인 희귀한 탄소(^{14}C)이다. ^{14}C는 ^{12}C와 성질이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로서 대기 중의 질소(^{14}N)가 우주선(宇宙線)과 반응해서 만들어진다. 우주선이란 우리 은하 전체를 날아다니는 입자들의 흐름인데,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이 질소와 부딪치면 그 충격으로 인해 질소의 양성자는 하나 줄고, 중성자는 하나 늘어나게 된다. 원래 질소는 원자번호가 7번인 원소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7개이지만, 우주선과 부딪치면서 양성자는 6개, 중성자는 8개인 원소로 바뀌게 된다. 원자의 성질은 양성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제 이 원소는 질소가 아니라 원자번호가 6번인 탄소(^{14}C)로 바뀐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12}C가 1조(兆, 10^{12}) 개 있다면 ^{14}C는 1개 정도가 존재할 정도로 희귀하다.

[A] 생물체의 몸은 공기를 통해 받아들인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식물은 대기를 호흡하기 때문에 이들 동·식물의 내부에는 일반탄소인 ^{12}C와 희귀탄소인 ^{14}C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동·식물이 죽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12}C는 거의 변함이 없는 데 반해 방사성원소인 ^{14}C는 붕괴되어 점점 줄어든다. 결국 ^{14}C는 붕괴되어 다시 질소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동위원소의 경우 원자핵이 방사선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원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때 원자 중에 붕괴되지 않고 남은 원자 개수가 처음의 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半減期)'라고 한다.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다양한데, ^{14}C의 경우는 5,730년이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유물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14}C의 양을 측정한 다음, 1조(兆)분의 1이라는 기준 비율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물이나 미라의 샘플 속에 포함된 ^{14}C의 양을 측정한 결과 ^{12}C에 대한 농도가 2조(兆)분의 1이라면, 그 유물의 나이는 5,73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측정시료를 그대로 측정기에 넣는다고 곧바로 연대가 계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측정시료는 대부분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순물이 포함된 시료로 측정하면 오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하려면 시료로부터 순수한 탄소를 ⓑ끄집어내는 고도의 정밀 작업을 먼저 해야만 한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지만, 1회 측정에 다량의 탄소시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다. 그런데 귀중한 문화재의 경우, 측정을 위해 몇 그램(g)이나 되는 탄소시료를 떼어 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가속기 질량분석기이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불과 0.001g의 탄소시료로도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 즉 이전 필요량의 약 1000분의 1로도 연대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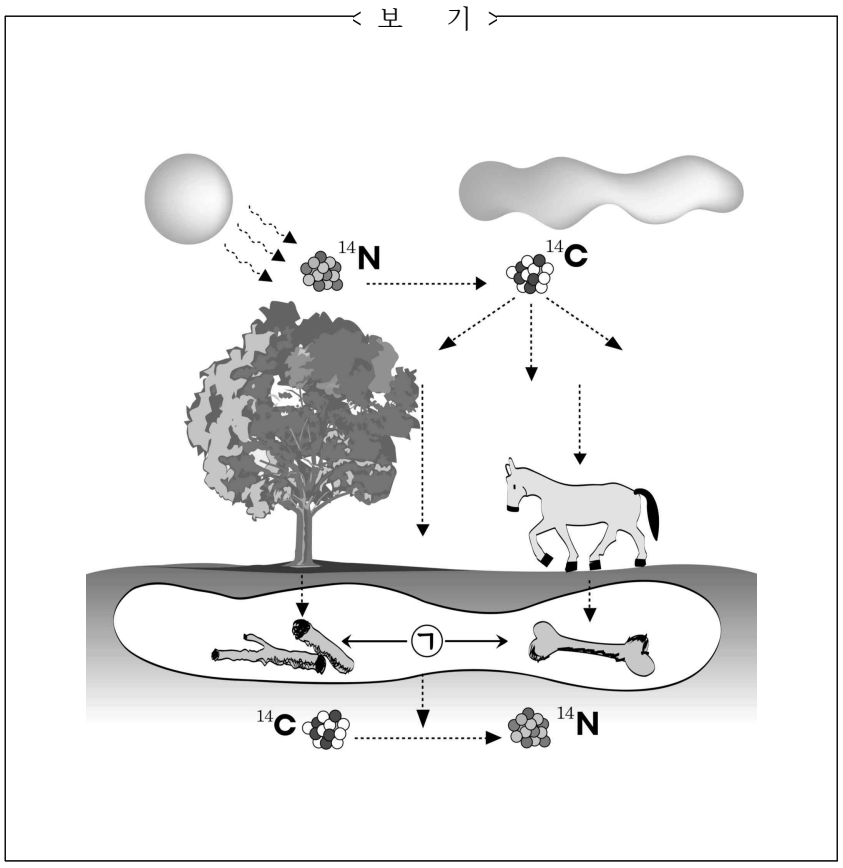
20909

6)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대기 중의 ^{14}C와 ^{12}C의 비율이 유물 연대 측정의 관건이다.
② ^{14}C와 ^{12}C는 대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1:1조(兆)'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③ 가속기 질량분석기의 등장으로 비로소 순수한 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④ 측정시료의 양을 적게 하면 불순물이 적어지므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⑤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7)<보기>는 [A]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①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14}C를 받아들이고 ^{14}N을 내놓는다.
② 몸속에 남아 있는 ^{14}C는 토양 속의 ^{12}C와 반응하여 ^{14}N으로 바뀐다.
③ ^{14}C는 지상으로 쏟아지는 우주선에 의해 반응을 일으키며 줄어든다.
④ ^{14}C와 ^{12}C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과다하게 남아 있는 ^{12}C를 방출한다.
⑤ 외부의 탄소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동·식물의 몸속에 있던 ^{14}C가 점점 줄어든다.

8)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답을 구했을 때,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학교 고고학과 유물 발굴팀은 최근 △△지역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몇 점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이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동위원소(^{14}C)의 양을 측정하였더니 처음 양의 12.5%였다. 이 유물은 대략 몇 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가? (단, 반감기 5,730년을 편의상 6,000년으로 하여 계산할 것.)

① 6,000년 ② 12,000년 ③ 18,000년
④ 36,000년 ⑤ 48,000년

9) ⓐ,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
①	규명(糾明)하는	추출(抽出)하는
②	규정(規定)하는	추인(追認)하는
③	표명(表明)하는	선별(選別)하는
④	표방(標榜)하는	색출(索出)하는
⑤	명명(命名)하는	발췌(拔萃)하는

1부 적용 학습 (5)

해산 바가지 -박완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남편이 의도하지 않게 사기 사건에 걸려 K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나'는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K지청 수사과 권 주임을 만난다.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신대서야 말이 됩니까? 오죽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까?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다 **특별 면회**라는 걸 이용하니 사모님도 제가 그걸 알선해드리죠. 이거면 되니까요, 이거요."

그는 다섯 손가락을 짝 펴 보였다. 그후 나는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즐비한 승용차가 이런 특별 면회자 중의 또 특수층의 차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오 분의 만남을 위한 갖은 수모와 다섯 시간의 기다림조차도 공평한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억울한 사람들만의 이중의 억울함이었던 것이다.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친해진 사람들과의 공통의 억울함에서 나만 놓여나는 게 무슨 배신 같아 꺼림칙한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한편 K지청 **권 주임**의 친절을 가장한 은밀한 공갈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K지청으로 검사 취조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했노라는 핑계로 상당액의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갖고 그를 만난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판사한테로 넘어가봐. 그때야말로 큰돈 든다구, 큰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구. 불기소처분하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맡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니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을 두 번인가 세 번 폈다 접었다 하면서 안달을 했다.

내 소박한 법률상식으론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처분을 교제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를 안 하려 해도 그가 담당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아주 냉대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고 의지할 데라곤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롭게 할 순 없어도 수틀리면 해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드디어 나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번화가에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이 그에겐 너무 작은 사건일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강 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는 듯한, 지루한 듯한 미소로써 들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도 작가의 남편이 장사꾼이란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까지 해놓은 모양이다.

"거참 이상한데요. 암만해도 이상해요. 작가의 남편이 상인, 이래도 이상하고, 상인의 부인이 작가, 이래도 이상하고……"

사건을 검토할 척은 안 하고, 당사자들이 이십 년 넘어를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산 것을 제가 뭐라고 혼자서 이상해하기에 여념이 없는가.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의 이런 속기(俗氣)스러운 호기심과 안이한 이해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소개도 있고 해서 그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그는 저절로 직업적인 자신만만한 태도를 회복하더니 간단히 말했다.

"불기소로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 하고 풀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구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지청 쪽은 훤히 통하니까요."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식이 권 주임하고 똑같을까 하고 정이 떨어졌다. 그는 불기소처분을 아주 청부 맡겠다며 삼십만 원을 요구했다.

친구에게 강 변호사가 이리저리하게 말하더라고 애기했더니 친구는 뛸 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중략)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삼십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됐다.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이 알려준 건 권 주임이었고,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로 알아보더니,

"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럼 그까짓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또 한번 힘 안 들이고 큰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 먹은 도둑놈, 주인의 옷가지를 훔쳐낸 식모, 사고 낸 운전사, 버스 칸에서 싸우다가 이를 부러뜨린 폭력범, 수금한 돈을 가로챈 점원 등, 삼십여 명의 조무래기 잡범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신의 능력으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은 후딱 지나갔고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백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삼십여 명 중 단 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에게만 변호사가 딸렸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서까지 그 고약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십오 일 후의 언도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됐고,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다시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盛饌)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로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하고많은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선 간장 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

- 박완서,「조그만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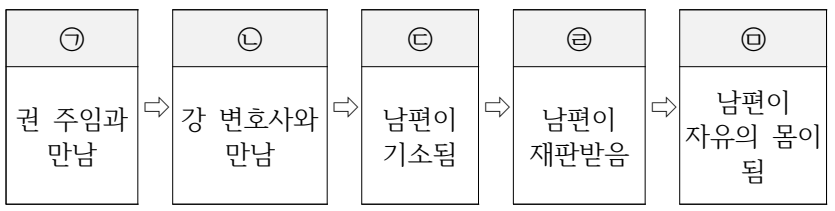
31604

10)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③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④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1)<보기>는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에서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안위에 대한 '나'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② ㉡을 주선한 친구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③ ㉢에서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다.
④ ㉣에서 '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 자신의 선택을 긍정한다.
⑤ ㉤ 이후 예전의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나'는 연민을 느낀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소설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물질주의적 세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불합리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과 소박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회 현실의 부조리함을 부각하고 있다.

① '오래 기다리는 면회'와 '특별 면회'라는 말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엿볼 수 있군.
② '권 주임'의 제안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이란 서술에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하는 생각에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④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라는 표현에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억울하지 않을 자유'는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헌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숱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삿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 - 지금의 동서 - 은 연신 뻐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흥,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흥,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흥,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앳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랴.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

31611A

1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③ ㉡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14)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가 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②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③ 고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④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5)<보기>를 ⓐ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1) 1
[출제의도] 논지 전개 방식 파악하기
4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원자핵의 구성 물질인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세부적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 설명에서 유추의 진술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때 분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 설명에 전문가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고 밝히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질소-14의 원자핵은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5
[출제의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모원소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 B는 시간에 따른 자원소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② 암석 S는 반감기를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③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16으로 줄어든다.
④ 그림에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1로 같아지는 시기는 2억 년이다.

4) 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문맥적 의미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의미이므로 ①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②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④, ⑤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5) 5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서 질소-14는 기체라서 죽은 생물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질소-14의 양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소-14의 양만 알아서는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탄소-14는 죽은 생물체 내에서 6만 년이 지나면 매우 제한된 양만 남기 때문에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다.
② 방사성 붕괴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14의 개수가 줄어든다.
③ 죽은 생물체 안에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 탄소-14의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죽은 생물 내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변화가 일어난다.
④ 생물체가 살아있을 때는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은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6) 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4C는 대기 중의 질소(14N)가 우주선과 반응하여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12C가 1조(兆) 개 있다면 14C는 1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14C와 12C는 1 : 1조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7) 5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이 가리키는 나무토막이나 뼈는 동·식물이 죽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대기를 호흡하지 못한다. 동·식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3문단), 호흡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내부에는 14C와 12C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외부의 탄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동·식물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방사성 원소인 14C는 붕괴되기 시작하여 결국 14N으로 돌아간다.

8) 3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발굴된 유물에 남아 있는 14C의 양이 처음 양의 12.5%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반감기를 3번 거친 결과이다. 1차 반감기가 지났을 때 처음 양의 50%가 남고, 2차 반감기가 지났을 때는 50%의 반인 25%가 남고, 3차 반감기가 지났을 때는 25%의 반인 12.5%가 남는다. 따라서 '6,000년×3회'를 계산하면 18,000년이 된다.

9) 1
[출제의도]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밝히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알다.'는 의미인 '규명(糾明)하다'로 바꿀 수 있고, ⓑ의 '끄집어내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의 의미인 '추출(抽出)하다'로 대체할 수 있다.

10) 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소설은 서술자 '나'가 '남편'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신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①, ②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⑤ 과거 장면이 없고 인물의 외양적 특징도 부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5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 이해하기
'남편'이 풀려난 후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의 서술을 볼 때, 일상으로 돌아온 '나'와 '남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남편'이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거나 '나'가 '남편'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는 진술은 해당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하고 생각하는 것은 권 주임이 나의 남편을 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의한 것으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문에서 남편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면을 지닌 인물로, '나'는 그것과 합치되지 못한 채 남편이 그런 모습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은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삿대질까지 해' 대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남편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고, ㉡은 추억이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 집착하면서 실용적인 편리만으로 정신적인 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나'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의 남편의 행동이 내면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남편의 흥정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흥정일 뿐, '나'가 지키고 싶은 은행나무와 거기에 깃든 소중한 가치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② 장사꾼들과 흥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는 세속적이면서도 영악한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 남편의 콧구멍과 코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는 '모멸과 혐오'를 느끼고 있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③ '나'가 고가(古家)의 해체가 주는 내면적인 고통을 견딘 것은 고가의 해체마저도 실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편에게 맞춰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추억을 지니고 있는 은행나무를 지키려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 속에 남아 있는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④ ㉡의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라는 표현에는 남편의 가치관과 판단에 자신을 맞추려는 '나'의 심리가, ㉣에는 남편의 이마에 돌발적인 키스를 퍼부음으로써 세속적으로 살아온 남편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이겨내려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⑤ 고가를 해체하고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가 은행나무만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족들과 자신의 애환 등 내면의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4) 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문의 내용을 통해 남편이 고가를 철거하는 것은 고가가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기 때문이고, '음침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단순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면만 고려하고 있을 뿐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고가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것은 고가를 해체하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하여 새 집을 짓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나'는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 남편의 뜻이 반영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가 고가의 해체를 보며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고가가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가는 해체된 뒤에도 '나'의 내면에 '해체되지 않은 모퉁이'를 남김으로써 갈등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⑤ '음침한 고가'에는 고가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인식이, '숙연한 고가'에는 '나'의 고가에 대한 아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다.

15) 4
인물의 심리 파악, 관용어구의 이해
정답해설 : ⓐ에서 '농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화가를 평가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이다. 즉 죽은 다음에 그렇게 치켜세울만한 화가였다면 왜 살아있을 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로, 특별한 원칙 없이 대상을 평가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므로 ⓑ에는 '어떤 원칙이 정

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1부 개념학습 2.독서의 방법-추론적 읽기

기술: 헬리콥터, 회전 날개, 기류 속도, 전진익, 후퇴익, 동압, 정압, 양력, 받음각, 플래핑, 플랩 업, 플랩 다운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행기가 뜨는 작용을 설명하는 베르누이의 원리는 익히 알려져 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공기나 물 같은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 그 유체로부터 받는 압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비행기는 날개의 윗면이 곡면이고 아랫면은 평면인 반원형에 가깝다. ㉠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위와 아래로 갈라지게 된다. 이때 위쪽으로 간 공기의 흐름은 반원의 둥근 면을 따라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지나는 공기는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위쪽의 둥근 면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위쪽으로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 더 빠르다. 따라서 비행기를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한 위쪽으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양력이다.

그런데 ㉡ 헬리콥터가 뜨는 원리는 약간 다르다. 양력을 이용하긴 하지만, 비행기의 유선형 날개가 양력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헬리콥터의 회전하는 날개는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이 ㉮ 생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력을 만들까? 헬리콥터는 회전날개의 각도를 달리하여 양력을 만든다. 이것은 차를 타고 실험해 볼 수 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옆의 유리창 밖으로 손을 약간만 내밀어 보자. 손을 수평으로 펴고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이면, 손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리콥터도 중앙 프로펠러의 날개 각도를 기울여 회전시킴으로써 프로펠러 위와 아래의 압력차로 양력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비행기처럼 전진하지 않고도, 날개 자체의 회전으로 수직 이륙이 가능한 것이다.

[A] 그러나 중앙의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되면, 헬리콥터의 본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는 뉴턴의 작용 . 반작용 법칙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중앙 프로펠러 윗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또 하나의 날개를 얹어 중앙 날개가 본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을 상쇄하도록 설계하였다. 1939년 이고르 시코르스키는 뒷부분에 꼬리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장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이 프로펠러가 본체의 회전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꼬리 프로펠러가 헬리콥터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영화의 헬리콥터 추격 장면에서 꼬리 프로펠러가 고장난 헬리콥터가 마구 회전을 하며 추락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흐르는 유체에 휘어진 물체를 놓으면 유체도 따라 휘면서 흐르는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여 꼬리 프로펠러 없는 헬리콥터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헬리콥터에서는 꼬리 날개 대신 공기 흡입 장치를 달아서 공기를 빨아들인 후, 둥근 형태의 파이프를 따라 이 공기를 흘러가게 한다. 그러면 코안다 효과에 의해 파이프 모양을 따라 동그랗게 공기가 회전하면서 나간다. 이러한 공기의 회전력이 꼬리 프로펠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과학의 원리들은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과학 원리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를 탐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0911

1)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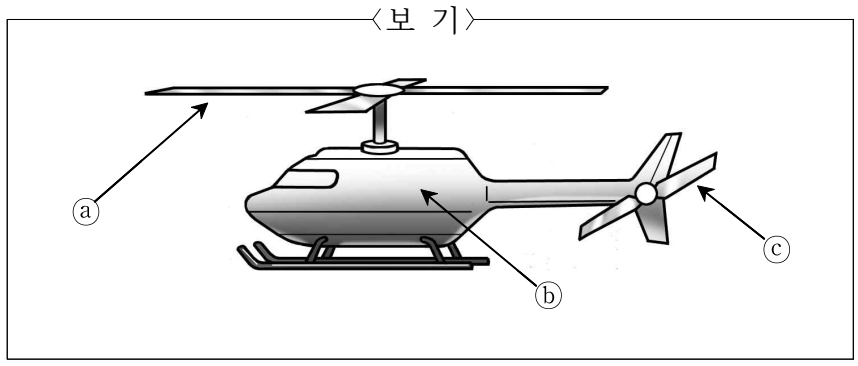
① 코안다 효과의 응용
②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
③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④ 헬리콥터의 설계 원칙
⑤ 역학 이론의 변천 과정

2) ㉠,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회전 날개의 각도 조정으로 이륙한다.
② ㉠과 ㉡은 모두 본체의 전진 이동으로 양력을 만든다.
③ ㉠은 ㉡과 달리 이륙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과 달리 ㉡이 뜨는 데에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된다.
⑤ ㉠과 달리 ㉡은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이 동일하다.

3) [A]를 참고하여 <보기>의 회전운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가 회전하면, 그 반작용으로 ⓑ가 회전하려 하겠군.
② ⓐ의 회전력이 ⓒ의 회전력을 상쇄시키겠군.
③ ⓑ가 회전하려는 방향은 ⓐ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겠군.
④ ⓑ가 회전하려는 힘을 상쇄시키는 것은 ⓒ의 회전력이군.
⑤ ⓒ의 회전은 ⓑ의 회전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군.

4)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옷에 얼룩이 생겼다.
② 당장 굶어죽게 생겼다.
③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④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
⑤ 나에게 공짜로 집이 생겼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비행체들은 공기보다 무거우며, 공중에 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양력(揚力)을 필요로 한다. 양력이란 비행기의 날개 같은 얇은 판을 유체 속에서 작용시킬 때, 진행 방향에 대하여 수직·상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양력은 항상 날개에 의해 공급된다. 날짐승과 인간이 만든 비행체들 간의 주된 차이는 날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용되는 힘의 출처에 있다. 비행기들은 ⓐ 엔진의 힘에 의해 공기 속을 지나며 전진하는 고정된 날개를 지니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날짐승들은 ⓑ 근육의 힘에 의해 공기 속을 지나는, 움직이는 날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글라이더 같은 일부 비행체나 고정된 날개로 활상* 비행을 하는 일부 조류들은 이동하는 ⓒ 공기 흐름을 힘의 출처로 이용한다.

비행기 날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니엘 베르누이가 연구하여 얻은 것이다. 베르누이는 유체의 속도가 증가할 때 압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장식볼 두 개를 이용하여 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개의 장식볼을 1센티미터 정도 떨어뜨려 놓았을 때, 공기가 이 사이로 불어오면 장식볼은 가까워져서 서로 맞닿을 것이다. 이는 장식볼의 곡선을 그리는 표면 위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올라가서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장식볼들 주변의 나머지 공기는 보통 압력에 있기 때문에 장식볼들은 서로 ㉠ 붙으려고 하는 것이다.

프로펠러 날개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활용하여 윗면은 볼록하게 만들고 아랫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게 만들어진다. 프로펠러 날개가 공기 속에서 움직일 때, 두 표면 위를 흐르는 공기 속도의 차이는 윗면 쪽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아랫면 쪽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프로펠러 날개에는 상승 추진력 혹은 양력이 생기고, 비행체는 공중에 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 프로펠러 날개의 움직임 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양력은 움직임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항력을 항상 수반하며, 항력은 양력과 직각을 이룬다. 두 힘의 결합을 총반동력이라고 하며, 이것은 압력중심이라고 부르는 지점을 통해 작용된다. 프로펠러 날개의 두께와 표면적을 증가시킬수록 양력이 증가된다. 또한 날개의 받음각**을 경사지게 하면 각이 커질수록 양력이 증가된다.

그런데, 양력이 증가되면 항력도 증가되고, 따라서 공기 속에서 프로펠러 날개를 미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현대의 여객기들은 이륙과 착륙 전에 날개의 두께와 표면적이 증가되도록 하는 다양한 ⓓ 양력 장치들을 지니고 있다.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은 증가하지만 곧 최고값에 도달하게 되고 그 뒤에는 급속히 떨어진다. 이를 실속(失速)되었다고 한다. 실속은 프로펠러 날개 표면에서 공기 흐름이 분리되면서 일어난다. 실속은 프로펠러 날개의 뒷전에서 시작되어 앞으로 이동해 나가고, 양력은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의 양력은 실속점에서 상실되며, 양력이 항공기의 ⓔ 중량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고도를 상실한다.

* 활상(滑翔) : 날개를 놀리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나는 모양
** 받음각 : 양력(揚力)이 영(제로)이 되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과 날개가 놓인 방향 사이의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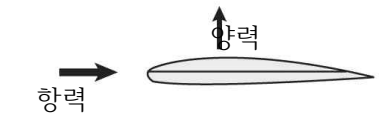
20511

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날개의 작동 방식 ② 비행의 기본 원리
③ 항공기의 발달 과정 ④ 양력의 증가량 측정
⑤ 항공기와 날짐승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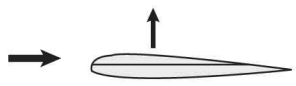
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받음각이 최고값이 되면 속도가 증가한다.
②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
③ 비행체가 공중에 뜨기 위해서 양력이 필요하다.
④ 프로펠러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활용하여 만든 것이다.
⑤ 총반동력은 압력중심이라고 부르는 지점을 통해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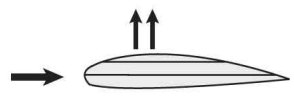
7) <보기>는 [A]를 바탕으로 프로펠러 날개의 단면에 작용하는 항력과 양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 중, 양력의 크기를 바르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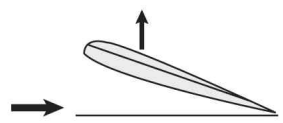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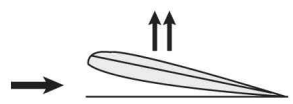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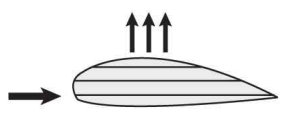
※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개수로 표시

①


②


③


④


⑤


8)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① 접목(接木)하려고 ② 접선(接線)하려고
③ 접촉(接觸)하려고 ④ 접착(接着)하려고
⑤ 접합(接合)하려고

9) ⓐ ~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임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비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니, 나 역시 네 마음을 막을 도리가 없다. 내가 보니 자란과 네가 사랑하는 정이 깊어 헤어지기 어려울 듯하구나. 헌데 너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터라, 지금 만일 자란을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혼인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남자가 첩 하나 두는 거야 세상에 흔한 일이니, 네가 자란을 사랑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해야겠지. 네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으니,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말해 보거라."

도령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A] "아버지께선 제가 그깟 기녀 하나와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때 제가 번화한 데 눈을 주긴 했지만, 지금 그 아이를 버리고 서울로 가면 헌신짝 여기듯이 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이에게 연연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찰사 부부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진정 대장부로구나."

이별의 날이 왔다. 자란은 눈물을 쏟고 목메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도령은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도령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했다.

그러나 실은 도령이 자란과 오륙 년을 함께 지내며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호쾌한 말을 내뱉으며 이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관찰사는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도령은 부모를 따라 ㉡서울로 돌아온 뒤 차츰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감히 내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감시가 다가왔다. 도령은 부친의 명을 받아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벗들은 모두 잠들었는데, 도령 혼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나와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이라 쌓인 눈 위로 달빛이 환했고, 깊은 산 적막한 밤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령은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란 생각이 들며 마음이 서글퍼졌다. 한 번만이라도 자란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마침내 도령은 한밤중에 절을 뛰쳐나와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털모자에 쪽빛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 길을 걷노라니 10여 리도 채 못 가서 발병이 나 걸을 수가 없었다. 시골 농가를 찾아가 신고 있던 가죽신을 내주고는 짚신을 얻어 신었고, 털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 대신 해지고 테두리가 뜯어진 벙거지를 얻어 머리에 썼다. 길을 가며 밥을 빌어먹다 보니 늘 굶주릴 때가 많았고, 여관 한 귀퉁이에 빌붙어 잠을 자다 보니 밤새도록 추위에 몸이 얼었다.

[중략 줄거리] 평양에 도착한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기녀인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기거하는 곳에서 눈을 쓰는 인부로 일을 하게 되고, 둘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란의 어미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보따리를 이고 지고 몰래 달아났다. 양덕과 맹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시골 촌가에 몸을 의탁했다.

처음에는 그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도령은 천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잘했으므로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 뒤에는 마을에 몇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부지런히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또 지니고 온 옷가지와 패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니 살림이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다. 자란은 또 이웃과도 잘 지내며 환심을 샀기에, 사방 이웃들이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도움을 주었으므로 마침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왔을 때의 일이다.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도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친구들은 즉시 승려들과 함께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도령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도령의 집에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많은 하인들을 풀어 절 부근 수십 리를 며칠 동안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역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요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게 틀림없다."

결국 도령의 상을 치르고 빈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자란이 달아난 뒤 서윤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미와 친척을 모두 가두고 자란의 행방을 쫓게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종적을 알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다.

자란은 도령과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도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B] "당신은 재상 가문의 외아들이건만 한낱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 외진 산골에 숨어 살며 집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나쁜 행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지금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어요. 당신은 앞으로 어쩌실 작정인가요?"

도령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게 걱정이지만,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자란이 말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대로 과거의 허물을 덮는 동시에 새로운 공을 이룰 수 있어, 위로는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길인데,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령이 물었다.

"대체 어떤 방법이오?"

자란이 말했다.

"오직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떨치는 길 한 가지뿐이어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령이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오."

-임방, 「옥소선」-

22011

10)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물이 겪은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외양 묘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전기적 요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11)<보기>는 윗글의 '도령'이 이동한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서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이다.
②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의 인물들이 옥에 갇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③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은 알지 못했다.
④ ㉢에서 ㉣로 향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졌던 인물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⑤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인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12)<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효나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가치와, 신분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사랑을 성취한 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①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도령이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자란을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장면을 통해,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도령이 자란의 문제 제기에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⑤ 자란이 과거 급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통해,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13)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청자를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
② [A]에서는 청자의 장점을 언급하며 청자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청자의 언행을 질책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청자에게 질문을 반복하며 예견되는 상황을 장담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
④ [A]에서는 청자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청자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고 있다.
⑤ [A]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며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다.

1) 2
[출제의도] 적절한 중심 화제 파악하기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뜨는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과학 원리를 서술한 글이므로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가 중심 화제이다.

2) 5
[출제의도] 글 속에 등장한 두 대상의 속성을 비교하기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달리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이 동일하지만, 날개의 각도를 달리하여 수직이륙이 가능하다. ① '헬리콥터'만 회전 날개의 각도 조정으로 이륙한다. ② '비행기'는 본체의 전진 이동으로 양력이 발생하지만, '헬리콥터'는 프로펠러의 회전력에 의해 양력이 발생한다. ③ 이륙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언급된 것은 '헬리콥터'이다.

3) 2
[출제의도] 헬리콥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A]에서는 수직으로 서 있는 꼬리 프로펠러가 본체의 회전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프로펠러(ⓐ)의 회전력이 꼬리 날개(ⓒ)의 회전력을 상쇄시킨다는 내용은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4) 4
[출제의도] 낱말의 문맥상 의미 찾기
이 글의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이 생겼다.'의 '생겼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사전적 의미이므로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의 '생겼다'와 유사한 의미이다. ①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이다. ②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이다.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다'의 의미이다.

5) 2
[출제의도] 주제를 파악하여 제목으로 정하기
[해설] 본문은 비행기의 날개를 베르누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하여 양력을 증가시키는, 비행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①, ④, ⑤는 일부의 내용으로 제목을 정하기엔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6) 1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
[해설] 본문 속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된다. ①은 여섯 번째 문단에, 받음각이 최고값이 되면 양력이 그 뒤로 급속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②는 두 번째 문단에, ③은 첫 번째 문단에, ④는 세 번째 문단에, ⑤는 네 번째 문단에 언급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7) 3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여 적용하기
[해설] 항력이 일정할 때, 양력의 크기는 프로펠러 날개의 두께와 표면적을 증가시킬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최고값에 이르지 않는 한, 날개의 받음각을 크게 할수록 증가한다. ③은 ④보다 받음각이 크기 때문에 양력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8) 3
[출제의도] 어휘 바꾸어 쓰기
[해설] ㉠은 '물체와 물체 또는 사람이 서로 바짝 가까이하다'의 뜻이다. 이러한 뜻을 지닌 것은 ③이다. ③는 '서로 맞닿음'의 뜻이다. ④는 '두 물체의 표면이 접촉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게 됨'을 뜻하고, ⑤는 '한데 대어 붙임'의 뜻을 가지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9) 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양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⑤는 오히려 양력을 감소시키므로 정답은 ⑤이다.

10) 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윗글에는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도령이 자란을 찾아가는 동안의 힘겨운 상황을 누추한 외양을 통해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령이 이별할 때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온 이후 절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2
[출제의도] 인물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기
㉣의 인물들이 갇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도령과 자란이 ㉣에서 ㉤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서 관찰사의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③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있던 친구들은 알지 못한 채 '요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진 자란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⑤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자란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므로 적절하다.

12) 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양반인 도령은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기녀인 자란은 도령과 이별할 때 목메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을 뿐이므로,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도령이 실성한 모습으로 자란을 찾아가는 것은 사랑의 감정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도령과 자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란의 베 짜기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 갔고, 자란이 옷가지와 패물을 팔거나 이웃과 잘 지내 환심을 산 결과이므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자란이 불효의 문제를 제기하자 도령이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자란은 과거 급제의 당위성으로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효와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입신양명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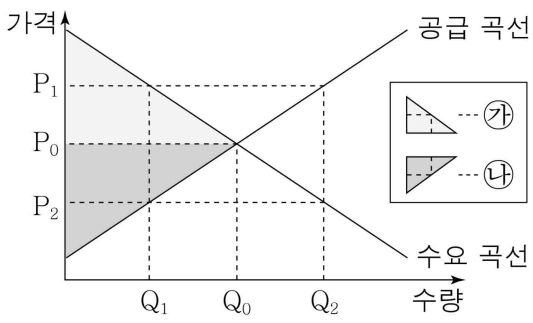
13) 1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는 도령이 이별에 연연해하지 않을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염려하는 부친을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란이 외진 산골에서 늙어 죽을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환기하며 도령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도령은 부친의 장점을 언급하며 부친의 성품을 칭송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자란은 도령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도령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령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도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 가격 규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자유주의 경제학, 시장 균형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중 손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_0에서 형성된다. 재화의 가격이 P_1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_1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Q_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_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_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_1로 줄어든다.



<그림>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_0에서 P_1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 재화의 가격이 P_2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kg이고,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300원/kg이라고 가정해 보자. K국이 자유 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kg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kg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kg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100원/kg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12003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②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④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⑤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②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
③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④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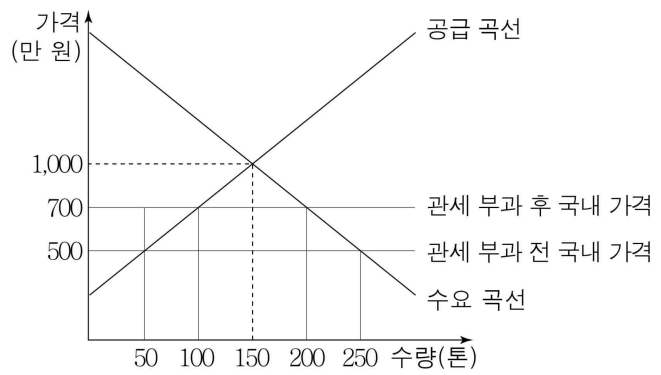
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기 때문에
②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4)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P국에서는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바나나 산업 보호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바나나 수입으로 인한 P국의 시장 변화>

①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②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③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④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⑤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5)윗글의 '관세(A)'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다.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①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②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겠군.
③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④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군.
⑤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휴대전화기를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대리점에 간 소비자가 있다. 대리점에 가면서 휴대전화기 가격으로 30만원을 예상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니 가격이 25만원이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흔쾌히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익이 생겼음에 좋아할지도 모른다. 처음 예상했던 휴대전화기의 가격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 즉 5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소비자 잉여(消費者剩餘)'라고 부른다.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차액이 소비자 잉여인 셈이다. 결국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면 할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나니, 대리점 직원은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바꾸라고 권유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보다 기본요금이 조금 더 비싼 대신 분당 이용료가 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비자는 지금까지 휴대전화의 요금이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정말 특이한 가격 체계였다. 동네 중국집에서는 입장료를 따로 내지 않고, 먹은 자장면 값만 지불하면 된다. 주유소를 이용할 때도 가입비를 별도로 내는 일 없이 주유한 기름 값만 지불하면 된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는 보통 한 번만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왜 휴대전화 요금은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의 이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휴대전화 회사는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의 ㉠이원 체제 전략, 즉 '이부가격제(二部價格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그 권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값으로 지불하고, 실제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또 값을 지불해야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부가격제를 적용하면 휴대전화 회사는 소비자의 통화량과 관계없이 기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부가격제를 적용하는 또 다른 예로 놀이 공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놀이 공원에 갈 때 저렴한 입장료를 지불했고, 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표를 구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기구를 골라서 이용하여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었고, 구경만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의 놀이 공원은 입장료를 이전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하고 놀이 기구의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했다. 게다가 '빅3'니 '빅5'니 하는 묶음표를 만들어 놀이 기구 이용자로 하여금 가격의 부담이 적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놀이 공원의 가격 전략은 사용료를 낮추고 입장료를 높게 받는 이부가격제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놀이 공원의 입장료는 (㉡)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간 사람들이 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내는 요금은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모색은 계속되고 있다.

20706

6) <보기>는 경제 서적의 차례이다. 위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보 기>

【 현대인을 위한 경제 】

○ 제1장 : 경제의 역사 둘러보기 ····· ①
○ 제2장 : 국가 경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 ②
○ 제3장 :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 알아보기 ····· ③
○ 제4장 : 건전한 소비하기, 절약하는 생활하기 ····· ④
○ 제5장 : 경제, 생활 속 소재로 가까이 다가가기 ····· ⑤

7) 위 글을 읽고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놀이 공원의 '빅3'나 '빅5' 등의 묶음표는 이용자를 위한 가격 제이다.
② 이부가격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가격 제도이다.
③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 족감과 반비례한다.
④ 휴대전화 요금제는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가 비쌀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⑤ 가정으로 배달되는 우유를 한 달 동안 먹고 지불하는 값에는 이부가격제가 적용됐다.

8)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상점에서는 개업 기념으로 하루 동안 모든 물건을 30% 할인해 준다.
② ○○통닭집은 쿠폰 10장을 모으면 통닭 한 마리를 더 주는 판매 전략을 세웠다.
③ ○○주식회사는 판매량을 1.5배 이상 올린 직원에게 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구입한 후 받은 추첨권에 성명 과 주소를 기입하면,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 공한다.
⑤ ○○카메라 주식회사는 자사에서 생산한 즉석 사진기를 싸게 팔고, 즉석 필름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판매 전략을 펴고 있다.

9)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상품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
② 상품을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요금
③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가격
④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품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만선 -천승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서떼를 발견한 곰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부서떼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만, 정작 곰치는 배 주인인 임 영감이 빚을 갚지 않으면 배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 곰치는 아들 도삼의 친구인 연철이와 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 영감을 만나러 갔다. 한편 범쇠 영감은 연철이가 남몰래 연정을 품고 있는 슬슬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며 구포댁을 찾아온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곰치와 구포댁이 수락한다면 임 영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구포댁은 이를 거절한다.

구포댁 영감 마음은 우리 슬슬이를 예펜네 삼고 싶다는 것이여!

곰치 ㉠(크게 놀라) 믓이라고?

연철 예펜네? (말문이 막혀) 어허허- (침통한 얼굴로 감전당한 듯 서 있다)

구포댁 술집 계집 만드는 것이 아니람시러 펄쩍펄쩍 뛰드니 입이 닳아저라 사정사정 하는 것을 내가 하도 독살스럽게 함께로 코가 쑥 빠져서는…….

곰치 (깊은 생각에 잠기며) 하긴 범쇠만 나무랄 일이 아니여…… (별안간 언성을 높여) 그라제만 이 곰치가 아직은 두 눈이 멀뚱하단 그 말이여! 이만 원 땀세 내가 져? (노기를 띠어) 미친 놈! 쓸개 빠진 놈! 흥!

[A] **연철** (곰치에게 우루루 다가가선 살기 찬 음성으로) 아자씨! 그래 그놈의 영감을 가만 둬요? 그런 말을 씨불대는 그 놈의 주둥이를 그냥 둬요? (주먹을 불끈 쥐어 허공을 내젓는다)

곰치 (무뚝뚝하게) 그런 소리 하면 못써! 지놈 욕심이 그런 것을 믄 죄 지었다고 죽여? ㉡(태연하게) 내버려둬! 내가 이기면 그만이여! 지면 할 수 없어! 이겨사제!

연철 그라제만 그런 말을. (심한 고통을 참고 섰다)

구포댁 그나저나 임영감 만나 보셨오?

곰치 누가 놀러 댕겼어?

구포댁 원, 말도 모지게도 하요거! 일이 으찌께 됐냔 그 말이제…… 은제 임 영감 만나고 은제 고기잡고…….

곰치 오늘 같은 날 배를 안타고, 이 곰치가 배겨날 것 같어? 중선배를 못 타먼 남의 똘망배라도 끼어 타야제…… (광적으로) 나도 오늘 배 탔다! 중선배에 부서는 아니어도 똘망배 타고 고기 잡았다! (뚝 쪽을 향해 자꾸 손가락질을 해 대며) 느그들만 고기 잡았어? 응?

구포댁 속 끓이지마쇼예…… 이라지 마쇼예…… (연철에게) 우리 배는?

연철 내일 모래까지 뱃삯 치르기로 하고…… (똑똑히) 배는 풀렸오!

구포댁 (좋아 펄쩍 뛰며) 응! 풀렸어!

곰치 내일 배 푼다! (생기가 돈 얼굴로 야릇한 웃음) 으흐흐!

구포댁 내일사 풀어? 이고 속 터져! 남들은 아침 절에 두 배를 푸는디!

[B] **곰치** 그것을 누가 몰라? (안타깝게) 간쭉이 썩어 문들어진다! 그래 몇 십 년 만에 처음 백힌 부서떼를…… (주먹으로 마루를 텅 치며) 이것을 그냥…… 그냥 남의 그물 속에 다만 처넣어 주고 있단 말여.

구포댁 ㉢(덩달아 몸을 부르르 떨며) 이고 속 터져! (옷고름으로 두 눈을 꾹 누르고 나선) 시상에! 바다에다 목숨 붙여 묵고 삼시러는 좋은 일이 있었어? 물줄 같은 아들들만 셋이나 지사 지내고……. (흐느낀다)

[C] **곰치** (벽력같이) 또 그 소리! 미쳤어? (발악적으로) 시끄럿!

구포댁 속이 타서 그란하요? 몇 년 동안 배 붙여 묵음시로 죽고 살고 해야 뱃삯 질러 넣다 지치고는 목구멍 풀칠이나 으찌께 하다 봉께는 이만 원 빚만지고, 부서떼가 사태 났다는디도 멀뚱하게 보락꼬 앉아만 있을랑께는 속이 썩어 그라제머.

[C]곰치 (처절하게) 뱃놈 한 세상 그래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란 말이다! 팔뚝에 심줄이 사내끼같이 꼬였어도 돈을 몽아 봤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재며) 내 배도 없이 남의 배에 얹혀 묵고 사는 팔자에 사설은 믄 사설이란 말이여?

연철 (곤란한 입장을 회피하기라도 하려는 듯) 저어…… 도삼이는 으디 갔지라우?

구포댁 (힘 없는 목소리로) 뚝에 나갔는디…….

연철 (망설이다간) 슬슬이는?

구포댁 즈그 아버지 찾으러 나갔었는디……. 동네에 있겠제, 으째서?

연철 (당황해서) 아, 아니라우! 나 좀 나갔다 올랍니다……. (빠른 걸음으로 퇴장)

구포댁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 없다간 갑자기 곰치의 팔을 붙들고) 예에? 도삼이 아부지!

곰치 (건성으로) 으째 그려?

[D] **구포댁** (애걸조로) 요참물에 빚만 빼면 아조 뭍으로 나가서는 땅이나 파묵꼬 삽시다! 예에?

곰치 (두 눈을 부라려 뜨곤) 믓이라고? (벌떡 일어서며) 미친 소리!

[D]구포댁 (따라 일어서며) 아조 그랍시다 예에?

곰치 (완강하게 뿌리치며) 미친 소리 마럿! 내가 눈 속에 흙들 때까지 그물을 놓나 봐라! 그물을 놔? 바다를 떠나? 어림없는 소리 마라! 기어코, 기어코 똘망배 하나라도 장만하고 말 것잉께!

구포댁 ㉤(악에 받쳐) 그람 몽땅 죽잔 말이요? 이렇게 눈치보고만 살다가 밟혀 죽잔 말이요?

곰치 죽어? 아니 이 곰치가 으째 죽어? 곰치는 안 죽는다.

구포댁 (기진해서 체념조로) 후유- 당신 맘대로 하쇼그랴! 당신 고집대로만 하잔 말이여! (울먹이는 소리로) 날이 갈수록 그저 밤낮으로 아른그리는 것이 죽은 아들놈들 얼굴이고…… (비명처럼) 못살어! 못살겠어어!

[E]곰치 그 소리 싹 집어치지 못해? (구포댁의 코앞에다 손가락 삿대질을 해대며) 내가 여기를 떠? 이것아! 생각 좀 해 봐라! 삼대가 다 물속에서 죽었어! 곰치가 그물을 손에서 놓는 날에는 차라리 배를 갈르고 말끼여!

구포댁 그래, 내가 뭇이라고 했길래 이 수선이요? 삼대가 아니라 십대라도 물귀신 만들먼 씨언할 거 아니요? (양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으며) 이고오! 내가 믓하러 저 새끼를 낳등고? 믓한다고 늙은 년이 또 아들을 퍼 내질렀어?

(우편 방 속으로 갓난애 울음 터진다. 구포댁 비틀비틀 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곰치 넋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

- 천승세,「만선」-

11211

10)위 글을 감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을 전개하는 핵심 소재를 파악하도록 한다.
②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③ 인물의 대사를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이해하도록 한다.
④ 사투리 사용이 극의 분위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⑤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인물의 대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11)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희곡은 갈등의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곡에서 인물의 갈등은 인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만선」의 한 장면에는 이러한 인물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갈등 양상을 살피는 학습 활동을 해 보도록 하죠.

① [A]는 슬슬이에 대한 연정으로 인해 연철의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B]는 배가 없어 부서떼를 잡을 수 없는 곰치의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C]는 부서떼를 잡지 못하는 곰치와, 그 이유를 곰치 탓으로 돌린 구포댁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 [D]는 곰치와 구포댁이 미래의 삶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갈등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E]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구포댁과 어부로서의 집념을 드러내는 곰치와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2)㉠ ~ ㉤에 대해 연출자가 배우에게 지시했음 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곰치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연기해 주세요.
② ㉡은 범쇠와의 관계를 생각한 곰치가 현재 상황을 회피하는 것처럼 연기해 주세요.
③ ㉢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구포댁의 분함이 느껴지도록 연기해 주세요.
④ ㉣은 구포댁이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린 결정을 곰치에게 말하려는 모습으로 연기해 주세요.
⑤ ㉤은 구포댁이 곰치에게 모질게 대드는 모습이 보이도록 연기해 주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홀어미인 꼼실네는 자신의 봇둑*에 잇닿은 논의 임자인 돈술을 사랑하고 있지만, 돈술은 그녀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돈술은 오직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자신의 벼포기에만 관심이 있다. 때문에 꼼실네는 돈술의 꽉 막힌 마음을 트게 하기 위해 봇둑을 막아 양어장을 만들어 버린다. 논에 댈 물을 얻지 못하게 된 돈술은 꼼실네 집으로 달려가 봇둑을 트라고 윽박지르지만, 꼼실네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돈술 노기등등해서 꼼실네에게 다가가는데 정 노인 하수*에서 등장, 분위기를 직감하고 바삐 걸어와 돈술의 앞을 가로막는다.

정 노인 (꾸짖듯) 돈술이. 자네 미쳤어? 아 이 꼴이 믓이여. 이라지들 말어. 이라지 안 해도 다 될 일들을 갖꼬는…… (꼼실네에게) 어서 후딱 방으로 들어가세.

돈 술 (울화통이 치밀어) 아, 형님…… 생각 좀 해보시게라우. 이거 미칠 일이 아니요? 한사코 봇물을 못 트겠다는디 어쩔 것이요?

정 노인 (의미 있게) 이 곰 같은 놈아. 봇둑은 터진다 터져! 다 터지게 된단 말이여!

돈 술 (영문을 몰라) 으찌께라우?

꼼 실 네 (일어나서며) 봇둑은 못 트요. 그렇게 한다고 터진다우?

돈 술 저것이?

정 노인 이러지들 말라 해도. (사이. 꼼실네에게) 꼼실네! 고분고분 말로 해도 되네. 아, 돈술이놈 고집이 좀 세서 탈이제 차분하고 일 잘하고 사람이사 오직 좋응가.

꼼 실 네 ㉠(얼른) 그것을 누가 몰라서라우!

정 노인 암! 아암- (돈술에게) 그라고 이 사람아. 매시랍고 깔끔하고 인물 좋고, 아, 여자 몸으로 40리 길 읍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떡바구리 이고 날라대드니 그새 돈 모아서 양철집 짓고 방죽* 사고 동네가 쩡쩡 울리는 꼼실네 인품을 자네는 몰라? 엉?

돈 술 ㉡(얼른) 아, 그것을 누가 몰라!

꼼실네, 얼굴을 가리고 상수* 쪽으로 총총히 걸어간다.

돈 술 니 으디 가냐? 아조 결판을 내자고…… 결판내고 가.

꼼실네 나 꼼실이한테 마중 나가는디 믄 상관이요? 장바구리 받어와야제……. 오랜만에 고기라도 구워야제. 홀애비 시래깃국 소금에다 절여 멕일 참잉가?(황급히 상수로 퇴장)

돈 술 (영문을 몰라) 저것이 믄 꿈 같은 소리를 쫑알댄당가? 지길헐.

정 노인 글씨…… (사이. 돈술을 끌며) 하여튼 저리 좀 가세.

두 사람, 꼼실네 집에서 돈술의 집 마루로 와서 앉는다.

정 노인 자네, 제답*을 등제 방죽에다 부쳐먹을 참이제?

돈 술 형님도 원 말씀이라고 하시오? 아문…… 목줄이 끊어져도 봇둑은 트고 말 텡께.

정 노인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눈치가 없어? 말년에 둘이서 의지하고 살면 을매나 좋아? 꼼실네 같은 재취감이 으디 있는 줄 알어?

돈 술 아니, 형님도 인자 망령이세?

정 노인 내가 으째 망령이여? 꼼실네가 자네를 을매나 좋아하는지 앙가? 등제 방죽에 봇둑을 막은 이치는 꼼실네가 자네하고 말문 틀라고 한 짓이여.

돈 술 (벌떡 일어나며) 형님. 망령이요, 망령. 나도 사내요. 나도 근 이십 년을 홀애비 독수공방 지낸 놈이고…… 그라제만 이번 일은 틀려. 저 꼼실네가 분명히 날 잡아묵겄다고 눈에다 불 쓰고 지랄이란 말이요!

정 노인 허참- 이봐. 자네 아들 준섭이가 뭐라고 한 줄 앙가?

돈 술 뭐? 우리 준섭이가? 뭐라고?

정 노인 입대할 때 나한테만 그러대. 꼼실네하고 자네하고 혼사만 올리는 것만 보면 죽어도 원 없겠다대.

돈 술 설마? 내가 저 하나 땜서 이렇게 홀애비 신세인 줄 뻔히 알텐디 (사이. 버럭) 형님. 그런 말씀 하실라면 당장 가씨요. 어서! 무담씨 화해시키고 싶응께 엉뚱한 준섭이 놈까지 대다가는- 준섭이가 그럴 리 없제.

정 노인 그래, 끝내 싸울 참이여?

돈 술 아문! 대가리가 쪼개져도 할 판잉께! 요 지집년을 아조 쥑여 놔야 쓰겄어.

정 노인 (발끈) 곰 같은 놈 같으니!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정 노인, 화가 나 총총 하수로 퇴장. 사이. 상수에서 꼼실네와 꼼실이 들어온다. 꼼실네는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꼼실이는 손에 바구니를 들었다. 기미를 챈 돈술, 얼른 울타리에다 바싹 눈을 대고 동정을 살핀다.

- 천승세,「봇물은 터졌어라우」-

* 봇둑 :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인 보의 물을 막아 놓은 둑
* 하수(下手) : 관객석에서 보았을 때 무대의 오른쪽을 가리킴.
* 방죽 : 파거나, 둑으로 둘러막은 못
* 상수(上手) : 관객석에서 보았을 때 무대의 왼쪽을 가리킴.
* 제답(祭畓) : 수확물을 조상의 제사에 쓰기 위하여 마련한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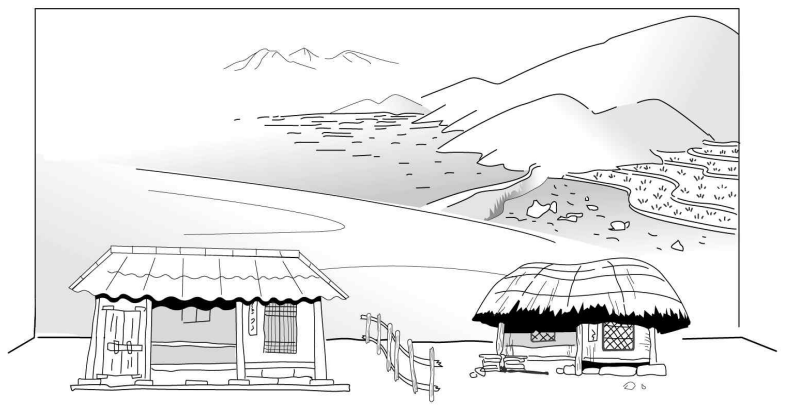
20909

13) '정 노인'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①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반전시키고 있다.
② 관객들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③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④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사건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⑤ 인물들의 행위와 전개되는 사건의 가치를 논평하고 있다.

14) <보기>는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꾸민 무대 장치이다. 이를 활용하여,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A에서 '꼼실네'는 반어적 표현으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B에서 밝혀지고 있다.
③ '꼼실네'가 퇴장하면서 '정 노인'과 '돈술'은 B로 이동하고 있다.
④ B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A에서 드러난 갈등이 약화되고 있다.
⑤ A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가 B에서는 '정 노인'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 : '정 노인'의 말에 실망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② ㉠ : '돈술'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있다.
③ ㉡ : '꼼실네'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④ ㉡ : '정 노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심리가 담겨 있다.
⑤ ㉠, ㉡ : '정 노인'의 처신을 못마땅해 하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어느 날 여인과 여인의 뒤에서 눈꽃을 그리는 어린 딸 혜자를 발견한다. 나는 주인집 할머니를 통해 여인이 결핵 말기의 정신질환자이며 허름한 판잣집에서 시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그 후 으른 아침 성에 땐 내 방 창문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혜자 어머니와 그 뒤를 서성이는 혜자를 몇 번이나 보게 된다.

여인은 "안녕하세요!"를 되뇌며 간혹 좁은 거리를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혜자는 여인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얼굴을 떨구고 있었는데 혜자의 눈길은 신통스럽게도 여인이 밟고 지나간 눈밭에만 못 박혀 있을 뿐 다른 데를 보진 않던 것이다.

나는 여인의 해들거리는 웃음과 그 웃음 뒤에 금세 글썽이는 크고 맑은 눈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혜자의 그 근심이 그려지는 눈길을 정탐하면서, ㉡ 새벽같이 새기던 눈밭 위의 내 발자국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내 크고 넓은 발자국보다는 여인의 걸음을 따르며 새겨지는 그 앙증맞은 눈꽃들이 더 좋아졌다고나 할까.

혜자는 여인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대개 눈발 흩뿌리는 하늘 속이나 아니면 솔잎 새를 깡충대는 잣새들을 올려다보며 가쁜 입김을 푸우푸우 뿜어대곤 했다.

그럴 때면 내가 물었다.

"눈꽃은 네가 새기는 거지?"

"…… 몰라요…… "

"눈꽃은 왜 새기니?"

"…… 그냥요…… "

혜자의 대답은 언제나 "몰라요" "그냥요"였다.

[A] 나는 바보스럽게 웃으며 내 나름대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 궁금증이란, 혜자는 왜 여인의 뒤만 바짝바짝 따르며 그 같은 눈꽃들을 새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눈꽃들의 한가운데서 피고 있는 노랑색 꽃술이던 거였다. 꽃잎이야 발로 새긴다고 치고 그 노랑색 물감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눈꽃의 한가운데다가 색을 들이는 것인가. 그런 짓은 혜자가 스스로 하는 짓인가 아니면 여인이 시켜서 하는 짓일까.

나는 이런 궁금증을 밝혀내 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편이었으나 혜자의 손에는 물감이 들려 있어 본 적이 없었고 그 눈꽃은 여인이 다녀간 뒤면 으레 대여섯 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것이었다. 앙증맞도록 귀여운 작은 발자국 꽃잎을 달고—

(중략)

잿빛 하늘은 낮게 우중충대며 함박눈을 날리우고 있었고 찢긴 얼음결 속의 졸졸대는 개울물 소리를 감추고 앉은 왕돌더미 위로그 함박눈들이 소복이 쌓여 가고 있었다.

나는 왕돌 틈새의 얼음결 속으로 사그라드는 눈송이들에게 눈길을 던진 채 이슬을 털어내는 장끼처럼 부르르 몸을 떨었다.

막 후련한 소변을 보고난 참이었다.

나의 눈길이 눈발 속에 갇힌 개울 끝쯤의 혜자네 판잣집께를 내려다보며 허망하게 떠 있었을 때, 마침 혜자가 그 눈발 속을 질러 깡충깡충 뛰어오고 있었다.

혜자는 내 앞에 이르러 잠시 하늘 속을 올려다봤다. 그러고 나서 ㉢내 발치 밑의 눈밭 위에다 눈길을 떨궜다.

"어디 아팠니?"

"…… "

"㉣사흘 동안 꼼짝 않고 뭘 했니?"

혜자는 나의 말에는 대꾸도 않고 여전히 내 발치 밑에다만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혜자는 뭔가 한참 골똘하게 생각하는 눈치더니 이내 나의 오줌발이 뚫어 놓은 노랑색 구멍에서부터 앙증맞도록 작고 귀여운 고무신 자국을 내는 거였다. 그리고 나선 그 첫 번째 고무신 자국에서부터 차례로 결이 영근 꽃잎을 새겨 가고 있었다.

혜자는 다소 맥이 빠진 듯한,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더 측은해 뵈는 그런 얼굴로. 전자시계의 초침처럼 천천히 맴돌이를 하며 정성껏 꽃잎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혜자의 발끝에서 피어나고 있는 노랑색 꽃술의 눈꽃이 마지막 꽃잎을 채웠을 때였다. 나는 혜자의 그런 모습을 예사스럽게 보아 넘기다 말고 문득 모가지께에다 차디찬 소름을 얹었다.

"……무슨 꽃이지?"

"몰라요!"

나는 혜자의 작은 고무신이 찍어대는, 그 애의 작은 고무신 코에서부터 펴나고 있는 이름 모를 꽃잎들을 보면서부터 한 가지 섬뜩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던 것이었다. 그 기억이 미처 여물기도 전에 혜자가 낮게 말했던 것이다.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요, 지금 막 죽었대요!"

"…… ?"

나는 혜자의 어깻죽지를 와락 싸안았다. 그리고 ㉤눈발 속으로먼 혜자네 집을 허망하게 바라다 볼 뿐이었다.

혜자가 얼굴을 들어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한동안 그러고 있던 혜자가 나의 팔아름을 빠져나가며 시무룩해진 얼굴로 또록또록 말을 이었다.

[B] "나 인제 심심하겠다아…… 엄마 대신 인제 아저씨가 오줌 싸 줘요. 내가 꽃 만들어줄게요. ……우리 엄마는요, 쪼금만 걸어두요, 힘이 없어서 오줌을 막 싼대요. …… 그래서 할머니가요, 날 보고요, 엄마가 아저씨 집에 갈 때는 꼭 따라다니면서요, 엄마가 오줌 누고 나면 표 안 나게요, 눈꽃을 만들랬어요. ……인제 아저씨가 오줌 싸줘요, 네에? "

"…… "

"진짜예요. 내가 눈꽃 만들어 줄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나봐, 피—"

혜자는 몇 번 내 얼굴을 흘끔거리더니 이내 바지 주머니에다 두 손을 찔렀다. 그러고 나서 놀이터에 놀러가는 아이처럼 흔연스럽게 깡충대며 집을 향해 갔다.

내 눈 안으로 드는 것들은, 내 사글셋방 쪽에서부터 개울까지 나란히 패인 내 긴 발자국들과 잣새들의 푸득거림에 흩날리는 눈가루, 그리고 그 잣새들을 날려 보내고 난 영근 솔잎들의 하들하들 떨어대는 연한 미동들뿐이었다.

- 천승세, 「혜자의 눈꽃」-

21103

16)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품 속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여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공간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혜자의 관심이 엄마가 지나간 눈밭에 있음을 의미한다.
② ㉡ : 내 관심이 혜자가 그린 눈꽃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③ ㉢ :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혜자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낸다.
④ ㉣ : 혜자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⑤ ㉤ : 혜자 엄마의 죽음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1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는 서로 대립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② [A]와 [B] 모두 추측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③ [A]는 사실적 행동을, [B]는 신비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④ [B]는 [A]에서 생겨난 의문이 풀리는 계기가 된다.
⑤ [B]는 [A]에 비해 상황이 급박하여 긴장감이 높아진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혜자라는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그리는 눈꽃을 통해 생의 비극과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나'는 그저 어린아이가 그리는 눈꽃을 아름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흰 눈 위에서 빛나던 노란색 꽃술은 병든 여인이 걸을 때마다 힘에 부쳐 내지른 오줌이며, 여인의 처절한 고통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오줌에 그린 혜자의 눈꽃은 여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할머니가 시켜서 그린 것이다. 여인의 고통은 이렇게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게 되며 그 여인의 고뇌는 꽃으로만 표현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신질환자인 여인이 죽음 앞에서도 이성(異性)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행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

① 눈꽃의 노란 꽃술에서 혜자 엄마가 지닌 삶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② 혜자 엄마가 나를 자주 찾아오는 것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③ 눈꽃을 그리는 혜자의 행동을 통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④ 혜자에게 눈꽃을 그리게 한 것은 며느리를 배려하는 할머니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⑤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을마나 올렸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제?
구포댁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응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려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믄 소리여?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믄 소리여? 엉?
연철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믓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믓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 엉?
연철 (처절하게) 빚에 싹 잽혔지라우! 그것도 빚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믄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댁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건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부서 떼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한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에잇! 쯧쯧!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암!
임제순 곰치!
곰치 (넋 빼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겄네! 묶겄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펄쩍 뛰며) 웠따! 믄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몇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여!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빚 갚지랍녀!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씨요! 제발!
임제순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먼!

-천승세, 「만선」-

30811

20)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1)<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연철은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빼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2)연출가가<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①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②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③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④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⑤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1) 5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이 국내 경기 및 국제 무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입장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관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관세 정책에 대한 학설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1
[출제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재화의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6문단에서 밀가루의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1문단과 7문단에서 관세가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7문단에서 관세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론한다.
5문단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데,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관세 부과 전에 비해서 작아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은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4)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다.
제시된 그래프는 P국의 바나나 국내 수요 및 국내 공급, 관세 부과 전 바나나의 가격과 관세 부과 후 바나나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4문단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의 국내 수요량인 25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인 50톤을 뺀 200톤이 된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의 국내 수요량 20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 100톤을 뺀 100톤이 된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100톤이 줄어들게 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 수요량 25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 50톤을 뺀 200톤이 된다. ③ 관세를 부과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가격이 톤당 500만 원이고, 관세를 부과한 후 P국의 바나나 국내 가격이 톤당 7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P국에서 부과한 관세는 톤당 2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④ 관세를 부과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공급량은 50톤이고 관세를 부과한 후 P국의 바나나 국내 공급량은 100톤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P국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5) 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보호무역 정책에 해당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 정책은 모두 국내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므로 관세는 수입 할당제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수입 할당제는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1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와 수입 할당제 모두 보호무역 정책임을 알 수 있다. 7문단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서 수입 할당제가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6) 5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휴대전화와 놀이 공원의 예를 들어 소비자 잉여와 이부가격제를 설명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친숙한 사례를 들어 어려운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7) 2
[출제의도]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놀이 공원이나 휴대전화 요금제 등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부가격제는 이윤 추구를 최대화하려는 기업의 가격 제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휴대전화는 기본료 이외에 별도로 개별 상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원체계를 갖는다. ⑤의 경우 즉석 사진기는 사진기의 가격 외에 즉석 필름을 또 사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원체계를 갖는 가격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4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부가격제에서 놀이 공원의 입장료는 일종의 기본료에 해당한다. 곧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5
[출제의도] 극을 읽고 감상 방안 마련하기
'만선'은 사실주의 극으로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희곡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극중 사건에 관객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물이 자신의 대사를 이용하여 관객을 극중 사건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① 사건을 전개하는 핵심 소재는 고기와 배이다. ②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어촌이다. ③ 무대 밖의 사건은 곰치가 고기를 잡는 것 등인데, 이는 인물의 대사로 알 수 있다. ④ 사투리는 극의 사실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11) 3
[출제의도] 극을 읽고 갈등 양상 파악하기
[C]는 곰치의 윽박에 가난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구포댁이 현재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자신의 갈등을 대사로 표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구포댁은 부서떼를 잡지 못한 탓을 곰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① [A]는 슬슬이에 대한 연정이 있는 연철이 범쇠가 슬슬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말에 '살기 찬 음성'으로 자신의 갈등을 표출하는 부분이다. ④ [D]는 '뭍'에서 살자는 구포댁과 '바다'에서 살자는 곰치 간의 갈등이다. 이 두 공간은 삶에 대한 두 사람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E]는 '삼대'가 '바다'에 모두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놓지 않겠다는 곰치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구포댁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12) 2
[출제의도] 지시문을 바탕으로 작품을 상상하며 읽기
㉡은 곰치가 자신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지시문이다. 곰치가 범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① ㉠은 범쇠가 '슬슬이를 예편네'로 삼고 싶다는 구포댁의 말에 곰치가 깜짝 놀람을 보여주는 지시문이다. ④ ㉣에서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 없다'는 구포댁이 생각을 깊게 하는 모습을, '곰치의 팔을 붙드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지시문이다.

13) 3
[출제의도] 인물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 노인은 봇둑 때문에 꼼실네와 돈술이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술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14) 4
[출제의도] 무대 상황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A는 꼼실네의 집으로, 꼼실네와 돈술이 갈등하는 사이에 정 노인

이 등장하여 중재를 시도하기 시작하는 공간이다. B는 돈술의 집으로, 꼼실네가 퇴장한 후에 정 노인이 돈술을 설득하는 공간이다. A에서 B로 이동한 후에도 돈술이 정 노인의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갈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꼼실네는 돈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속마음과는 달리 절대로 봇둑을 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빨리 봇둑을 트고 싶다는, 즉 돈술과 빨리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심리가 반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② A에서는 봇둑 때문에 꼼실네와 돈술이 갈등하고 있고, B에서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정 노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⑤ B에서정 노인은 A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준섭의 말을 제시하며 돈술을 설득하고 있다.

15) 4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에 담겨 있는 심리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꼼실네의 인물 됨됨이에 대한 정 노인의 평가를 인정하는 돈술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만, 정 노인이 한 질문의 궁극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답 ④

16) 1

[해설]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혜자의 눈꽃'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관심을 가지고 '혜자'가 그린 눈꽃을 살피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리고 '눈발 흩뿌리는 하늘 속이나 아니면 솔잎 새를 깡충대는 잣새들', '잿빛 하늘은 낮게 우중충대며 함박눈을 날리우고 ~ 소복이 쌓여 가고 있었다.', '잣새들의 푸득거림에 흩날리는 눈가루' 등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을 잘 활용하여 작품 속의 상황을 형상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설이다. 정답은 ①

17) 3

[해설]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혜자의 행동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혜자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내가 눈밭에 소변을 본 행동과 관련이 있다. 혜자는 내가 본 소변에다 눈꽃을 그리기 위해 눈길을 떨군 것이라 할 수 있다. 뒷부분 내용 중에 '나의 오줌발이 뚫어 놓은 노랑색 구멍에서부터 앙증맞도록 작고 귀여운 고무신 자국을 내는 거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③

18) 4

[해설]

[출제의도] 특정한 부분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서술자는 혜자가 그리는 눈꽃의 노란 꽃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고 이리 저리 생각을 하고 살펴보지만 풀지 못한다. 이 궁금증은 [B]에서 혜자의 말을 통해 의문이 풀린다. 정답은 ④

19) 5

[해설]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단락에서는 북미점자위원회의 점자 정의를, (나)단락에서는 '브라유'의 6점식 점자의 발명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다) 단락에서는 점자판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점자판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라)단락에서는 한국 점자가 점을 이용하는 별도의 체계라는 특징을, (마) 단락에 서는 한글 점자의 첫소리를 점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③

20) 3

[해설]

사실적 사고(작품의 특징 파악)

본문은 고기를 잡았어도 모두 빚으로 뺏겨버린 연철과 이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삶의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맥이 빠진 연철이나 연철이의 상황을 알고 놀라는 인물들의 반응들은 모두 간결하게 처리되어 장면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언어유희'가 사용된 부분은 없다.

[오답피하기]

① 풀이 죽은 연철이나 연철이가 빚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놀람의 반응은 모두 간결한 대사로 처리되어 있어 속도감을 준다. ② 인물들은 모두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독자들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④ 그물, 부서 떼, 배 등을 통해 인물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접하고 있는 공간이 바닷가임을 알 수 있다. ⑤ 지시문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 편으로, 이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준다.

21) 5

[해설]

추론적 사고(인물의 역할 이해)

장면 속에서 연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유형이다. 장면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보기>에 제시된 연철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철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짚어가면서<보기>의 ⓐ ~ ⓔ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연철은 임제순이 나타나 '배를 묶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 성삼, 도삼과 함께 "배를 묶다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① 연철은 잡은 고기를 처분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게 된다. ② 연철의 첫 대사 "놀려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는 기대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다. ③ 연철은 '다 뺏겼다', '빚에 잡혔다', '그러고도 이 만원의 빚이 남았다' 등의 정보를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연철은 '쉬잇'하는 소리로 사립문쪽에 임제순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22) 3

[해설]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 파악)

<보기>의 설명을 통해 제시된 ㉠ ~ ㉤에 나타난 배우의 움직임을 접촉과 회피의 욕망으로 분류한 후, 각 움직임에 들어 있는 의도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다. ㉢은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곰치가 연철에게 다가가며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연철이 하는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연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② 연철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착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곰치의 불안하고 애절한 마음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행동이다. ⑤ 곰치의 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1부 개념학습 2.독서의 방법-감상적 읽기

인문: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미의 실재성, 아리스토텔레스, 질료 형상론, 가능태, 현실태, 미의 의미 내용,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림을 볼 때 당연히 "무엇을 그린 것인가?"라고 묻게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 따르면, '그리다'라는 동사 자체가 이미 그려지는 대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리는 그림을 현실 혹은 허구 속의 대상과 동일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만으로도 '재인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로의 <회화>와 같은 작품에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 즉 식별 가능한 대상이 빠져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나) '대상성의 파괴'로 지칭되는 이러한 예술 행위는 형태와 색채의 해방을 가져온다. 이제 형태와 색채는 대상을 재현할 의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다. 대상성에서 해방되어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배열이 이루어질수록 회화는 점점 더 음악을 닮아간다. 왜냐하면, 음악 역시 전혀 현실을 묘사하지 않는 음표들의 자유로운 배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저귀는 기계>와 같은 클레의 작품은 음악성을 띠고 있어, 섬세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서 미묘한 음조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시인 릴케는 어느 편지에서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클레의 그림들이 음악을 옮겨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 추상화가인 칸딘스키는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그의 저서에서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은 환희와 풍요의 관념을 일깨우고 표상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들라크루아의 견해, 회화는 이른바 통주저음(通奏低音)을 가져야 한다는 괴테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음악과 회화는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칸딘스키에 따르면 회화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상적 의미로 성장하여 순수한 회화적 구성에 도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구성을 위해 색채와 형태라는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칸딘스키는 특히 점, 선, 면을 회화의 세 가지 요소로 보았다.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점, 선, 면, 체를 얘기한 바 있었다. 칸딘스키가 '체'를 제외한 사실은 그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점, 선, 면이 합하여 이루어진 형태가 구체적 대상을 재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대상을 재현하려 했던 고전적 회화는 재현 대상을 가리키는 일종의 '기호'였지만 재현을 포기한 현대 미술은 더 이상 그 무언가의 '기호'이기를 거부한다. 기호의 성격을 잃은 작품이 논리적으로 일상적 사물과 구별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사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존재하며, 여기서 현대 예술의 오브제화가 시작된다. ㉠ '오브제'란 예술에 일상적 사물을 그대로 끌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술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되어,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구별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마) 현대 미술은 그림 밖의 어떤 사물을 지시하지 않는다. 지시하는 게 있다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여기서 의미 정보에서 [미적 정보]로의 전환이 시작된다. 미술 작품의 정보 구조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미술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이 '의미 정보'에 해당한다면 색과 형태라는 형식 요소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은 '미적 정보'에 해당한다. 고전 회화에서는 의미 정보를 중시하는 데 반해, 현대 회화에서는 미적 정보를 중시한다. 현대 미술 작품을 보고 "저게 뭘 그린 거야?"라고 물으면 실례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509

1) 위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자 할 때, 그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대 회화가 지닌 특징 - 구체적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② 현대 미술의 동향 - 음악이 그림에 미친 영향, 헤아릴 수 없어
③ 현대 미술의 철학적 의미 - 가상현실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
④ 현대 미술의 모든 것 - 새로운 실험 정신, 아직 더 검증받아야
⑤ 현대 미술의 현주소 - 추상 미술보다 오히려 진일보한 양상 보여

2)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단락별로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 : 일상적 경험과 화제를 결부지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싶어.
② (나) :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시와 인용의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군.
③ (다) : 특정 관점이 시사하는 바가 드러나도록 서술하고 싶어.
④ (라) :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해야겠어.
⑤ (마) : 대조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화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겠어.

3)위 글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타당한 것은?

① 모든 현대 회화 작품이 미적 정보를 중시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② 예술적 속성이 서로 다른 회화와 음악으로부터 유사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③ 엄밀히 말해 현대 미술과 고전 미술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양자를 구분한 것은 어색하지 않을까?
④ 미술 작품 감상자의 측면을 도외시한 채 창작자의 측면만 중시한 것은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아닐까?
⑤ 일부 현대 화가들은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도 없었겠지만 기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까?

4)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라우션버그는 ‘침대’라는 작품에서 침대를 그리는 대신, 실제 침대에 페인트칠을 해서 벽에 걸어놓았다.

② 드 쿠닝은 그의 작품 ‘회화’에서 채 마르지 않은 물감이 흘러내리도록 하여 표현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③ 에드워드 하퍼는 ‘이른 일요일 아침’이라는 작품에서 미국 중서부 어느 지방 도시의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 아무도 없는 거리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④ 잭슨 폴록은 커다란 화폭을 바닥에 놓고 그 주변이나 위를 걸어 다니면서 물감을 뿌리고, 던지고 튕겨 대는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 14번’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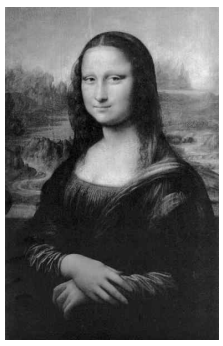
⑤ 마그리트는 그의 작품 ‘우아함의 상태’에서 타고 있는 담배 위에 자전거가 놓여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물을 붙여 놓는 표현적 효과를 거두었다.

5) 미적 정보 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기1>과 같은 자료를 접하였다. 위 글과 <보기1>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2>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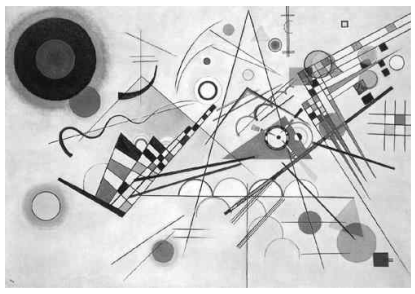
< 보기1 >

샤논은 어떤 위치의 정보가 다른 위치의 정보에 대해 갖고 있는 예측의 불확실성 정도를 ‘엔트로피’로 표현했다. 이 때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 역시 증가한다고 했다. 몰이나 메이어 등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미술의 영역에 적용하여 미적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미적 정보란 미술 작품의 구성 요소들(색이나 형태 등)이 갖고 있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일컫는 개념이다. 그리고 미적 정보의 복잡성이란 ‘색채나 형태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난 정도’를 가리킨다.

< 보기2 >



[그림1]



[그림2]

① [그림2]는 [그림1]보다 ‘엔트로피’가 높다고 볼 수 있어.

② [그림2]에는 회화의 음악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아.

③ [그림2]는 [그림1]보다 미적 정보가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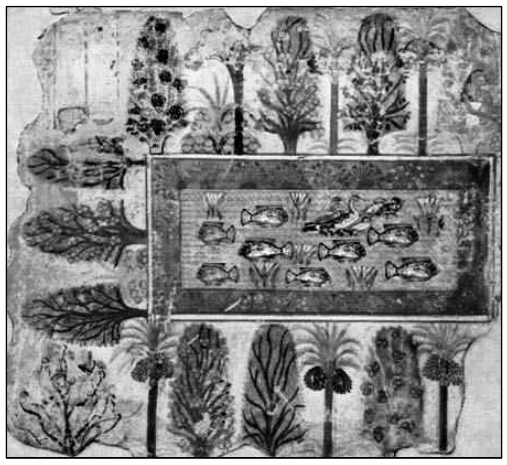
④ [그림1]은 [그림2]와는 달리 기호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

⑤ [그림1]을 그린 작가는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집트 신왕국의 벽화'는 그리스 예술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집트의 벽화나 회화에 그려진 인물은 대개 머리는 옆을 향하고, 상체는 앞을 향하며, 다시 발은 옆을 향한다. 이런 특이한 묘사 방식에 학자들은 '정면성의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 원리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물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묘사하여, 되도록 사물의 형태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인간의 얼굴이 옆에서 볼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면 연못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물고기는 누워 있을 때 그 형태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집트 신왕국의 벽화>

이렇게 볼 때 이집트인들의 관심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사물의 본질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그리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겐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인물의 동작이나 자세는 별 의미가 없었고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예술은 하나의 시각적 추상인 셈이다. 추상적인 그림에서의 인물은 [A]구체적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으로 나타난다. 하셉수트 여왕의 탄생을 그린 이집트의 벽화는 갓 태어난 여왕을 사내아이로 묘사하고 있다. 성별 따위는 제왕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라는 개념이 우리집 강아지와 이웃집 도사견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개는 죽어도 개의 '개념'은 결코 죽지 않듯이 이집트의 인물상은 결코 죽을 것 같지 않고, 삶과 죽음을 넘어선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는 듯이 보인다.

이집트인들은 왜 이런 묘사 방식을 택했을까? 보링거의 설명은 이렇다. 그리스처럼 축복받은 땅에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행복한 범신론적 친화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감정 이입 충동'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 예술처럼 유기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양식이 발달한다. 하지만 이집트처럼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에선 광막한 외부 세계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내적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때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추상 충동'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양식이 발달한다.

이집트인들이 추상적 양식을 발달시킨 이유가 꼭 환경의 소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영혼이 부활한다고 믿었고 영혼이 부활하려면 그것이 깃들어 있을 육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몸을 미이라로 보존하려 했던 것이 [B]다. 하지만 미이라는 파손되기 쉬웠기 때문에 이를 조상(彫像)이나 회화로 대체했다. 이때 조각이나 회화 속에 죽은 자의 신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 정면성의 원리라는 묘사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 팔이 몸통에 가려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외팔이로 살아야 할 테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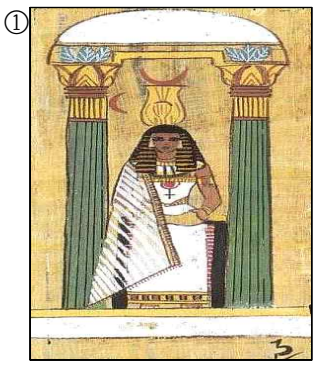
30704

6) 위 글의 '이집트 벽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사물의 묘사 방식을 엿볼 수 있다.
②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 폭의 그림에 모두 담으려고 했다.
③ 이집트의 자연 환경과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드러나 있다.
④ 대상들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예술을 불안감의 극복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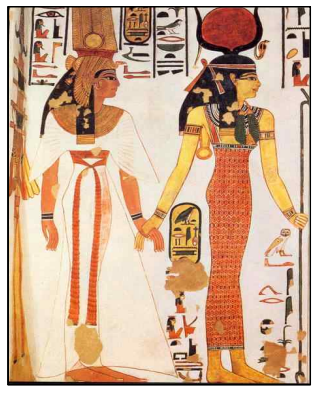
7)[A]에 부합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①



②

③



④

⑤

8) [B]를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집트인들이 회화나 조각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 ] 이었다.

①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성
② 인간다움이 아니라 신성성
③ 조화로움이 아니라 불변성
④ 자유로움이 아니라 법칙성
⑤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파격성

연경당에서 -최순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뒷벽 중앙에 새긴 십일면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

미와 육체미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판은 그만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 그리며 드

리운 오른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 병을 치키어 쥔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종교 예술품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

미를 영절스럽게도 * 나타낼 수 있으랴? 그나 그뿐인가! 수없

이 늘인 구슬 밑에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은 서양 여자의 야회복을 생각나게 한다. 그 아른아른옷자락 밑으로 알맞게 볼록한 젖가슴, 좁은 듯하면서도 슬밋한 허리를 대어 둥그스름하게 떠오른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살아 움직인다! 그의 몸엔 분명히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지름이라도 선뜻 벽을 떠나 지그시 감은 눈을 뜨고 빙그레 웃을 듯, 고금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법열(法悅)을 자아낸 것은 드

물었다. 나는 마치 일생을 두고 ⓑ 그리고 그리던 고운 님(보살님이시여! 그릇된 말씨의 모독을 용서하사이다. 보살님이내 가슴에 붙여 주신 맑은 불길은 이런 모독쯤은 태우고야 말았습니다.)을 만난 것처럼 그 팔뚝을 만지고, 손을 쓰다듬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어린 듯 취한 듯, 언제까지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나)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 들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해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목조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오래 된 건물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

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

축이 지니는 참 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미덕 이 어떠하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 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싶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얕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 주고 부처님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 리의 머리 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대 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 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 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案 山) * 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 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 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

* 영절스럽다 : 아주 그럴 듯하다

* 안산 :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30011

9)(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못 말한 것은? [2점]

① (가)는 시선이 하나의 대상으로 초점화된 데 비해, (나)는 여러 대상으로 분산되어 있다.

② (가)는 현재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③ (가)는 주관적 감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④ (가)는 대상과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 데 비해, (나)는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⑤ (가)는 대상을 동적(動的)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는 데 비해, (나)는 대상을 정적(靜的)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다.

10)(가)를 '한국미의 순례'라는 영상물로 제작하려고 한다. (가)의 내용에 더 추가된 것은?

① 옥피리를 불며 승천하는 관음보살을 환상적으로 처리해 본다.

② 고풍스러운 음악과 함께 관음상의 전신(前身)을 두루 비추게 한다.

③ 관음보살이 웃음 지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표현해 본다.

④ 화자가 관음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화자가 관음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경을 감동적인 어조로 말하게 한다.

11)다음은 '석굴암 관음상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창작을 하기 위한구상들이다. (가)에 나타난 필자의 느낌과 유사한 것은?

① 관음상은 종교적 대상이 아닐 수 없어. 엄숙함과 경건함이 잘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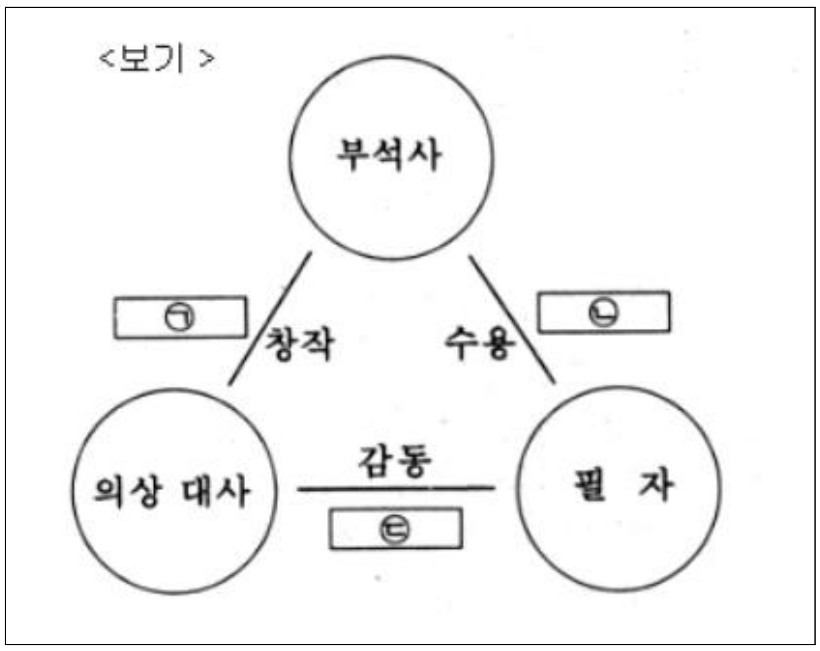
②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관음보살께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해.

③ 관음상을 만든 석공은 위대한 장인임이 분명해. 그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싶어.

④ 관음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야. 차가운 돌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는 내용을 담은 시를 쓰고 싶어.

⑤ 관음상은 선인들의 얼이 담겨 있는 고귀한 문화재이잖아. 여러 곳에 있는 관음상을 탐방하는 내용의 기행문을 쓰려고 해.

12)<보기>는 예술품의 창작과 수용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나) 의 안의 말들을 ㉠~㉢ 에 바르게 대응시킨 것은?



	㉠	㉡	㉢
①	안목과 미덕	순리의 아름다움	사무치는 고마움
②	안목과 미덕	사무치는 고마움	순리의 아름다움
③	순리의 아름다움	안목과 미덕	사무치는 고마움
④	순리의 아름다움	사무치는 고마움	안목과 미덕
⑤	사무치는 고마움	순리의 아름다움	안목과 미덕

13)(나)에서 필자가 주목한 대상을 그려 보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14)<보기>는 (가)의 ⓐ, ⓑ 와 관련한 사전 풀이이다. 설명이 그른 것은? [2점]

<보 기>

그리다[1]동(타) (어떤 대상을) 애틋한 감정으로 간절히 바라거나 생각하다. ¶고국을 ~.

그:리다[2]동(타) ① (연필·붓 등으로 모습이나 형태를)이루어 나타내다. ¶풍경을 ~. ② 글 따위로 나타내다. ¶인간의 고뇌를 그린 소설. ③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떠올리다. ¶미래의내 모습을 ~. ④ (물체의 형태나 움직임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내다. ¶손가락으로 V자를 ~.

① 그리다[1]와 그:리다[2]는 서로 다른 낱말이다.

② 그:리다[2]의 첫 음절 '그'는 길게 발음한다.

③ 그리다[1]와 그:리다[2]는 모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④ ⓐ 는 그:리다[2]의 ④ 에 해당하며, ⓑ 는 그리다[1]에 해당한다.

⑤ "마음 속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 보았다."라고 할 때의 '그려' 는 그리다[1]의 뜻이다.

1) 1
[출제의도] 글의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현대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형태와 색채의 해방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마지막 단락에서 의미 정보와 미적 정보의 개념을 끌어들여, 현대 회화는 형식 요소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미적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4
[출제의도] 글쓴이의 글쓰기 전략을 올바로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가)에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험과 관련지어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실제의 작품을 예로 들고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칸딘스키의 견해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의미 정보'와 '미적 정보'라는 참신한 개념을 끌어들여 글을 마무리짓고 있다. (라)에서 글쓴이가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1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타당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라)와 (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현대 회화 전체가 대상의 재현을 포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현대 회화가 대상의 재현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글쓴이의 이러한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

4) 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와 연관 지어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다음의 문장을 보면, '예술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되어,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구별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라는 서술이 나타나는데, 이로 미루어 오브제 예술은 일상적 사물을 작품 속에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①에서도 '침대'라는 일상적 사물은 그대로 작품 속에 사용되고 있다.

5) 5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나타난 세부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1]에는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만, [그림2]에는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 [그림1]은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중시한 반면, [그림2]는 색과 형태라는 형식 요소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중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1>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미적 정보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되며, 미적 정보의 복잡성이란 곧 '형태나 색채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서 해방된 정도'를 가리킨다. [그림2]는 미적 정보를 중시한 것으로서, 엔트로피가 높은 편에 속한다. ② (나)에서 '대상성에서 해방되어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배열이 이루어질수록 회화는 음악을 닮아간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대상성과는 거리가 먼 [그림2]는 음악성이 강하다. ④ [그림2]와 같이 '재현을 포기한 그림'은 기호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6) 2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집트 예술의 특징은 대상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왕국의 벽화에서 보듯이 나무를 측면으로 표현한다든가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정면에서 본 것처럼 그리는 것도 모두 이집트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추상 충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이집트의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영혼도 온전하다는 내세관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회화적 특징은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보이는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아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 눈에 보이는 장면을 한 폭에 담았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7) 1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A]부분에서 이집트 벽화나 회화에서는 인간의 특성은 얼굴은 옆면을 향하고, 상체는 정면을 향하며 발은 옆을 향할 때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한다. 따라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A]에서 주어진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8) 1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생략된 정보를 문맥의 흐름에 의하여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의 영원한 삶을 중시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형태를 중요시했다.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두 팔, 두 다리가 성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한 팔이 몸통에 가려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외팔이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세관은 예술에서 도 반영되어 아름다움보다는 대상의 완전성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9) 2

10) 1

11) 4

12) 1

13) 3

14) 5

인문: 아리스토텔레스, 공간, 데카르트, 연장, 뉴턴. 절대 공간, 절대 시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화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여백의 미를 빼놓을 수 없다. 여백의 미를 살리지 않은 그림은 동양화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백은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여백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화면 한쪽을 넓게 비워 놓는 큰 여백이 있는가 하면, 화면의 형체 사이사이에 좁게 비워 놓는 작은 여백도 있다. 또한 여백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빈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이나 하늘, 안개나 구름과 같은 어떤 실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빽빽함에 대비되는 성김으로, 드러남에 대비되는 감춤으로 여백 표현을 대신하기도 한다.

여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의 '관폭도(觀瀑圖)'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을 보면 선비들이 모여 있는 곳과 산(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석구석이 비어 있다. 심지어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조차도 형체를 그리는 대신에 여백으로 표현하였다. 이렇듯 화면의 여러 부분을 비워 둠으로써 여백은 화면에 여유와 편안함을 주고 이로 인해 감상자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동양화 속의 일부 경물들이 세밀하고 빽빽하게 그려져 있더라도 그리 복잡하거나 산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여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수화에서의 여백은 세밀하게 표현된 경물들을 산만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어 화면 전체에 안정감을 제공한다.

여백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자세히 그린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표현해 주고 암시해 준다. 그림에서 선비들이 바라보는 곳에 주목해 보자. 폭포 건너편에 있는 선비들은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작가는 선비들이 바라보는 대상을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선비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그림 속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림 바깥에 저 멀리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작품의 오른쪽에 봉우리를 그렸다면 선비들이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단정 짓게 되지만, 여백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나무, 집, 바위 등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 여백은 일종의 적극적 표현이다.

여백은 화면에 여유와 안정감을 주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백이 지닌 이러한 효과들로 동양화의 감상자는 운치와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여백은 다 그리고 난 나머지로서의 여백이 아니라, 저마다 역할이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동양화의 멋은 여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여백은 동양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다.

11003

1)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양화의 여백의 특징과 역할
② 여백이 지닌 의미가 변해온 과정
③ 동양화에서 여백을 사용하게 된 기원
④ 동양화에서 여백이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
⑤ 여백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

2)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각은 다른 미술 갈래보다 공간을 중시한다. 조각에서 공간은 작품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조각가들은 형상 사이사이의 공간까지 단순히 '빈 곳'이 아니라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해서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위쪽의 작품을 보면 조각가가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표현하지 않고 네거티브 볼륨을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아 작품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관폭도'와 '누워 있는 여인'은 모두 '빽빽함과 성김'의 대비를 통해 형상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군.
② '관폭도'와 '누워 있는 여인'은 모두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군.
③ '관폭도'와 '누워 있는 여인'은 모두 작품 감상 과정에서 빈 공간을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주목해야 하는군.
④ '관폭도'와 달리, '누워 있는 여인'은 대상과 빈 공간의 조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군.
⑤ '관폭도'와 달리, '누워 있는 여인'은 인위적인 조작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군.

3) 글쓴이가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경물에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② 작품 속 경물들을 산만하지 않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③ 화면에 표현된 것 이외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④ 경물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작가의 예술적 능력을 보여 주기 때문에
⑤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강조해 주기 때문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울산 울주에는 한국 미술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암각화가 있다. 이것에는 넓고 평평한 돌 위에 상징적인 기호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동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한편 한국 조형 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금강역사상과 같은 석굴암의 부조상들이 있다. 이것들 또한 돌에 형상을 새긴 것이다. 이들의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암각화에는 선조와 요조가 사용되었다. 선조는 선으로만 새긴 것을 말하며, 요조는 형태의 내부를 표면보다 약간 낮게 쪼아내어 형태의 윤곽선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조는 쪼아 낸 면적만 넓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선조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라고 볼 수 있다.

<금강역사상>

한편 조각과 회화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것으로 부조가 있다. 부조는 벽면 같은 곳에 부착된 형태로 도드라지게 반입체를 만드는 것이다. 평면에 밀착된 부분과 평면으로부터 솟아오른 부분 사이에 생기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그늘은 삼차원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실재감을 주게 된다. 빛에 따라 질감이 충만한 부분과 빈 부분이 드러나서 상대적인 밀도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조는 평면 위에 입체로 대상을 표현하므로 중량감을 수반하게 되고 공간과 관련을 맺는다. 이것이 부조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의 측면이다.

이러한 부조의 특성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평면에 가장 입체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석굴암 입구 좌우에 있는 금강역사상이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자세로 금방이라도 벽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착각을 준다. 팔이 비틀리면서 평행하는 사선의 팽팽한 근육은 힘차고, 손가락 끝은 오므리며 온 힘이 한곳에 응결된 왼손의 손등에 솟은, 방향과 높낮이를 달리하는 다섯 갈래 뼈의 강인함은 실로 눈부시다.

부조는 신전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스 신전과 이집트 피라미드 등에서는 부조로 벽면을 장식하여 신비스러운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차원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삼차원적 효과를 극대화한 부조는 제작 환경과 제작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독특한 조형 미술의 양식이다.

4)윗글의 서술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ㄴ. 묘사를 통해 대상의 면모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ㄷ.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ㄹ.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선조는 입체감을 강조한 조형 양식이다.
② 요조는 표면보다 낮게 표현한다.
③ 요조는 표현 방법 면에서 회화에 가깝다.
④ 부조는 공간과 관련을 맺어 조각의 성격을 띤다.
⑤ 부조는 종교 건축물의 장식에 사용되었다.

6)<보기>와 '금강역사상'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중 일부

① 금강역사상이 <보기>보다 빛에 비춰 봤을 때 실재감이 더 크겠어.
② 금강역사상보다 <보기>가 회화의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겠어.
③ 금강역사상은 <보기>와 달리 형상을 평면보다 돌출시켜 역동성을 표현하려 했군.
④ 금강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이차원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겠군.
⑤ 금강역사상과 <보기>는 모두 배경이 되는 면에 붙여서 작품을 제작하였겠군.

곡예사 -황순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낙오한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병 세 사람은 무턱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 부상당한 주 대위를 교대로 업고 오던 현 중위는 떠나지만 김 일병은 주 대위를 업고 오다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몸 가까이 느끼게 된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 일등병은 주 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릴 좀 듣게."

주 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폿소릴세."

김 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 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폽니까?"

"아군의 포야. 백오십오 밀리의……."

이 주 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 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사십 리는 실히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 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폿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루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때, 바로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폿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 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거두 오늘 밤뿐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 주 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다.

김 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루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리고는, "앞으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젯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A]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루!"

"그대루 똑바루!"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뵈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 황순원,「너와 나만의 시간」-

30704

7) 위 글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 묘사로 기술되었다.
ㄴ. 서사 전개 과정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
ㄷ.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
ㄹ.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8) 개 짖는 소리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품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②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③ 인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④ 사건이 전개되는 자연 환경의 특성을 제시한다.
⑤ 인물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9) ㉠에 내포된 의미를 적절히 표현한 것은?
① 머잖아 전쟁이 끝날 것이네.
② 자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네.
③ 우리를 찾는 아군이 곧 도착할 것이네.
④ 조금만 더 내려 가면 마을이 있을 것이네.
⑤ 자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하겠네.

10) [A]의 상황에서 김일병이 <보기>의 장면을 떠올렸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개천 둑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둑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① 조급하게 서둘렀던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② 현실 극복은 서로가 힘을 합해야 가능함을 느꼈기 때문에
③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④ 부조리한 현실에도 꿋꿋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에
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뉘우쳤기 때문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현세는 셋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인 두갑이는 어떤 집의 주인이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서, 현세가 그 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준다면 그 대가로 방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한다. 고민 끝에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척하여 결국 사람들을 내쫓고, 구문*을 지불하기 위해 집주름* 영감을 만난다.

"선생님, 이러지 마시구 좀 더 생각해 주셔야죠."

하는 것이었다.

"그만하믄 되디 않습네까?"

[A] "선생님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 집이야 그저 읃으셨죠. 어제두 요 뒤에 집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일만 오천 원씩에 팔렸죠. 그런 데 비기면 그저지 뭡니까. 거 다 선생님 복이시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싸게 사셨다는 것두 생각허셔야죠. 그리구 전에두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두 일이 성사만 되게 허느라구 저편에서는 일 전 한 푼 못 받았습죠. 그뿐인가요, 전재민*으루 오신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룩 허느라구 **셋방 사람들** 방 내는 덴 을마나 또 속을 썩였다구요. 선생님두 그날 같이 가셨었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두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었는지 모르죠. 증말 이번에 학질 뗐습니다, 학질 뗐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루 셋방 사람들 내보내지 못헙니다. 그 다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룩 허기 위해 헌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생각해 주셔야 헙죠."

셋방 사람들 내보내는 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의 구문은 물론 셋방 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 준 삯까지 모두 두갑이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찌됐건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우린 전재민이 아니웨까?**"

"그런 말씀을…… 어디 전재민이구 전재민 아니구가 있나요. 선생님 같은 이헌테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수다한 식솔에, 식구가 자그만치 열넷이랍니다. 버는 사람이라군 이 늙은 것 혼자구 그나마 조금씩 보태든 아들 녀석은 턱 앓아눕지를 않었수. 그런데다 엊그젠 또 며늘애가 몸꺼지 풀어 놨으니, 그래 우리 성한 사람이야 어쨌건 앓는 사람 죽술이나 허구 애어미 미역국이나 끓여 먹여야 허잖겠수?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구 더 좀 생각해 주십쇼."

그러는 늙은 집주름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고 눈도 충혈이 돼 있었다.

현세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파리나 사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현세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의 내막을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세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도 경황이려니와 우선 그럴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다.

현세가 그냥 걷기 시작하니까 집주름 영감은 다급하게,

"아니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만두구 보통 구문대루 일 푼만 친대두 천 원이면 십만 원에 대한 구문밖엔 더 안 되지 않수? 어디 그래서야 되나요."

하고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세는 두갑이가 말한 찰거머리라는 말과 잡아뗄 적에는 딱 잡아떼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으나 그보다도 이제는 더 서서 말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걷기만 했다. 이 현세의 태도가 늙은 집주름에게는 또 혹시 수표를 내준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갈 것같이 보였던지 탄원하는 어조로,

"그럼 선생님 다시 잘 생각해셔서 처분해 주십쇼. 그럼 조심해 가시우."

하면서 꾸뻑꾸뻑 절을 했다.

퍽 구름이 걷힌 하늘 아래서 현세는 이제는 다리만 허청거릴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아까보다 아주 흐리어졌다. 눈을 가느스름히 뜨면 좀 낫게 보이지만 그렇게 눈을 가느스름하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자꾸 들어만 가는 눈이 절로 찌쁘득하니 감기어지며 쓰린 **눈물**이 내배는 것이었다.

(중략)

"그런데 말야, 자네에게 미안한 말 하나 하게 됐네."

한다.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저, 다른 게 아니구 말야, 집쥔이 자기네가 방을 다 써야 될 일이 생겼다누만."

현세는 종내 가슴이 철렁 무너앉을밖에 없었다.

두갑이는 바지 뒤 포켓에서 십 원짜리 한 묶음을 꺼내 현세 앞에 놓으며,

"그래 미안하다구 하믄서 이걸 보내데. 정말 안됐네. 좋은 일 하려다 되레 자네한텐 원망 듣게 됐어."

그리고는 살피듯이 현세를 한 번 바라다보고 나서,

[B] "글쎄 첨엔 단돈 오백 원을 내놓지 않겠어? 그래 내 고함을 질렀지. 그 사람이 돈이나 오백 원 바래구 그런 숭한 광대놀음 할 사람인 줄 아느냐구. 당신 눈에는 오백 원이 대단해 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전재민이라두 이런 돈 없이두 사는 사람이라구 해 줬지. 그랬더니 오백 원을 더 내놓두만. 서울깍쟁이라더니 정말……"

사뭇 분개해 하는 말투요 표정이었다.

현세는 또 이 두갑이의 분개해 하는 말투와 표정과는 달리 가슴속 한가운데서 누구에게라 없이 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느꼈다. 그것은 뱀같이 독이 오른 대가리였다.

"하기야 요즘 아무리 돈 가치가 없대두 천 원이믄 적잖은 돈이지. 그리구 말야, 자네 방 문젠 내 또 알아봄세. 발 벗구 나서믄 그까짓 방 한 칸쯤 문젠가. 내 꼭 책임지지. 아예 이번 집에 못 가게 된 거 서운하게 생각 말라구. 되레 잘되는 일인지두 몰라. 교통두 불편하구 더구나 요새 그 집쥔은 돈냥이나 버니까 뭣 부족할 것 없이 들여다 먹는데 말야, 한집에서 그걸 보구 어떻게 견디나. 내 자네 있기 좋은 방 하나 구해 주지."

현세의 악은 이제야 분명히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갑이에게 향해짐을 느꼈다. 그저 이놈의 우뚝한 코를 평안도식으로 한 대 지끈!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두갑이가 윗몸을 현세 앞으로 내밀더니 돈 묶음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한 편 끝을 몰아 쥐었다가 펄럭펄럭 놓아 주면서,

"요새 십 원짜리 2호에 가짜 돈이 많다데. 그래서 여긴 2호짜린 한 장두 받아 오지 않았지."

그러는 두갑이의 두꺼비 입에서는 또 불고기와 소주와 마늘을 먹은 뒤에 나는 냄새가 풍기어 왔다.

현세는 종내 이 두갑이의 입김에 못 견디어 도망이나 하듯이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저도 모르는 새 **돈 묶음만은 집어 쥔 채**. 두갑이의, 자기는 이 다방에만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만나자는 말을 먼 메아리처럼 등 뒤로 들으면서.

- 황순원, 「두꺼비」 -

* 구문 :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집주름 :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전재민 :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31510

11)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⑤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시대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A], [B]에는 모두 현세를 위해 행한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② [A], [B]에는 모두 자신과 현세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③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⑤ [B]와 달리 [A]에는 현세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표현되어 있다.

13)<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현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 일대를 떠돌다 해방 이후 큰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이다. 해방 후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재민들은 동포들에게조차 이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핍하고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작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①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 했던 현세의 고뇌에 찬 '눈물'을 통해 도덕이 무너진 혼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② 자신의 '악'이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일 뿐임을 깨닫는 현세에게서 당대 현실 속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전재민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③ 두갑이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돈 묶음만은 집어 쥔 채' 자리를 떠나는 현세에게서 전재민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④ '우린 전재민이 아니웨까?'라는 현세의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전재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의 '셋방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 현세에게서 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설화 속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대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 전래 동요에서는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비는 등 두꺼비를 기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꺼비 이미지를 변형하여 '두갑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① 설화의 두꺼비가 강자 앞에서 나약했던 것처럼, 윗글에서도 두갑이를 집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것으로 그려냈군.
② 설화에서 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달리, 윗글에서는 현세가 두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구성했군.
③ 설화와 전래 동요에 두꺼비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윗글에서도 독자들이 두갑이에게 희망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군.
④ 설화에서 두꺼비가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진 것과는 달리, 윗글에서 현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갑이가 이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으로 설정했군.
⑤ 전래 동요에서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기원한 것처럼, 윗글에서도 현세는 두갑이가 방을 얻어 주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현했군.

15)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주름 영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세는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있군.
② 현세는 두갑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③ 집주름 영감은 현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 애걸복걸(哀乞伏乞)하고 있군.
④ 집주름 영감의 말에 나타난 집주름 영감의 집안 상황은 가히 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⑤ 두갑이는 현세에게 자신이 나중에 방을 얻어 주겠다며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군.

1) 1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바르게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동양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여백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첫 번째 단락에서 동양화의 주요 표현 방법으로 여백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여백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 3
[출제의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을 다른 장르의 작품과 비교하여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를 통해 조각에서 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시된 헨리 무어의 작품을 통해 조각에서 빈 공간, 즉 네거티브 볼륨이 단순히 비어 있는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헨리 무어의 작품과 본문에 제시된 김홍도의 작품은 빈 공간이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 3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여백의 역할 중 두 번째, 즉 여백은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백이 적극적 표현이라는 것은 빈 공간을 둠으로써 화면에 표현된 것 이외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여백은 빈 공간을 두는 것이므로 경물에 담긴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작품 속 경물들을 산만하지 않게 정리해 주는 것은 여백의 첫 번째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4) 1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금강역사상' 등의 사례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부조의 면모를 '금강역사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5)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②와 ③은 2문단, ④는 3문단, ⑤는 5문단에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 선조로 표현된 암각화는 조각이 아니라 회화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회화는 삼차원의 입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6) 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암각화는 돌의 표면에 선조와 요조로 표현한다고 했으므로 암각화는 배경이 되는 면에 붙여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7) 3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6.25 전쟁 중 낙오된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 이 세 사람은 아군을 찾아 남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대한 희망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삶에 대한 욕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주 대위와 부상당한 주 대위를 버리지 않는 김 일등병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의지와 인간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겪는 등장인물들의 사건과 심리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8) 5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개 짖는 소리'를 통해 등장인물은 '인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즉, '개 짖는 소리'는 강인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바깥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심리가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주 대위가 들은,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그 소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생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된다.

9) 4
[인물의 심리를 통해 내포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통해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의 바로 다음에 보면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가 나오는데, '주 대위'가 받고 싶은 대상은 '개 짖는 소리'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희망임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마을에 도착하는 일이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과 ③은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 ②는 오히려 '주 대위'가 삶에 대해 포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는 삶의 희망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2
[연상되는 장면의 이유 파악하기]
[출제의도] 특정 상황에서 연상되는 장면을 떠올리는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A] 장면에서 '김 일등병'은 지친 몸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주 대위를 원망하고 있지만, 주 대위의 권총이 주는 위협 때문에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걸음을 옮겨 놓고 있다. 그러다가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기>의 '만도'와 '진수'가 서로 힘을 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떠올렸다면, '김 일등병'에게는 '주 대위'의 행동이 서로가 살 수 있게 협력하고 있는 행동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이 장면은 '김 일등병'이 '조급하게 서둘렀다'거나, '부모님'을 떠올리는 상황이 아니다. ④의 경우는 부조리한 상황과 관련이 없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11) 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현세에 초점을 맞추어 현세와 집주름 영감, 현세와 두갑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현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2) 1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집주름 영감은 [A]에서 현세가 빨리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갑이는 [B]에서 자신이 단돈 오백 원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고함을 질러 돈을 더 받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3) 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현세가 흘린 '눈물'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 전반에 대한 슬픔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세가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14) 4
[출제의도] 작가의 의도와 관련지어 감상한다.
두꺼비 설화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는 동물이지만 이 글에서 두갑이는 현세에게 약속한 방을 얻어주지 않는 부정적 인물이다. 이러한 두갑이를 통해 설화 속 두꺼비와 같은 인물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비정한 현실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15) 2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이라는 의미이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갑이가 자신을 이용했음을 깨닫는 현세의 모습에서 분노를 읽어낼 수는 있어도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기는 어렵다.

1부 개념학습 3.독서의 분야-예술

예술: 아방가르드, 예술 제도론, 예술적 지위, 예술계, 사회적 맥락,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들어서기 전에 이미 영화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사실주의와 형식주의이다. 1890년대 중반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을 매혹시켰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 그들의 실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옮겨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조르주 멜리에스는 순수한 상상의 사건인 ⓐ 기발한 이야기와 트릭 촬영을 혼합시켜 '달세계 여행'이라는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다. 이들은 각각 사실주의와 형식주의 영화의 전통적 창시자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사실주의 영화는 현실 세계에서 소재를 선택하되, ⓑ 왜곡을 최소화하여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다. 주된 관심은 형식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이다. 사실주의 영화에서 관객은 영화의 스타일을 눈치챌 수 없다. 이 계열의 감독들은 영상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을 편집하고 조작하기보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며, 극단적인 사실주의 영화는 실제 사건과 사람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를 지향하기도 한다. '영상이 지나치게 아름다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은 ㉠ 현실 세계 그대로의 사실적 재현을 가장 우위에 놓는 사실주의 영화의 ⓒ 암묵적 전제로 ⓓ 통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주의 영화에 예술적인 기교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주의 영화일수록 기교를 숨기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형식주의 영화는 스타일 면에서 화려하다. 형식주의 영화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진실의 표현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형식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의 표면을 왜곡시킴으로써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때문에 현실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사건의 이미지를 조작한다. 이런 스타일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아방가르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화 중에는 색, 선, 형태로만 표현된, 완전히 추상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실제의 영화는 완전히 사실주의 영화도 형식주의 영화도 드물다.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환상적인 재료를 사실주의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현재의 현실 세계에 근거한 재료를 형식주의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물리적인 현실 세계는 사실주의 영화이든 형식주의 영화이든 모든 영화의 소재가 된다. 이 두 영화 사조의 차이는 오히려 영화의 소재인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 조형하고 조작하는가', '스타일상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등에 달려 있다.

11111

1) 위 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② 낯선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며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③ 대상의 변화를 시대별로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권위자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핵심적 질문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2)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주의 영화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한다.
② 형식주의 영화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한다.
③ 조르주 멜리에스는 형식주의 영화를 제작했다.
④ 사실주의 영화에서 편집은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동원된다.
⑤ 형식주의 영화는 소재에 대한 주관적 표현에 관심을 갖는다.

3) <보기>의 관점에서 ㉠에 대해 보인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진이란 현실의 완벽하고 전체적인 반영이 결코 아니며, 사진의 영상은 촬영된 대상의 전체 물질적인 속성들 가운데 단지 하나 혹은 둘 정도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재현한 것일 뿐이다."

- 블라디미르 닐센(Vladimir Nilson) -

①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한다고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
② 만약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한다면 과연 영화는 현실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일까?
③ 실제 사건과 사람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현실 세계의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④ 영화의 본질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세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⑤ 영화 예술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면, 영화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수준이나 실력이 훨씬 뛰어남
② ⓑ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③ ⓒ : 자기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함
④ ⓓ : 어느 곳에나 두루 쓰임
⑤ ⓔ : 여러 재료를 이용해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기마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미(美)에 대해 정의해 왔고, 덕분에 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醜)에 관해서는 그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구인들의 눈에 험상궂고 섬뜩해 보이는 아프리카의 제의용 가면이 아프리카 주민들에게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신의 형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미와 추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는 미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추에 관해 연구한 에코는 최근 이렇게 미와 견주어 추로 분류되는 전형적 이미지를 '그 자체로의 추'와 '형식적 추'로 나누었다.

에코에 따르면, 배설물이나 부패해 가는 고기, 썩은 과일 등은 감정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그 자체로의 추'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가 거의 다 빠진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배설물을 보는 것과 같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얼굴의 불완전성, 즉 꼭 있어야 할 나머지 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추하다고 느낄 수 있다. 에코는 이런 경우를 유기적 관계에서 비례와 균형의 결여로 인해 나타나는 '형식적 추'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추함을 능숙하게 표현함으로써 훌륭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코는 이런 경우를 '추의 예술적 묘사'라고 정의하였으며, 예술가의 재능 부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형편없이 그려진 그림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추'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에코가 제시한 이 추의 구분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가와 당시 대중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때로 온전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추하게 변형해 예술성을 획득하려 하거나, 그 자체로의 추와 형식적 추를 예술적으로 재현해 '추의 예술적 묘사'를 추구했지만, 당시 대중은 그들의 작품을 그저 실력이 부족한 예술가들에 의한 '예술적 추'의 사례로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대중에게 아방가르드 작품들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추의 묘사'가 아니라, 전혀 추하지 않은 현실의 ㉡'추한 묘사'로만 여겨졌던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부르주아들이나 일부 사상가들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현대 예술의 퇴보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 다수에게 아방가르드 예술계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은 그 당시 의도적으로 형태의 해체를 추구하면서 괴기스럽고 혐오스러운 아프리카의 가면 등에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을 찾았다. 또한 다다이즘도 괴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호소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다다이즘의 대표 주자인 뒤샹은 소변기를 예술작품으로 선보이거나, 「모나리자」에 도발적으로 콧수염을 그려 넣은「L. H. O. O. Q」를 발표하는 등 뭔가 꼴사나운 것을 예술의 소재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이후 초현실주의로 이어져, 달리나 마그리트의 작품처럼 괴기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렇듯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미뿐만 아니라 추도 예술의 일부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 아방가르드 : 기성의 예술 관념과 형식을 부정한,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 20세기 초 유럽의 다다이즘,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 따위를 통틀어 이름.

21009

5)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가 다르면 미와 추의 구분도 다를 수 있다.
② 미래의 예술은 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를 예술의 표현 대상에 포함시켰다.
④ 다다이즘의 예술적 성향은 초현실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⑤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6) 위 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차이점을 부각하여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고 있다.
ㄷ. 어원의 유래를 밝혀 특정 개념의 변화 과정을 말하고 있다.
ㄹ. 낯선 개념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마르셀 뒤샹, <샘>

B

파블로 피카소,
<도라 마르의 초상화>

① A는 배설물을 연상하게 하므로 '그 자체로의 추'와 관련이 깊군.
② B에서는 비례와 균형의 결여로 인한 '형식적 추'를 느낄 수가 있군.
③ B에 대한 20세기 초 대중의 평가와 오늘날 대중의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겠군.
④ 20세기 초 부르주아들은 A보다 B가 예술적으로 더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았겠군.
⑤ A, B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감상자는 두 작품 모두 예술가가 의도한 결과라고 생각했겠군.

8)다음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 ㉡의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의 묘사	↔	㉡추한 묘사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입장		20세기 초 대중 다수의 입장	··①
미와 추의 구분은 절대적임		미와 추의 구분은 상대적임	··②
예술의 대상으로 추를 수용		예술의 대상으로 추를 거부	··③
아방가르드 작품은 예술성의 획득		아방가르드 작품은 예술성의 퇴보	··④
아방가르드 예술은 '추의 예술적 묘사'		아방가르드 예술은 '예술적 추'	··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인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달 : 그 날, 당신께서 내 앞에서 갓을 벗어 보이셨을 때 나는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하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벙어리 된 이 몸은 당신의 망극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벙어리 된 입을 놀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후 내 하늘이었습니다. ⓐ 산짐승과 더불어 살던 이 몸에게 사람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르치신 당신, 창으로 곰을 잡듯, 덫으로 이리를 잡듯, 적의 군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싸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라와 백제의 성과 장수들을 나는 취하였습니다. 싸움터의 길은 내가 짐승들을 쫓던 그 길보다 더는 험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천 배나 ⓑ 그 길이 험하였기로서니 나에게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 천한 몸에게 주어진 영광도 오직 공주를 위한 방패라 생각하고 나는 두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공주, 고구려 평양성의 인심은 무섭더이다. ⓒ 이 몸은 산에서 활을 쏘고 창으로 끼니를 얻던 그때처럼 편한 마음을 한신들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 평양성에서 나는 눈멀고 귀먹은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부마될 내력 없다고 이 몸을 비웃는 소리도 나에게는 가을날 산의 가랑잎 스치는 소리더군요. 하늘인 당신을 모신 이 몸은 아무 것도 듣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 이치가 있었을까요? 숱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 당신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온달은 나라의 부마이고 나라의 장군이라고……. 그러나 다 이 몸에게는 부질없는 말들. ⓓ 공주, 당신이 나의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그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덕이 높으신 왕자의 말씀도 내 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 그분들은 모두 다른 고구려를 섬기는 어른들인 것을 나는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몸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서 떠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고구려를 섬기는 사람들이 당신을 해칠 일이, 공주…….

공주 : 장군. (가까이 다가선다.)

온달 : (다가서다가) 안 됩니다. (손을 들어 막으며 한 발 물러선다.)

공주 : 가지 마시오. 장군.

온달 : 이윽고 새벽이 되겠으니, 죽은 자는 제 몸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요. (이때 새벽 종소리)

공주 : 장군, 장군을 해친 자가 누구입니까?

온달 : 머리에, 머리에 상처가 있는 장수, 잠든 나를 찌른 그 자를 내가 칼로 쳤소. (뒷걸음질로 물러간다.)

공주 : 장군 이름을, 그자의 이름을…….

온달 : (고개를 젓는다.) 공주, 어머니를 어머니를……. (영(靈) 사라진다.)

공주 : 아아 장군…….

[중간 줄거리] 공주는 불길한 생각에 잠겨 온달의 신변을 걱정한다. 그리고 온달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온달이 남긴 말에 대해 번민을 한다. 얼마 후 궁중 전령이 공주궁에 찾아와 온달의 죽음을 알리자, 공주는 기절한다. 공주는 온달의 시신을 평양성으로 옮기려고 전장으로 찾아가는데, 여러 명의 군병이 온달의 관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공주가 직접 온달의 관 앞에 다가가서 관을 열게 한다.

공주 : (관 앞에 꿇어 앉아, 한손으로 모서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시체를 쓰다듬는다.) 장군……. 이게 웬일입니까? (고개를 돌려 장수들을 한 사람씩 찬찬히 훑어본다. 갑자기 몸을 일으켜 돌아서며) 장수들은 투구를 벗으시오.

장수들 :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다.)

공주 : 내가 알아볼 것이 있으니 장수들은 투구를 벗으시오.

온달의 부장 : 싸움터에서 장수는 투구를 벗지 못합니다.

공주 :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명하는 것이니 잠시 벗어라.

전령 장교 : 안 됩니다.

공주 : 정말 못 벗겠느냐?

온달의 부장 : 군율이 산과 같습니다.

공주 : 괘씸한 것. 네가 벌써 나를 업수이 보는가? 그러면 내 손으로 벗기리라. (다가선다. 호위 군사들 창으로 앞을 막는다. 장교들도 가로막는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내 앞에 창을 대느냐? 물러서라. (호위병들 묵묵부답으로 막아선 채로 있는다. 공주, 비틀거린다. 시녀들이 급히 부축한다.) 아아 그랬던가…… 그랬던가……. 새벽에 하신 말씀을 이제야 알겠구나. 오, 오랜 꿈 오랜 꿈의 길이 이제 환하고나. 장군, 당신이 누구였던가를 당신이 나의 누구였던가를……. (관 곁에 돌아온다.) [A]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20803

9)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일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②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③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④ 인물의 분열된 의식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관련 없는 사건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되고 있다.

10)<보기>는 위 글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 ~ ⓔ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설화를 변형하여 재해석한 것입니다. 공주가 왕궁에서 나온 것을 정치적 암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해석하고, 우연히 온달의 집에 들른 공주가 온달을 배우자로 선택해 그를 정치적 동반자로 만든 것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달이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로 인해 부장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변형과 재해석을 통해 애매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설화의 의미를 강화했고, 또 공주에 대한 온달의 절대적인 사랑을 인상적으로 부각시켜 관객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 것입니다.

① ⓐ - 온달을 정치적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공주의 노력을 뜻하는군.
② ⓑ - 온달이 공주의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군.
③ ⓒ -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는 음모에 대한 온달의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군.
④ ⓓ - 공주에 대한 온달의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낸 것이군.
⑤ ⓔ - 온달은 공주와 정치적 암투를 벌이는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군.

11)[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주'는 우회적으로 회유하고, '부장'은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② '공주'는 증거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부장'은 당황하여 변명을 하고 있다.
③ '공주'는 지위를 내세워 행동을 요구하고, '부장'은 규정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④ '공주'는 문제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부장'은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⑤ '공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명령을 하고, '부장'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31309B

12)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13) **난파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② 정주할 곳에 도달한 존재이다.
③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④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존재이다.
⑤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이다.

14)<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②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꾀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 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 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꽉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유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 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 온 자국 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 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 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 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 이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 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

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 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 자리에서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

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북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웠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 최인훈,「광장」-

* 콜호스 : 구소련의 집단 농장.

** 사북 :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 마스트: 돛대.

30611

1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ㄹ.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위 글의 '사북 자리', '삶의 광장', '푸른 광장'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군.

② '사북 자리'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로 표현될 만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군.

③ '사북 자리'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④ '사북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군.

⑤ 주인공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 짓고 있군.

17)<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 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①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②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③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④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18)㉠~㉤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 이어질 내용에서 그림의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 준다.
③ ㉢: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드러난다.
⑤ ㉤: 경쾌하게 날고 있는 새의 모습에 주인공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19) ⓐ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 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 화재로 집이 불타다.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빛으로 빛나다. ¶ 불타는 노을.

①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③ 분홍색 메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

1) 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형식주의'와 '사실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형식주의'와 '사실주의'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현실세계는 모든 영화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두 대상의 차이점은 사실주의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형식이나 편집보다는 영화의 내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형식주의 영화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사건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영화 형식이다. ③ 20세기 들어서기 전에 영화는 형식주의와 사실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두 대상의 변화 양상이 시대별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2)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미루어 알기
형식주의 영화는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사건의 이미지를 조작하지만 현실 세계의 소재를 활용한다.

3) 3
[출제의도] 관점을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보기>의 관점에서 ㉠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은 사실주의 영화의 전제이다. <보기>는 형식주의의 특징으로 '전체 물질적인 속성들을 의도적으로 재현할 것일 뿐이다'의 의미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표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③ 극단적 사실주의적 경향인 다큐멘터리도 현실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감독은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현실의 일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다. ② 사실주의 영화 입장에서 형식주의 영화를 비판한 것이다.

4) 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기발'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유달리 재치 있게 뛰어나다는 뜻이다. ①은 '월등'의 의미이다.

5)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이 '추'를 중시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예술이 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6) 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자체로의 추'와 '형식적 추'의 개념, '추의 예술적 묘사'와 '예술적 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ㄱ), '배설물, 썩은 과일' 등과 같은 구체적 대상이나 특정 예술작품, 예술가 등을 통해 예를 들고 있다(ㄴ).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7) 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주어진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부르주아들이 A와 B 모두를 부정적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이 가능하나, 그 둘의 우열을 판단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8) 2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과 ㉡은 '추'를 예술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미와 추의 구분 기준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9) 2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온달의 유령이 나타나고,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중간 줄거리 이전은 '공주궁'을, 그 이후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10) 3
[출제의도] 평론을 대사에 적용하여 감상하는 문제이다.
전후의 문맥으로 볼 때, ⓒ는 온달이 평양성에서 정치적 암투를 경험하며 느낀 심리적 부담감이나 회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온달은 공주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인물로 공주의 신변을 염려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는 공주를 위해 온달이 계속 적과 싸워 승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신을 위해 나는 싸웠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온달이 공주의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11) 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내가 명하는 것이니 잠시 벗어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주는 공주라는 지위와 권위를 근거로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주의 요구에 대해 부장은 '군율이 산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규정을 내세워 공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공주와 부장은 모두 직설적으로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12) 2
[해설]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명준'의 남한과 북한에서의경험, 인민군 장교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서술한 부분이다. 첫 부분의 큰 따옴표가 붙은 부분도 실제 대화가 아니라 '명준'이 혼자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말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웃겠지' 등의 서술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준'이라는 인물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명준'이 남한과 북한, 한국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부분은 '명준'이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판단한 것을 관념적인 어휘를 이용하여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장면 전환이 거의 없으며 그 분위기도 긴박하지 않다. ③ 공간에 대한 묘사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공간 자체만으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④ '명준'이 남한행을 권유받는 장면과 중립국에 가서 사는 장면은 회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준'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 또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았던 공간들에 대한 관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명준'이 혼자 생각하는 내용들만 제시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13) 3
[해설]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5면의 네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를 보면 셈할 줄 모르고, 환상에 빠지고, 마술을 믿었으며, 속은 사람들에 대해 서술이 되어 있다. 열 번째 줄에 '난파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본 후 참을 알고 돌아온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난파꾼은 이명준을 가리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서는 존재이다. 난파꾼의 네 줄 윗부분을 보면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서술도 있다. 따라서 난파꾼은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잊고자 하는 존재이다. ② 난파꾼은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란다. 이는 곧 그 섬이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곳에 닿기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며, 혹시 안다고 해도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존재이다. ④ 난파꾼이 가기로 결정한 곳은 중립국이며, 그 중립국에서 바라는 삶은 소박한 소시민의 삶이다. 따라서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⑤ 난파꾼은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위해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는 아니다.

14) 2
[해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광장」이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명준'은 이분법적 구도의 희생자에 해당한다. '명준'은 그러한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중립국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준'의 선택을 '이념'을 택했다고 한 진술이나 '행복한 삶'을 마다했다고 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명준'은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반감과 환멸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고 탈이념적인 소시민적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후 마음껏 웃음을 터뜨리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웃음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조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한 후련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마술사를 언
급한 부분의 어조는 매우 냉소적이다. '허황하고', '철없는', '잘못', '환상', '마술' 등의 어휘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 준다. 마술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마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참'을 안다는 것은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⑤ '명준'이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며 탈이념적이다. 이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이명준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이명준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풍자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고, 이야기의 비극성은 약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는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과 '광장'을 추구하는 이명준의 독특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6) 3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문맥상 '사북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이 극도로 좁아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여 배를 타고 제3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배 위에서 또 다시 '광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사북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이라고 한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7) 5
비판적 사고(외재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장황한 진술에 얽매이지 말고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보기>에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가졌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고 한 ⑤번이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18) 4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문맥상 ㉣은 큰 새(=은혜)와 꼬마 새(=딸)가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다를 보며 '푸른 광장'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명준이 깨닫게 된 내용이다. 따라서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찾다가 남한과 북한 사회에 모두 환멸을 느끼고 6·25 전쟁에 참전한 후 끝내는 중립국을 선택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아야 한다.

19) 2
어휘·어법의 이해(단어의 확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불타다1'은 기본적 의미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불타다2'는 확장된 의미이다. ⓐ는 저녁놀이 불타는 것이므로 기본적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인 '불타다2'에 해당한다. 그런데 ②의 '손꼽아'는 문맥상 '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다.'는 기본적 의미로 풀이되므로 ⓐ와 쓰임이 다르다.
[오답피하기] ① '물오른 싱싱한 생선'에서 '물오른'은 실제로 물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싱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1부 개념학습 4.독서의 태도 (1)

독서: 정약용, 독서 방법, 정독, 초서 독서법,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은 ⓐ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했 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측은지심(惻隱之心)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 도덕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주희로부터 벗어나 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항상 측은지심이라는 동정심이 생기는데, 주희는 이 측은지심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그에게는 측은지심이 마지막 결과이고 인간 본성이 원인이 되는 셈이다. ⓒ 이와 달리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주희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 이 지점이다.

(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성, 권형, 행사가 그것이다. 우선 본성은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한다. 권형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다. 즉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른 실천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라) ⓔ 가령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는다면 선과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道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人心)'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도심과 인심 중에서 주체는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마) 정약용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체의 실천과 관련된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주희가 강조한 내면적 수양을 넘어, 유학을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31310

1)(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내용
② (나) :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
③ (다) :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
④ (라) :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⑤ (마) :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2)㉠에 대해, 주희와 차별되는 정약용의 견해로 옳은 것은?

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② 주체가 자유의지를 갖게 만든다.
③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④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선을 택하게 한다.
⑤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3)정약용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상황에서 대피하던 '갑', '을'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잠시 후 건물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갈등에 빠진다. '갑'은 결국 생존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피하고, '을'만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는다.

①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 것은 도덕 감정에 따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본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③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난 후,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의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을'이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게 되는 육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심'에 따른 선한 행위이다.
⑤ '갑'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피한 것은 '인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4)문맥과 독서 표지의 성격을 고려할 때, ⓐ ~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는 문맥상 이 글의 핵심어로 볼 수 있으므로, ⓐ가 이 글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야겠어.
② ⓑ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해 보아야겠어.
③ ⓒ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하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어.
④ ⓓ는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하는 지시어이므로, ⓓ가 앞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보아야겠어.
⑤ ⓔ는 뒤에 가정된 상황을 제시한다는 표지이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 가정된 상황과 실제 사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겠어.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理)는 모든 사물에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氣)에서 ⓐ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 새로운 인성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학자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氣)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다.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정약용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31607

5)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②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③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④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理)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6)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①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②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③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④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선이 실현된다.
⑤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주변 사물과 소통하며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7)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①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②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③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군.
④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⑤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8)ⓐ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②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③ 나는 저금했던 돈을 은행에서 찾았다.
④ 어떤 손님은 항상 이 과자만 찾는다.
⑤ 어머니가 빗자루를 찾는다.

1부 적용 학습 (1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 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 김수영,「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야경꾼: 밤 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너어스들: 간호사들

21309

9) ㉠~㉤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③ ㉢: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④ ㉣: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0)<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상적 제재와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시의 특징이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

①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은 설렁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겠군.
②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③ '전통은 유구'하다는 인식은 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
④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하겠어.
⑤ '나'의 반성은 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두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엔
나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A]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뭇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B]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 하는 수 없이 낙향해 버리고 만 것이 어느덧 철 수가 바뀌었다. ㉡ 날마다 산을 바라보고, 밤마다 물소리를 이웃하는 것밖에, 나는 책 한 권 바로 읽지 못하고, 소란한 세상을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간다. 친한 벗에게는 편지 한 장 오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란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어쩌지 못할 설움 속에 그래도 울먹거리는 마음을 다소 가라앉히기는, 노란 **국화**가 피면서부터였다. 여름에 미리 파 뒀던 한 평 남짓한 못에다 뒤꼍 미나리꽝에서 물을 따 대었다. 산에 가서 기이한 돌을 가져다 쌓기도 하고, 강가에서 흰 모래와 갈대 몇 포기도 날라 온 보람이 있어, 방 둘 부엌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대로 나의 외로운 초가삼간엔 하루아침에 가을이 왔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더불어 얘기하나? 무척은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도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줄달음을 치는 듯하였다. 쓸쓸한 벗 국화와 갈대꽃이 창 밖에 와서 기다려도, 이 내 어쩌지 못할 설움을 그들도 하소연하지 않는가? 높은 구름이 못 위에 어리는 날이면, 창을 열고 먼 산을 바라다가 또 꽃을 바라고, 내 마음의 애무(愛撫)는 이 가냘픈, 그러나 칼날 같은 마음 앞에 적이 설레었다.

㉢ 서릿발이 높아지자 국화는 더욱 청초해 가고, 나는 국화를 바라보단 불현듯 맨발로 섬돌에 내리도록 서글퍼졌다.

논밭이 가까운 나의 집에는 이따금 메뚜기가 풀숲으로 뛰어든다. 수탉은 메뚜기를 잡으러 쫓아가다간 놓쳐 버리고, 담장 위에서 꼬끼오 하고 길게 목청을 뽑는다. 무척 고요한 대낮에 낮닭 소리가 끝나면, 마을은 더욱 고요해진다.

서울 성북동 아무 운치도 없는 집을 꾸미라고 근원 화백(畵伯)이 보내 주신, 손수 가꾼 국화분을 하룻밤 자고 나니 닭들이 꽃과 잎을 모조리 따 먹고 부러진 줄기가 툇마루에 떨어졌더니, 닭도 시골 닭은 국화를 먹기는커녕 국화 그늘 아래 즐거이 볕을 쪼이며 존다. 사람이 콩깍지만 먹고 살거니, 미물이 꽃을 먹는 풍류를 아니 배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때는 웃을 수밖에 없었으나, ㉣ 닭만큼도 국화를 즐기지 못하는 지금의 나의 마음을 국화는 알 것이다.

아아, ㉤ 국화가 나에게 한갓 슬픔을 더해 준다기로소니, 영혼과 육신이 함께 목마른 지금의 나에게 국화가 없으면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을 어떻게 견디랴.

- 조지훈, 「무국어(撫菊語)」 -

31610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와 (다)는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④ (가)~(다) 모두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1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청자는 의인화되어 있다.
② [B]는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③ [A]와 [B] 모두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④ [A]는 명령형 어미, [B]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A]는 영탄적 어조, [B]는 냉소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13)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과제]** (가)와 (다)는 모두 일제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가)와 (다)에서는 화자 또는 작가가 처한 시대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비롯된 심적 상황이나 태도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자.

① (가)의 '죄인처럼 수그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② (가)에서는 '두만강'이 화자에게, (다)에서는 '국화'가 작가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은 (다)의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밤 우에 밤'에서도, (다)의 작가는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에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와 (다)의 '어쩌지 못할 설움'에서 화자와 작가의 심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14)<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이 작품은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 즉 변주를 중심으로 행과 행, 연과 연이 구조화되어 있다. 각 연에서는 반복되는 시구들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시구가 점층적으로 덧붙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변주가 연과 연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변주를 통해 상황이나 화자의 태도가 구체화되고,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이루어진다.

① 1연에서는 '떨어진', '마당 위에 떨어진'이 점층적으로 덧붙여지면서 '눈은 살아 있다'의 상황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② 1~2연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의 내용은 3~4연으로 이루어진 후반부에서 변주된다고 볼 수 있다.
③ 1연과 3연은 '눈은 살아 있다'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2연과 4연은 '기침을 하자'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변주되고 있다.
④ 2연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는 4연의 '눈을 바라보며'로 변주되면서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⑤ 4연의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에서는 '기침을 하자'가 '가래라도 뱉자'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이 덧붙여져 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낙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하는 수 없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밤마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 가을이 깊어질수록 국화의 청초함이 돋보이게 됨을 '더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④ ㉣: 국화를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닭만큼도'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⑤ ㉤: 국화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한갓'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쥔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딜옹배기 :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나줏손 : '저녁때'의 방언.
* 섶 :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ㅡ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32203

16)(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②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① (가)는 '쥔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쌔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1) 2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나)는 앞서 논의한 도덕 감정과 관련하여 정약용과 주희의 유학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정약용은 선천적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주희와 공통점이 있지만, 도덕 감정 자체를 선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주희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으로 주체의 자유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정약용은 마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본성, 권형, 행사를 들고 있다. ④ (라)에서 정약용은 도심과 인심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주체가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은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3
[출제의도] 주장의 핵심을 파악한다.
주희는 도덕 감정 자체를 선하다고 보았지만, 정약용은 도덕 감정 자체를 선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⑤ 도덕 감정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둘의 공통된 입장이다.

3) 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행사'란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풀이] ②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란 '본성'을 의미한다. ③ '병'을 구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및 주체적 선택과 결단의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권형'에 해당한다. ④ '을'이 '병'을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도심'에 해당한다. ⑤ '갑'이 '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한 행동이므로 '인심'에 해당한다.

4) 5
[출제의도] 글의 표지를 고려하여 독서 방안을 파악한다.
'가령'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된 상황을 제시하는 표지로, 앞서 논의된 내용이 가정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가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⑤와 같이 가정된 상황과 실제 사실을 구분해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성리학에서는 기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① 5문단을 통해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실학자 최한기는 본성을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기로 파악했다. ⑤ 2문단에서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에 있다고 하였다.

6) 1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정약용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로 보았다. ⑤ 4문단에서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최한기의 관점이다.

7)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조선 후기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4문단에서 최한기는 기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할 때 악이 생긴다고 보았다.
①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선에 대한 주체적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본성인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이 될 수 없다.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타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선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4문단에서 최한기는 인간의 윤리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어야 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8) 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은 ⓐ의 경우처럼,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따위에 도움을 요청하다.' ③은 '맡겼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 ④는 '어떤 것을 구하다.' ⑤는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다.'의 뜻으로 쓰였다.

9) 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을 보면 과거의 경험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한 상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경험이므로 정서의 변화를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0) 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1연에서 시적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설렁탕집 주인이 아니라 '왕궁'으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따라서 비속어의 사용은 설렁탕집 주인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왕궁'을 비판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기 비판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1) 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의 '얼음길은 거칠다', (다)의 '서릿발이 높아지자',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 등은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에서는 상승 이미지나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12) 5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A]에서는 '강아'에서 영탄적 어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한편, [B]에서 냉소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강'이 의인화되어 있다. ②[B]에는 '기침을 하자' 등의 어구가 반복되고 있다. ③ [A]에서는 '강'을, [B]에서는 '젊은 시인'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④ [A]에는 '잠들지 말라'에 명령형 어미가, [B]에는 '기침을 하자'에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13)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외적 맥락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밤 우에 밤', (다)의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죄인처럼 수그리고'와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는 일제 말기의 시대 현실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② (가)와 (다)에서 '두만강'과 '국화'는 각각 시대 상황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화자와 작가에게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과 (다)의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은 모두 혹독한 식민지 상황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에서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다)의 '어쩌지 못할 설움'에서는 화자의 설움이 나타나 있다.

14) 4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2연의 '눈더러 보라고'에서 '보라고'의 주체는 '눈'이고 '마음놓고 마음놓고'에서 '마음놓고'의 주체는 '젊은 시인'이다. 그런데 4연의 '눈을 바라보며'에서 '바라보며'의 주체는 '젊은 시인'이다. 따라서 이 두 시구의 의미가 다르며, 둘 사이에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는 '눈이 살아 있다'는 중심 구절에 수식어가 덧붙어서 각 행이 점층적으로 변주되고 있다. ② 전반부인 1, 2연은 후반부인 3, 4연에서 변주되고 있다. ③ 1, 3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에 '떨어진 눈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등의 시구들이 덧붙여져, 2,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에 '젊은 시인이여', '눈 위에 대고' 등의 시구가 덧붙여져 변주되고 있다. ⑤ 4연에서 '기침을 하자'와 '가래라도 뱉자'는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같은 통사 구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복 변주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진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은 변주의 장치들이다.

15) 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갓'은 '다른 것 없이 겨우'의 뜻이므로, 이는 국화가 자신에게 슬픔을 준다 하더라도, 국화가 주는 위안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였고, (나)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의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7) 2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가)에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

금이 되어 가라앉고'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한탄 등이 가라앉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 크고, 높은 것'은 화자가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쥔을 붙'인 방은 화자가 세를 들게 된 방으로, 그 방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이라고 한 것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보여 준다. ② (가)에서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쌔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은 화자가 방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고 있는 모습으로, 방이 화자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③ (나)의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에서 '모든 노래'는 혁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한 것은 혁명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

사회: 제임스 콜먼, 합리적 선택 이론, 효용 최대화, 자원의 통제 상황, 사회적 균형 상태, 사회적 자본, 원초적 사회 구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 포괄적 합리성과 ㉡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중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앨리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로 인식된다.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운영절차(SOP),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은 ㉮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두 모델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이다.

22209

1)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하여 조직 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특징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정책 행위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외교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모델의 분석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연합체로서의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단일체로서의 국가가 선택한 결과로 본다.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
④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가 효용을 계산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국가가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여 정책 행위를 결정한다고 본다.
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객관적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은 결과로 본다.

3)㉠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행위자의 지식이, ㉡은 행위자의 목적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다.
②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한다고 본다.
③ ㉠은 ㉡과 달리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④ ㉡은 ㉠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은 ㉠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4)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이다.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B국과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한편 B국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 협정 체결 중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단, A국과 B국은 독립 국가이며 국내외의 다른 정치 외교적 상황은 양국의 정책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했다면,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해 가장 큰 효용을 가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겠군.
②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하겠군.
③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평화 협정 체결이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분석했더라도, 이 관점에서는 왜 B국이 평화 협정 체결을 정책 행위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겠군.
④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목적이 무엇인가보다는 어떻게 그 정책 행위가 선택되었는가를 분석하겠군.
⑤ 조직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이 평화 협정 체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면, 관련 조직들의 SOP 및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B국의 정책 행위를 설명하겠군.

5)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기준을 어디에 <u>두느냐</u>가 중요하다.
② 주말에 바둑을 <u>두는</u> 것이 취미이다.
③ 앞의 사람과 간격을 <u>두며</u> 줄을 섰다.
④ 위험물을 여기 그대로 <u>두면</u> 안 된다.
⑤ 그 사건은 평생을 <u>두고</u> 잊을 수 없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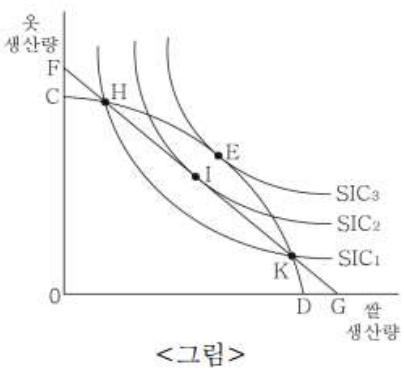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무차별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수준을 종합한 사회후생수준을 보여 준다.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후생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후생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으로,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가능곡선 CD와 사회 무차별곡선(SIC)을 통해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의 생산가능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함을,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이때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E 지점이 최적인데, 만약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가능곡선 CD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하고 있으므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SIC1과 SIC2의 원점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SIC1 위에 있는 H 지점보다 SIC2 위에 있는 I 지점의 사회후생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하에서 사회 후생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



<그림>

22211

6)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① 차선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②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③ 립시와 랭카스터가 입증한 차선의 이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④ 경제 주체들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⑤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7) 사회무차별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후생수준을 나타낸다.
② 사회무차별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모양이다.
③ 사회무차별곡선을 통해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수준을 종합한 사회후생수준을 보여준다.
⑤ 사회무차별곡선에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8) 차선의 이론을 통해 ㉠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②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효용수준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③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④ 낮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별 주체의 효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9)다음은 윗글을 읽고 <그림>에 대해 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동아리 회장: 오늘 살펴본 경제 자료 속 그래프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보자.
부원 1: 나는 H가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부원 2: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부원 3: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
부원 4: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부원 5: SIC3은 SIC1과 SIC2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① 부원 1의 생각 ② 부원 2의 생각
③ 부원 3의 생각 ④ 부원 4의 생각
⑤ 부원 5의 생각

10)ⓐ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② ⓑ: 생각하고 헤아려 봄.
③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④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⑤ ⓔ: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2부 적용 학습 (1)

찬기파랑가 -충담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 관계를 설명한다.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 중, 10구체 향가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설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초기의 4구체나 과도기 형태인 8구체가 아닌, 10구체를 향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0구체는 대개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간결한 형식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장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설시조가 출현하게 된다.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 측면에서와는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이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홍과 대구화상이 간행했다는 향가집 『삼대목』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주로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만, 추모(追慕), 축사(逐邪), 안민(安民), 연군(戀君) 등 다양하다.

반면,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시조의 주제는 유교적 이념과 자연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이는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시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시조에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 ㉠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 충담사, 「안민가」 -

(다) 평생에 일이 업서 산수 간에 노니다가
강호에 ㉡ 님자되니 세상 일 다 니제라
엇더타 강산풍월이 긔 벗인가 ᄒᆞ노라

- 낭원군의 시조 -

11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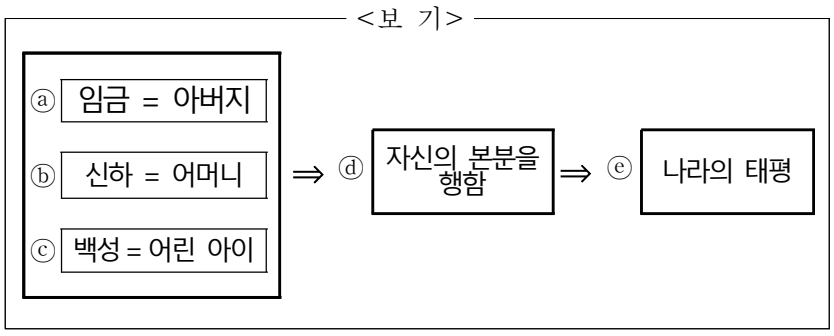
1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향가는 현재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이다.
② 향가의 4구체는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초기 형태에 해당한다.
③ 향가와 달리 시조는 지금까지도 작품 창작이 계속되고 있다.
④ 시조의 형식미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데 적합했다.
⑤ 시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관념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12)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4구+4구+2구' 형태는 (다)의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군.
② (나)의 '아으'는 전승의 측면에서 (다)의 '엇더타'와 영향 관계에 있군.
③ (다)의 4음보 율격은 (나)에서 '4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군.
④ (다)의 종장에 주제가 제시된 것은 (나)의 9구와 10구에 주제가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군.
⑤ (나)와 (다)의 형식은 모두 각각의 갈래에서 대표적인 형식이군.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백성'을, ㉡은 '벗'을 그리워하고 있다.
② ㉠은 '이 땅'에 있고, ㉡은 '산수 간'에 있다.
③ ㉠은 ㉡과 달리 상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④ ㉡은 ㉠과 달리 대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14) <보기>는 (가)의 안민(安民)이 (나)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 ~ ⓒ로 보아 국가를 가족의 확대된 형태로 생각한 것이군.
② ⓐ와 ⓑ가 ⓒ를 잘 먹여 다스리는 일이 통치의 근본이군.
③ ⓓ는 ⓑ와 ⓒ에게 ⓐ가 당부하는 것이군.
④ ⓓ에는 민심을 중시하는 정치의식이 담겨 있군.
⑤ ⓔ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겠군.

15)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읊은 것이다.

①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에 일'로 표현하였군.
②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산수 간에 노니다가'로 해소했군.
③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호에 님자되니'에 담고 있군.
④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를 '엇더타'에 집약해서 나타냈군.
⑤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에 드러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미꽃 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에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겨울 지난 ㉠ 석류 열매를 쪼개어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금붕어 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느낌이여.

이 열매는 지난해 시월 상달, 우리 둘의
조그만한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어니.

작은 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네 가슴에 졸음 조는 옥토끼가 한 쌍.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銀)실, 은(銀)실,

아아 석류알을 알알이 비추어 보며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 정지용,「석류」-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 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플라타너스」-

(다)

열어 젖히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 조약돌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저.
아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올 화반(花班)이여.

- 충담사,「찬기파랑가」-

10711

16)(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② (가)와 (다)에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다.
③ (나)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④ (가)~(다)에는 모두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⑤ (가)~(다)에는 모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이 드러나 있다.

17) ㉠과 ㉡의 공통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시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조성한다.
② 시상 전개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③ 시적 화자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④ 시적 화자에게 과거의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⑤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보여준다.

18)<보기>의 ⓐ~ⓔ와 관련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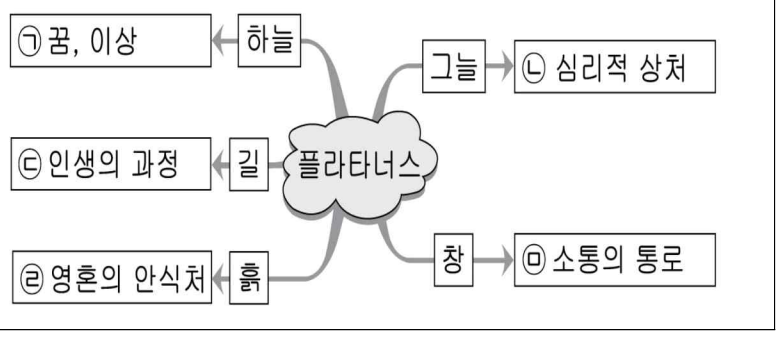
ⓐ 감정이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로 시를 형상화하는 능력은 정지용 특유의 것이다. 그는 대상에 대한 언어적 묘사를 통해 하나의 ⓑ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한다. ⓒ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의 도입, ⓓ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의 선택 등이 그의 이미지즘의 특징이다.

한편, 그는 생활 속의 일상어를 시의 언어로 사용한다. 그의 시에서는 ⓔ 상태와 동작을 한정하는 고유어로 된 부사를 활용하여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예가 자주 발견된다.

① ⓐ :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에서 '외롭게'와 '가볍게'를 나란히 놓아서 외로움의 정서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② ⓑ :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에서 '푸른 하늘'은 화자가 슬픈 역사를 고뇌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③ ⓒ :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에서 '밤'의 시각적 심상이 '풀 사르는 냄새'의 후각적 심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④ ⓓ :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시각적으로 선명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⑤ ⓔ : '여릿여릿한 느낌이여'의 '여릿여릿'은 석류알의 부드럽고 여린 감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19) (나)에서 '플라타너스'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20)(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풍상(風霜)이 섯거친 날에 갓 픠온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꽃인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 송순의 시조 -

① (다)의 '잣가지-서리'는 <보기>의 '황국화-풍상'과 대응된다.
② (다)와 <보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대상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④ (다)와 <보기>에서 대상의 부재는 화자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⑤ (다)의 '화반'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보기>의 '님'은 원망(怨望)의 대상이다.

21)(다)의 화자와 유사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① 강호(江湖)애 병(病)이 깁퍼 듁님(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팔빅니(八百里)에 방면(方面)을 맛디시니, 어와 셩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ᄒᆞ다.
② 쳔년(千年) 노룡(老龍)이 구ᄇᆡ구비 서려 이셔, 듀야(晝夜)의 흘녀 내여 창히(滄海)예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ᄂᆞᆫ다. 음애(陰崖)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ᄉᆞ라.
③ 븍두셩(北斗星) 기우려 챵히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ᄂᆞᆯ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ᄒᆞ야 냥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댱공(長空)애 져기면 ᄂᆞᆯ리로다.
④ 비로봉(毗盧峰) 샹샹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긔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ᄂᆞ야 놉돗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ᄂᆞᆫ 모ᄅᆞ거든, 넙거나 넙은 텬하(天下) 엇찌ᄒᆞ야 젹닷 말고. 어와 뎌 디위를 어이ᄒᆞ면 알 거이고.
⑤ 졍긔(旌旗)를 썰티니 오식(五色)이 넘노ᄂᆞᆫ ᄃᆞᆺ, 고각(鼓角)을 섯부니 히운(海雲)이 다 것ᄂᆞᆫ ᄃᆞᆺ. 명사(鳴沙)길 니근 ᄆᆞᆯ이 취션(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흘 겻틔 두고 히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빅구(白鷗)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

1) 3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서 정책 행위 분석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고,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업무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
① 3문단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조직 과정 모델이라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를 단일체로 본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은 국가를 연합체로 본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은 국가가 조직의 모든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에서는 조직이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3)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
포괄적 합리성(㉠)의 관점은 행위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행위자는 언제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므로, 목적이나 상황 등이 일치한다면 행위자는 언제나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은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①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제한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의 지식이나 인지 능력과 같은 특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②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은 모두 행위자가 선택 과정에서 목적을 고려하여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③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이다. ④ 포괄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선택된 방안이 목적에 대해 갖는 효용을 따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본다. 제한적 합리성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진 정보와 행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4) 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
2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분석할 때 행위자의 목적과 그에 따라 선택된 방안의 효용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조직 과정 모델이다.
① 2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5) 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기반을 둔다'의 '두다'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이므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의 '두다'가 문맥상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바둑이나 장기 따위의 놀이를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간격 따위를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이나 기간에 걸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립시와 랭카스터가 차선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윗글에 이들이 입증한 차선의 이론의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는 '차선의 이론'을 설명하며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생산가능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은 ~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7)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수준을 종합 한 사회후생수준을 보여 준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은 ~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으므로, 사회무차 별곡선에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 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 한 사회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 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을 보 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 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수준을 종합한 사회후 생수준을 보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8) 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 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 였으므로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9)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5문단에서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그림>에서 I는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 아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 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생산가능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 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림>에서 H는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이고, I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H가 생산가 능곡선 위에 있어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제약하에서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 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가능곡선 CD 위에 위치 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하고 있'다고 하였 고, <그림>에서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 에서 H와 K는 모두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으므로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 족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후생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 고, <그림>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의 위치를 보면 SIC3이 SIC1과 SIC2보다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으므로 SIC3은 SIC1과 SIC2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높 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0) 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다.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 거나 알맞게 됨.'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적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5
[출제의도]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가)의 4문단을 보면, 조선 후기 시조는 실학의 대두로 인해 관념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하였다.

12) 3
[출제의도] 작품의 형식 이해하기
시조의 4음보의 율격이 향가의 4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를 (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3) 2
[출제의도] 시어의 차이점 파악하기
'임금'은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이고, '님자'는 '세상 일'을 잊고서 '강호'와 '벗'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수 간'에 있는 존재이다.

14) 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는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 '임금'이 '신하'와 '백성'에게 본분을 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다.

15)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보기>의 핵심은 왕족인 작자가 정치 참여 금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정치적 한계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그런 체념의 정서는 (가)의 1문단을 통해서 볼 때 감탄사 '엇더타'에 집약됨을 알 수 있다.

16) 3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겨울 밤 화롯가에서 지난 가을에 익었던 석류 열매를 쪼개어 알맹이를 맛보며 느끼는 정감을 그려놓은 시이고, (나)는 '플라타너스'라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덕성을 예찬하며 삶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다)는 '기파랑'이라는 인물의 인품과 기상을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예찬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작품의 공통점이 드러나는 것은 ③인데, (나)에서는 플라타너스의 꿈과 사랑을 아는 존재, 삶의 반려라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는 '조약돌', '잣가지' 등의 상징을 통해 대상의 높은 정신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①처럼 두 작품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는 보이지 않으며, ②처럼 두 작품 모두 현실에 대한 풍자나 비판도 보이지 않는다. ④와 관련해서 (가)와 (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세 작품 모두 현실과 화자가 꿈 꾸는 이상과의 괴리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17) 4
[시어의 공통적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어의 공통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석류 열매'를 쪼개어 먹는 화자는 석류를 맛보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한 옛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의 '조약돌'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인 기파랑의 정신적 표상을 상징한다. '조약돌'의 속성이나 형태로부터 '굳셈'이나 '원만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화자는 조약돌을 통해 기파랑이라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②에서 시상 전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석류을 먹는 행위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로 바뀌는 ㉠만 해당한다. ㉠, ㉡ 모두 화자의 갈등 상황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비로움을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8) 2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인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사실과 관련하여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이 슬픈 역사에 대해 고뇌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석류를 맛보는 과정에서 떠올린 옛 사랑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은 '외롭게'와 '가볍게'를 병치시킴으로 외로움의 정서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감정이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③은 '밤'이라는 시각적 심상에서 '풀 사르는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이끌어 낸 감각적 표현이므로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에 해당한다. ④에서 '흰고기의 손가락'은 석류알을 꺼내는 손가락을 비유함과 동시에 3연의 금붕어를 연상시키며 손가락은 금붕어의 지느러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흰 고기'에서 시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약한'의 의미인 '여릿여릿'을 활용하여 석류알의 촉감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⑤의 설명도 적절하다.

19) 2
[제재를 중심으로 시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적 대상과 관련하여 제재의 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서 '플라타너스'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제재의 시적 의미를 파악해 볼 때, '하늘'은 '플라타너스'가 지향하는 세계로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길'은 화자와 함께 걸어 온 '인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의 '흙'은 생명이 다하는 날의 '영혼의 안식처'로, ㉤의 '창'은 화자와 '플라타너스'가 이웃으로 '소통을 위한 통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그늘'은 플라타너스가 베푸는 '사랑'으로 파악해야하며, '심리적 상처'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 1
[비교를 통한 시적 상황 파악하기]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를 통해 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에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절개를 지키는 신하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이 나타나 있다. ①에서 '서리'와 '풍상'은 모두 '시련, 역경'을 상징하며, '잣가지'와 '황국화'는 '푸른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잣가지-서리'의 관계는 '황국화-풍상'에 대응된다. 그러나 ②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③은 대상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은 두 작품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④는 대상의 부재 상황이 (다)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다)에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이 '~화반(花班)이여.'에 담겨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님(임금)'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볼 수는 없다.

21) 4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서 파악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의 화자는 '기파랑'이라는 대상이 지닌 높은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할 때 ④에서 '비로봉'을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빗대어 예찬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다. ①에는 임금이 자신에게 관찰사의 소임을 내린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나타나 있으며, ②에는 '화룡소'를 통해 화자의 포부가 드러나고 있다. ③에는 화자의 풍류적인 태도가, ⑤에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역사 편찬 관행, 삼국사기, 구삼국사, 신당서, 구당서, 사륙변려문체, 유교적 역사관, 천인감응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궤는 의식(儀式)과 궤범(軌範)을 합한 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감(都監)'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행사를 주관한 도감이 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보고서가 '의궤(儀軌)'이다. 조선은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으면 선왕 때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국가 행사에 관계되는 기록을 의궤로 정리해 둠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의궤는 조선 초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의궤는 모두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왜란과 호란의 와중에 ㉠소실(消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의궤는 1929년 순종황제와 순명황후의 삼년상을 치른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부묘주감의궤(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이다. 왕조의 ㉡쇠망(衰亡)과 함께 의궤의 기록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의궤에는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전교(傳敎: 국왕의 지시 사항)와 계사(啓辭: 국왕이 지시한 사항과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을 날짜별로 모은 것) 등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담당자의 명단과 신상 자료,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행사 참여 인원, 의장기의 모습, 가마의 배치 등 당시의 현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반차도*나, 사용 물품의 도설(圖說: 그림 설명) 등을 실어 당시 행사의 구체적 절차나 모습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의궤의 철저한 기록은 막강한 왕권중심체제에서 국왕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이자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의궤에는 행사에 참여한 관리와 장인들의 실명(實名)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양민의 이름만이 아니라 김노미(金老味), 김돌쇠(金乭金) 등 이름만으로도 천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보인다. 여기에는 작업자의 책임 ㉢소재(所在)를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의궤의 기록은 역사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고 상세한 ㉣사료(史料)를 제공하고 있다. 반차도에 나타나는 인물의 복식, 잔칫상에 오르는 음식의 종류와 재료, 행사에 연주된 악장과 악기의 편성, 악기 그림 등은 그 분야의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궤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관청들의 소속과 소관 업무를 알 수 있고, 의궤에 수록된 물품명에는 바지[把持], 저고리[赤古里], 요강[要江], 걸레[擧乃], 곡괭이[串光屎] 등 고유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국어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은 의궤를 편찬하여 국왕 및 관련기관에 보고한 다음에야 각종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국왕의 국정 수행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所要)되는 국가 행사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한 의궤는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 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반차도: 궁중의 행사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 궁중 행사의 의식과 늘어선 관원들의 배치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11009

1)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점]

① 의궤의 개념
② 의궤의 변모 과정
③ 의궤의 수록 내용
④ 의궤의 제작 목적
⑤ 의궤의 편찬 시기

2)위 글을 읽고 <보기>의 밑줄 친 것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는 1759년 6월에 있었던 영조와 정순왕후 김 씨(김한구의 딸)의 혼례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왕비 후보를 뽑는 삼간택의 과정을 비롯하여 납채(納采: 청혼서 보내기), 납징(納徵: 혼인 예물 보내기), 고기(告期: 날짜 잡기), 책비(冊妃: 왕비의 책봉), 친영(親迎: 별궁으로 가 왕비 맞이하기), 동뢰연(同牢宴: 혼인 후의 궁중 잔치) 등 왕실 혼례의 구체적인 절차들이 나타나 있다.

① 혼례와 관련된 각종 공문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② 혼례에 참여한 인원은 반차도를 통해 알 수 있을 거야.
③ 왕비 간택의 담당자 및 담당 업무도 기록되어 있을 거야.
④ 왕실의 간섭을 막기 위해 영조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을 거야.
⑤ 왕실의 복잡한 혼례 절차가 그림으로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야.

3)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궤'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 일체를 철저하게 기록함으로써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궁중 행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궁중생활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③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왕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였다.
④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함으로써 참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였다.
⑤ 국가 행사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후대 왕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사라져 없어짐
② ㉡: 쇠퇴하여 망함
③ ㉢: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
④ ㉣: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따위
⑤ ㉤: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록은 제왕 한 사람씩의 재위 기간 동안의 역사를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처음에는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란 뜻으로 해석해 실록이라고 평(評)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실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주흥사의 『양황제실록』이 처음이며, 당나라 이후 실록이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실록이 편찬되었고, 본격적인 편찬은 조선에 들어서이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의 예에 따라서 왕이 즉위하면 앞선 왕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관청인 춘추관에 별도로 실록청 또는 일기청을 열고 총재관、도청당상、도청낭청、각방당상、각방낭청 등을 임명하였다. 실록의 편찬 작업에서 ㉠ 사초(史草)라 부르는 사관(史官)*들의 기록이 가장 기본 자료로 쓰였고, 여러 관청의 기록물도 참고하였다. 사초는 춘추관에서 매일 기록한 시정기(時政記)와 춘추관 소속의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스스로 보관했다가 실록을 편찬할 시기에 제출하는 기일이 정해졌다.

모든 자료들을 모아 1차로 작성된 원고를 초초(初草)라고 하며, 이를 다시 수정、보완해 두 번째 원고인 중초(中草)를 만들고, 다시 한 번 수정하고 문체를 다듬어 ㉡ 정초(正草)라 불리는 완성된 원고를 만들었다. 정초는 교서관에서 세 벌을 활자로 인쇄해 춘추관과 지방의 외사고에 보관되었다. 보관된 실록은 엄격한 보관、관리가 이루어져 왕도 볼 수 없었고, 꼭 보아야 할 때는 관리를 보내 필요한 부분만 등서(謄書)*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이는 사관의 직필(直筆)*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러한 실록은 후세에 기록을 남겨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일에 과거의 사례를 알고자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사고(史庫)에 사람을 보내서 실록을 베껴 오도록 하였다. 한편 실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로서, 이전 국왕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의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국왕들은 사관의 기록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록을 국왕조차도 함부로 볼 수 없게 만든 까닭이었다. 물론 국왕이 강제로 실록의 기록을 열람한 경우도 있다. 연산군은 만들어지고 있던 실록의 사초를 열람하여 사화(士禍)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실록을 열람하는 것은 국왕의 지위를 포기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실록 편찬은 후대에 참고가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1차적인 목적은 선왕의 업적을 총 정리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총정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당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선왕대에 이루지 못하였던 과제를 확인하고 이것을 이어받는 절차였다. 막연하게 이전 시대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계승할 대상과 부정할 대상에 관해 총체적인 백서를 마련하는 작업이 곧 실록의 편찬이었다.

* 시정(時政) : 그 당시의 정치나 행정에 관한 일.
* 사관(史官) :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 등서(謄書) : 원본에서 베껴 옮김.
* 직필(直筆) :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적음.

11203

5)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실록의 개념
② 실록의 보존 기간
③ 실록의 편찬 기관
④ 실록의 편찬 시기
⑤ 실록의 보관 장소

6)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실록 편찬'의 궁극적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선왕의 여러 가지 행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② 선왕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③ 국가의 중요한 일을 기록해 후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④ 선왕대의 과제를 확인하여 당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⑤ 앞 시대를 부정하고 후대 왕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7)위 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조보감』은 조선왕조 역대 군주의 가언(嘉言)*과 선정(善政)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뽑아 연대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국조보감』에 인용된 사료는 대체로 실록의 편찬에 이용된 사료 가운데서 선택하였으므로 실록의 내용과 비슷하였으며, 실록의 내용과 비교할 때 요약한 것이 많다. 따라서 사료적 가치라는 면에서는 실록에 견주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록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후대의 군주들에게 감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아예 수록하지 않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삭제、변경하기도 하였다.

실록이 그 기록의 치밀함과 보존의 엄정성 때문에 쉽게 참고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국조보감』은 국왕들에게 따라야 할 전범*과 반성의 재료로써 제공되어 항상 쉽게 볼 수 있었다.

* 가언(嘉言) : 본받을 만한 좋은 말.
* 감계 :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계.
* 전범 :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① 실록은 『국조보감』과 편찬 목적에 차이가 있었군.
② 실록은 『국조보감』에 비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겠군.
③ 『국조보감』은 실록에 비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였군.
④ 『국조보감』은 왕이 항상 열람할 수 있어서 쉽게 참고할 수 있었겠군.
⑤ 실록과 『국조보감』은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였군.

8)㉠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다.
② 원석을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③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점차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
④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유용하다.
⑤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2부 적용 학습 (3)

사모곡 -작자 미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A]
타박 타박 타박녀야
너 어디로 울며 가니?
영영 가버린 어머니를 찾아
슬피 울며 타박타박 걸어가는 타박녀

내 나이 어렸을 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혹은 코콜* 앞에 앉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말하면, 달 속의 계수나무와 옥토끼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견우·직녀 이야기, 천태산 마고할미 이야기, 구미호 이야기, 장사 이야기, 그리고 유충렬전, 조웅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등 고담책 이야기며, 이밖에도 이루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그 가운데서 슬프기로는 타박녀 이야기가 으뜸이었다. 어디선가, 타박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 귓가에 들리는 듯하면, 타박타박 걸어가는 타박녀의 뒷모습이 눈앞에 서언하여, 나는 이 슬픈 환상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도 어느 사이에 어머니를 잃은 타박녀가 되었구나. 더욱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눈물도 동심도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엾은 고아가 되고 말았구나!

2.

내 나이 어렸을 때 우리들이 타관에 나와 단칸방 셋방살이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떤 날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내가 이 다암에 커서 무엇이 되기를 바라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소 과대망상증을 가진 나는 자못 자신만만하다는 듯이 어머니의 소원을 물었다. 순간 ㉢어머니의 눈은 빛나셨다. 내 신념에 움직이신 듯. 그리고 은근한 어조로,

"강릉 군수가 되어 주렴." 이것은 어머니의 향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시리라. 그러나 비단옷이 아니고는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슬픈 결심이기도 하다. 아아, 어머니는 드디어 고향 길을 못 밟으시고 저 세상으로 가신 지 오래니 내 이제 강릉 군수를 한들 무엇하리.

- 김동명,「 어머니 」-

* 코콜 : 고콜. 난방과 조명 기능을 하는 장치

(나) 쟁반 위 붉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어도 품엄 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세 이를 슬퍼하노라

- 박인로 -

(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들 리도 없어라
[B]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리 없어라
아아 임아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리 없어라

- 지은이 모름,「 사모곡 」-

10603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가)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고 있다.
② (나)에는 그리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다)는 생활 주변의 소재를 통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 (나)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⑤ (가)~(다)는 현실 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10) (가)의 첫머리에 [A]를 배치한 의도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암시한다.
ㄷ. 글쓴이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ㄹ.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 중, (나)의 '슬퍼하노라'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발상 및 표현 면에서 [B]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①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 많아라
좋고도 그칠 적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②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③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④ 사랑이 그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나더냐
길더냐 짧더냐 밟고 남아 재겠더냐
구태여 긴 줄은 모르되 끝 간 데를 몰라라
⑤ 묏버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나처럼 여기소서

13) <보기>의 밑줄 친 '설렁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 보 기 >

아들이 아버지 없는 어려운 살림에서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는 날. "뭘 먹을래?"라는 물음에 아들은 "설렁탕."이라고 대답한다. '아들이 엄마의 지갑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걸까? 왜 하필 설렁탕을…….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나 설렁탕을 좋아하던 아버지에게 네 졸업을 자랑하고 싶었구나.' 식탁을 마주하고 우리는 둘 다 쉽게 수저를 들지 못했다.

① 코콜　② 단칸방　③ 비단옷
④ 붉은 감　⑤ 낫

14)<보기>의 '내재적 관점'에 따라 (다)를 감상한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작품 안에서 찾는 방법과 작품 밖에서 찾는 방법이다. 전자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후자를 외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 자체에 나타난 어휘, 표현법 등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 이와 달리 외재적 관점은 작품과 관련이 있는 작가의 삶, 시대적 배경, 독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① 아버지를 '호미'에, 어머니를 '낫'에 비유한 것이 참신해 보이는군.
② 예나 지금이나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후대의 많은 문학 작품에 영향을 주었을 거야.
④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요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
⑤ '호미'나 '낫'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농촌 생활을 경험한 사람일거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점만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生)을 받은 우리의 찬송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들의 어머니 위에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 이미 어머니를 잃고, 클수록 커지는 동경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아들의 신세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큰 불행이라면, 어려서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고, 커서는 어머니의 덕을 받들어 모자가 한 가지로 늙는 사람의 팔자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 구할 수 없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런 구구한 경우를 떠나서도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단순한 사실, 그것이 벌써 한없이 행복스러운 일입니다.

생각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만일 어머니라 하는 이 아름답고 친절한 종족(種族)이 없다면,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나 되어 갈까요? 이 괴로운 세상을 찬란하게까지 장식하고 있는 모든 감정, 가령 말하자면 저 ㉠망아적(忘我的) 애정, 저 심각한 자비, 저 최대한의 동정, 끝없이 긴밀한 연민, 저 절대한 관념— 이 모든 것은 이곳에서 사라져 버리고야 말 터이지요.

그리하여 이 때, 이 세상이 돌연히 한없이도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고달파질 터이지요. 참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결합과 같이 힘차며, 순수하며, 또 신비로운 결합은 어떠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찾아 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향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새로 생긴 자에 대해 그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어머니야말로 참된 향토(鄕土)가 아닐까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가는 아동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영원히 그들의 괴로워할 때의 좋은 피난소이며, 그들의 즐거워할 때의 좋은 동감자(同感者)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찌하여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는 반드시 어머니를 향해 웁니다. 아프고 괴로워 위안이 필요할 때, 그는 바삐 어머니의 무릎 위로 기어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신뢰는 참으로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도움이 있을 것을, 어머니에게는 귀의심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어머니의 ⓐ손이 한번 가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은 가벼웁게 무너지고, 모든 것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의 어머니에게 대한 신빙(信憑)이 이에 못할 수 없겠지요.

어머니가 생존하여 계시는 동안 우리는 고요히 웃는 마음의 고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어두움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머니는 저 하늘에 빛나는 맑은 별과 같이도 순수합니다. 그것이 무에 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머니 피로부터, 어머니 정신으로부터, 어머니의 진통으로부터 나온 까닭이올시다. 어머니는 [㉡]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 말을 가리켜 모어(母語)라 부르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도덕과 지식 일반의 최초의 개념, 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지극히도 자극적인 노래와 유희를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와 같은 그렇게도 긴밀한 인간적 결합은 실로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 김진섭, '모송론(母頌論)'

(나)

호미도 놀히언마ᄅᆞᄂᆞᆫ
낟ᄀᆞ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ᄅᆞᄂᆞᆫ
위 덩더둥셩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다)

천 리 먼 고향 산은 만 겹 봉우리로 막혔으니, 千里家山萬疊峯
가고픈 마음은 오래도록 꿈 속에 있네. 歸心長在夢魂中
한송정 가에는 외로운 둥근 달이요, 寒松亭畔孤輪月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로다. 鏡浦臺前一陣風
모랫벌엔 백로가 언제나 모였다 흩어지고, 沙上白鷺恒聚散
파도 위엔 고깃배가 오락가락 떠다닌다. 波頭漁艇各西東
어느 때 강릉 땅을 다시 밟아서, 何時重踏臨瀛路
색동옷 입고 어머님 곁에서 바느질할꼬. 綵服班衣膝下縫

- 신사임당, '사친(思親)'

30507

15)(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달리, (다)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달리, (나), (다)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일을 제재로 하고 있다.
⑤ (나), (다)와 달리, (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16)(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경어체를 통해 강연하듯이 서술하여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② 비유의 방법으로 모성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비교 대조의 방법으로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와 어투를 사용해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17)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위 덩더둥셩'과 같은 여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군.
②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③ '호미'와 '낫'이 다 같이 지니고 있는 '날'은 어버이를 뜻하는 말이겠군.
④ 부모의 사랑을 농기구에 비유한 데서 작자의 서민적 정서를 느낄 수 있군.
⑤ '호미'와 '낫'이 지닌 예리함의 차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의 정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군.

18)(다)를 지은 이후에 <보기>의 작품을 지었다고 할 때, 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보 기 〉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鶴髮慈親在臨瀛
이 몸 혼자 서울로 떠나는 마음	身向獨去長安情
돌아보니 고향은 아득도 한데	回首北坪時一望
흰 구름 날고 산은 저무네	白雲飛下暮山情

- 신사임당, '대관령을 넘으면서'

① 현실이 힘들더라도 참고 살다 보면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겠지.
② 어머니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내 마음을 흰 구름이 달래 주는구나.
③ 어머니를 떠나온 지 오래건만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니 불효가 따로 없구나.
④ 어머니와 작별한 후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그리움이 날마다 더해만 가는구나.
⑤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뵈었지만 다시 떠나게 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19) ㉠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① 반갑던 님의 글월 설움될 줄 알았으리
줄줄이 흐르는 정 상기 아니 말랐도다.
받들어 낯에 대이니 배이는 듯 하여라. - 정인보, 자모사5

②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 정인보, 자모사12

③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 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 하올고. - 정인보, 자모사16

④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이라 여짜오니
고국 산천이 새로이 설워라고
치마끈 드시려 하자 눈물 벌써 굴러라. - 정인보, 자모사37

⑤ 설워라 설워라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무덤 풀 욱은 오늘 이 살 붙어 있단 말가
빈말로 설운 양 함을 뉘나 믿지 마옵소. - 정인보, 자모사40

20) 앞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② 우리의 샘물인 것입니다.
③ 우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④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⑤ 우리의 쉼터인 것입니다.

21)<보기>를 참조할 때, ⓐ가 들어간 표현 중 관용어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보 기 〉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사전적 의미와 무관한 제3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 단위이며, 결합 형식이 고정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제3의 새로운 뜻'이란, '손'과 '가다'가 결합하여 '힘이나 능력이 미치다'라는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된 형식'이란 '손이 가다'를 '발이 가다'나 '다리가 가다'처럼 다른 낱말로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① 이 약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
② 동생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손이 닳도록 빌었다.
③ 나는 축구 중계 방송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④ 그녀는 입원한 친구 때문에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⑤ 아버지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1) 2
[출제의도] 글의 짜임 파악하기
①은 1문단에, ③는 3문단에, ④와 ⑤는 2문단에 각각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의궤의 변모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 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마지막 단락에서 '조선은 의궤를 편찬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다음에야 행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보기>의 의궤는 당시 임금이던 영조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 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을 보면, 의궤가 국왕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행사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했기 때문이지, 의궤 편찬자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 3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는 '어떤 곳에 있음, 또는 있는 곳'을 말한다.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뜻하는 어휘는 '소재(素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실록의 보존 기간은 제시된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실록의 개념은 1문단에서, ③ 실록의 편찬 기관과 ④ 편찬 시기는 2문단에서, ⑤ 실록의 보관 장소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4
[출제의도] 핵심 제재의 궁극적 목적 파악하기
글쓴이는 5문단에서 실록 편찬의 1차적인 목적은 선왕의 업적을 총 정리하는 데 있지만 그것은 당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는 실록 편찬의 목적에는 해당하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⑤는 실록 편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7)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 제시된 「국조보감」은 후대 왕을 감계하기 위해 실록 중에서 선왕의 가언과 선정을 가려 뽑아 편찬한 것이므로 실록에 비해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국조보감」이 실록에 비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8) 2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은 ㉠을 중심 재료로 하여 여러 번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것은 '원석'을 중심 재료로 하여 그것을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언어'는 '문학'의 표현 수단이다. ③ '일교차'는 '감기 환자'의 원인이다. ④ '자전거'와 '자동차', ⑤ '자유'와 '평등'은 대등한 관계이다.

9) 5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어머니를 '낫'에 아버지를 '호미'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래가 교훈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③ 우리 주변에서 낫과 호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를 부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낫과 호미는 필수적인 것들이므로 그만큼 익숙한 것이었을 것이다.

10) 2
[출제의도] 산문에 운문을 삽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운문을 서두에 배치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글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풀이] ㄴ.은 비판적 태도가 글의 내용과 맞지 않고, ㄹ.은 지방색이나, 향토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2
[출제의도] 작품 속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상 위에 놓인 감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퍼한다. 부재(不在)하는 어머니에 대한 회한과 한탄,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다.
[오답풀이] ㉠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 ㉢, ㉣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은 화자의 원망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12) 1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는 아버지를 '호미'에 어머니를 '낫'에 비유한 후, 그 차이에 주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 때 표현법은 대조이다. ①의 '구름'과 '바람'도 좋으나 '물'이 더 좋다는 발상과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이다.
[오답풀이] ④ 언뜻 보면 비교와 대조의 방식이 있는 듯 보이지만열거와 나열을 통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13) 4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화자는 남편이 좋아하던 '설렁탕'을 통하여 죽은 남편을 회상하는 것이고, (나)의 화자는 '감'을 통하여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의 '비단옷'은 어머니를 회상하였을 때 기억나는 것이며, 또 금의환향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1
[출제의도] 내재적 관점으로 문학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내재적 관점은 형식적 요소인 언어, 표현법 등 작품 속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오답풀이] ②는 가족 관계를, ③, ④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⑤는 작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한 외재적 관점이다.

15) 2
[출제의도]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나)와 달리 (다)에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함께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도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③ (가)와 (다)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았다. ④ (다)의 경우도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나)에서도 효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다.

16) 3
[출제의도] 수필 작품을 읽고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호소력을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비유를 통해 모성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와 대조는 이 지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④ 2문단, 3문단, 6문단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⑤ '망아적 애정', '피난소', '동감자', '신빙' 등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를 사용하였고, '까닭이올시다', '터이지요' 등의 어투를 통해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17) 2
[출제의도] 고전 시가를 읽고 그 내용 및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어머니를 예찬하는 태도가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답풀이] ③ '호미'는 어머니, '낫'은 아버지, '날'은 부모(부모의 사랑)를 뜻하는 말이다. ④ 호미와 낫이 농기구라는 점에서 작자가 농민 계층일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호미와 낫의 '날'이 지닌 예리함의 차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의 정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18) 5
[출제의도] 두 시에 나타난 시적 상황을 대비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다)의 시적 화자는 헤어져 있는 어머니를 간절히 그리는 오매불망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보기>의 시적 화자는 고향(강릉)의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다시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생활의 현장(서울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읊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상황과 이후로 더욱 깊어진 그리움의 정서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19) 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은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모정(母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②에서도 '바릿밥(여기서는 따뜻한 밥을 의미함)'과 두둑한 옷은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찬 밥과 엷은 옷을 입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식을 위한 희생적.헌신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다.

20) 1
[출제의도] 글의 흐름으로 보아 생략된 어구를 추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앞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피, 정신, 전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어머니가 곧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준 존재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비유적 표현은 '뿌리'이다.

21) 1
[출제의도] 관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①의 '손이 닿다'는, '손'과 '닿다(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맞붙어 사이에 빈 틈이 없게 되다.)'의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용어의 조건인 '제 3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부 적용 학습 1. 인문 예술 (2)

크로노토프, 바흐친, 시공간적 표시물, 명시적 시공간, 함축적 시공간, 심리적 시공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흄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흄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흄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상은 오감(五感)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 등을 말하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 한다. 흄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흄은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흄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 관계는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라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흄은 비판하였다.

[A] 또한 흄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事實)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하지만 흄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한다. 그런데 흄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흄의 입장이다.

이처럼 흄은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 사조에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803

1)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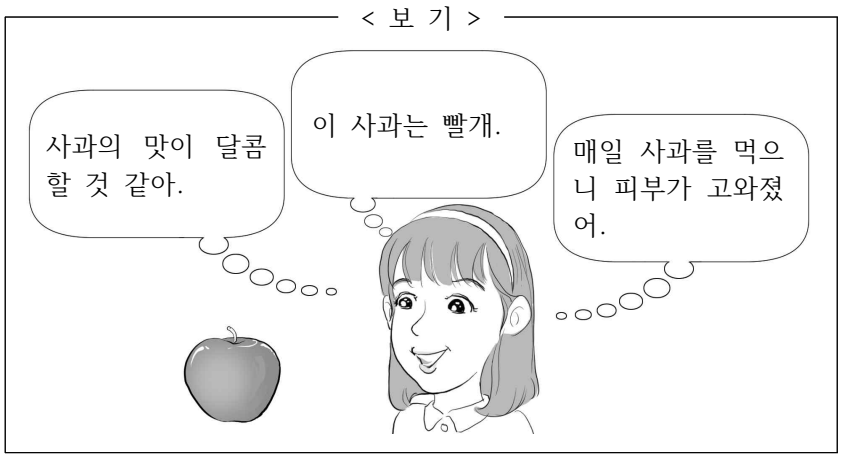
①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②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흄은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시하였다.
④ 흄은 합리론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⑤ 흄은 인상을 갖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A]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②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③ 실재 세계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④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⑤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3)윗글에서 언급된 '흄'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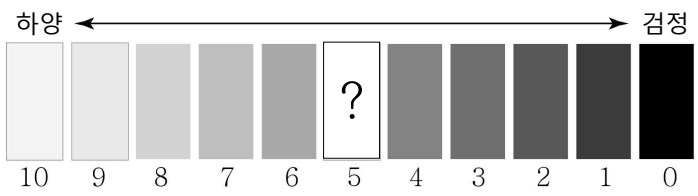


①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에 해당한다.
②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는 것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③ 사과의 실제 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과는 빨개.'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이 사과가 빨갛게 보여.'라는 의미일 뿐이다.
④ 사과를 먹는 것과 피부가 고와지는 것 사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⑤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라는 생각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에 불과하다.

4)<보기>의 사례를 통해 '흄'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아래 그림과 같이 무채색을 명도의 변화에 따라 나열한 도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도표의 한 칸을 비워 둔 채 어떤 사람에게 "5번 빈칸에 들어갈 색은 어떤 색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그 사람은 빈칸에 들어갈 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변 색과 비교하여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맞혔다.



① 세계는 우리의 감각 기관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③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필연성을 갖게 된다.
④ 관념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⑤ 외부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시간을 원환적(圓環的)으로 표상하기도하고 직선적으로도 표상하는데, 전자를 ㉠ '크로노스적 시간'이라 하고 후자를 ㉡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시간에 대한 표상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주로 자연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천체의 원운동과 함께 흐르는 것으로 간주되고 인간은 이런 주기적인 흐름에 맞추어 삶을 영위한다. 즉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된다. 반면 인간이 주로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직선적으로 표상된다. 역사의 흐름은 일회적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의 순환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역사적 사건 자체는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시간 표상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흔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대비에서 본다. 불트만이 고대 그리스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과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이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불트만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삶을 기술하는 방식은 삶의 영역을 자연의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투키디데스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도 자연에서와 같은 내재적 법칙이 있어서 인간적 사건은 자연적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그리스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에는 신의 의지를 지향하는 인간의 삶과 목표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속에는 특정 방향과 목표를 전제하지 않은,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원환적 시간 표상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을 기술하는 방식은 인간의 행위를 신의 계명에 대한 경외와 복종으로서 이해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신의 섭리로 진행된다. 신의 계명을 따르는 인간 삶의 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이끄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표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직선적 시간 표상은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끝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시간 표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어도 새해의 절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순환하면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새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이며 이는 시간의 단절적 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순환적 자연 속에서 직선적 역사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21411A

5)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개념의 핵심 이론을 소개하며,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② 특정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정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모두 시간의 표상에 대한 개념이다.
② ㉠과 ㉡은 모두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③ ㉠과 달리 ㉡은 삶의 종말 이후의 영원한 삶을 전제한다.
④ ㉡과 달리 ㉠은 주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다.
⑤ ㉡과 달리 ㉠은 자연보다 역사를 더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7)윗글의 불트만이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플라톤의 시간은 가시적인 천체 운동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결코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다. 천체의 규칙적 순환 운동은 시간을 재는 도구이다. 또 플라톤이 천체의 운동은 예지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한 것은 시간 지각이 이성적 인식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① 신의 섭리에 의해 예지되는 시간을 중시하고 있군.
② 자연의 흐름과 천체 운동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군.
③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직선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군.
④ 헤브라이즘과 유사하게 가시적인 시간 지각을 전제하고 있군.
⑤ 특정한 목표를 전제하지 않는 원환적 시간 표상을 드러내고 있군.

오륜가 -작자 미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갚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샷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몬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밭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젖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를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

31806

8)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1)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1)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넷째 문단의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事實)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흄의 입장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전통적 진리관에서 진술 내용과 사실(事實)이 일치할 경우를 진리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입장은 전통적 진리관이 아닌 흄의 입장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④ 첫째 문단의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에 비판하고'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의 '흄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둘째 문단의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5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A]에서 흄은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진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흄이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진리에 대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조차도 진리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상을 갖는 경험적 지식을 중시한 말로 회의주의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② 흄은 이성만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합리론을 비판하였다. ③ 실재 세계는 인간의 의식에서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재 세계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는 것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흄의 회의적인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④ 흄은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3) 2
[출제의도]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의미하고,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사과의 빨간색은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이므로 단순 인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과의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에 해당한다. ③ 흄은 세계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사과의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한 사과의 색깔이 빨갛다는 의미일 뿐이다. ④ 흄은 인과 관계로 판단되는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⑤ 흄은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본다.

4)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보기>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빈칸의 색을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표의 주변 색과의 비교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색을 알아맞히었다. 이는 눈으로 색을 보지 않고도 그 색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이다. 눈을 통해 느끼는 명도표의 색은 단순 인상이고,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단순 관념이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가정한 상황은 단순 인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단순 관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흄은 '단순 관념은 단순 인상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보기>의 사례는 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5) 4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시간 표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주로 자연에 의존하여 사는 경우에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되는 크로노스적 시간관을 갖게 되고, 인간이 주로 역사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 시간은 직선적으로 표상되는 카이로스적 시간관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우리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시간 표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여 두 가지 시간관을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 특정 개념에 대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 않다. ② 특정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특정 개념에 대한 의문과 해결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특정 개념에 대한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6) 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 모두 인간의 삶을 반영한 시간에 대한 표상이다. ㉠은 시간에 대한 원환적 표상으로 자연을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고, ㉡은 시간에 대한 직선적 표상으로 역사를 중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 달리 ㉠은 자연보다 역사를 더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의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다.'에서 ㉡이 '삶의 종말 이후의 영원한 삶을 전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시간은 천체의 순환과 함께 원환적으로 표상된다.'는 것으로 보아 ㉠이 주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5
[출제의도] 핵심 개념 비교하기
<보기>의 플라톤은 천체의 규칙적 순환을 통하여 시간을 인식하는 원환적 시간 표상을 가지고 있다. ① 신의 섭리에 의해 예지되는 시간을 중시하는 것은 직선적 시간 표상이다. ② 플라톤은 자연의 흐름과 천체 운동을 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③ 플라톤은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원환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플라톤의 시간 표상은 헬레니즘적이다.

8) 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를고'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으며,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같은 표현을 통해 오륜을 지키며 바람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에 주목하면서 그릇된 소유 관념을 경계하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는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 '어와', '아'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와 (나)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만 상반된 세계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권고하는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한 진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9) 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는 말을 빌려 탄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을 임금,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주인과 비복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고 참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제2수>부터 <제6수>까지 관념적 덕목(유교의 오륜)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것이지,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제4수>는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거안제미, 擧案齊眉)'를 통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수>는 화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3수>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벌과 일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도리라는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③ <제5수>의 초장에서 아우가 '형님 자신 젖을 내 조처 먹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젖'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5수>에서 형님과 아우는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오륜을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 ⑤ <제6수>의 초장에서 '늙은이'는 부모에, 어른은 '형'에 빗대어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라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 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나)에 인용된 맹자의 말은 그릇된 소유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통해 오래도록 빌리고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린 경우 전전긍긍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노둔하고 야윈 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위험은 준마를 빌려 질주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2문단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를 통해 준마를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

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세상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미혹된 일이라 보고 있다. ④ 이 글에서 '독부'는 빌린 권력을 돌려준(빼앗긴) 후의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2부 적용 학습 1. 인문 예술 (3)

코나투스, 스토아학파, 스콜라 철학, 르네상스, 자기 보존,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나투스(Conatus)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물의 본질인 코나투스라는 것이다.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던 그는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충동이라 부르고, 다른 사물들과 같이 인간도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며 인간의 충동을 욕망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를 본질로 지닌 인간은 한번 태어난 이상 삶을 지속하기 위해 힘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 인간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때 타자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해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을 신체의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던 스피노자는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면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코나투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피노자는 선악의 개념도 코나투스와 연결 짓는다. 그는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보면 선이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악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정서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선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며, 악은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인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한다. 슬픔은 거부하고 기쁨을 지향하라는 것, 그것이 곧 선의 추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나투스는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간에게는 타자와 함께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자신과 타자 모두의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우리에게 하는 당부이다.

11809

1)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코나투스의 의미
② 정신과 신체의 유래
③ 감정과 신체의 관계
④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
⑤ 코나투스와 관련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인간과 세계의 본질로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우고 채워도 욕망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삶을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부정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금욕주의를 주장했다.

①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욕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군.
②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인간은 욕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군.
③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삶을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겼군.
④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욕망을 인간의 본질로 보고 있군.
⑤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군.

3)윗글에 나타난 선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선이다.
②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③ 선악에 대한 판단은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④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이다.
⑤ 기쁨의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공동체는 선의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사막보다 푸른 초원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간이 왜 특정한 환경이나 공간적 배치를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 일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조경 연구자 제이 애플턴의 '조망과 피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끔 진화했다. 장애물에 가리지 않는 열린 시야는 물이나 음식물 같은 자원을 찾거나 포식자나 악당이 다가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데 유리하다. 눈이 달려 있지 않은 머리 위나 등 뒤를 가려 주는 피난처는 나를 포식자나 악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산등성이에 난 동굴,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 동화 속 공주가 사는 성채,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된 2층 카페 등은 모두 조망과 피신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풍수지리설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 즉 뒤로 산이나 언덕을 등지고 앞에 강이나 개울을 바라보는 집을 높게 쳐 주는 것에도 심오한 진화적 근거가 깔려 있는 셈이다.

'조망과 피신' 이론은 그저 재미로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과학 이론이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공간의 한복판보다는 언저리를 선호할 것이다. 언저리에서 그 공간 전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무 그늘이나 지붕, 차양, 파라솔 아래처럼 머리 위를 가려주는 곳을 측면이나 후면만 가려 주는 곳보다 선호할 것이다. 셋째, 온몸을 사방으로 드러내는 곳보다 측면이나 후면을 가려 주는 곳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 예측들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한적한 별다방에 가서 줄지어 들어오는 손님들이 과연 어떤 테이블부터 채우는지 살펴보시라.

20세기의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들은 진화미학으로 잘 설명된다. 라이트가 설계한 집은 정문에서 낮은 천장, 붙박이 벽난로, 널찍한 통유리창이 어우러지면서 바깥 풍경에 대한 조망과 아늑한 보금자리를 동시에 선사해 준다. 특히 천장의 높이를 제각각 다르게 하고 지붕 바로 아래에 주요한 생활공간을 몰아넣음으로써 마치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에 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라이트는 그의 대표작인 「낙수장(落水莊, Falling Waters)」을 계곡의 폭포 바로 위에 세움으로써 피신처에서 느끼는 안락한 기분을 한층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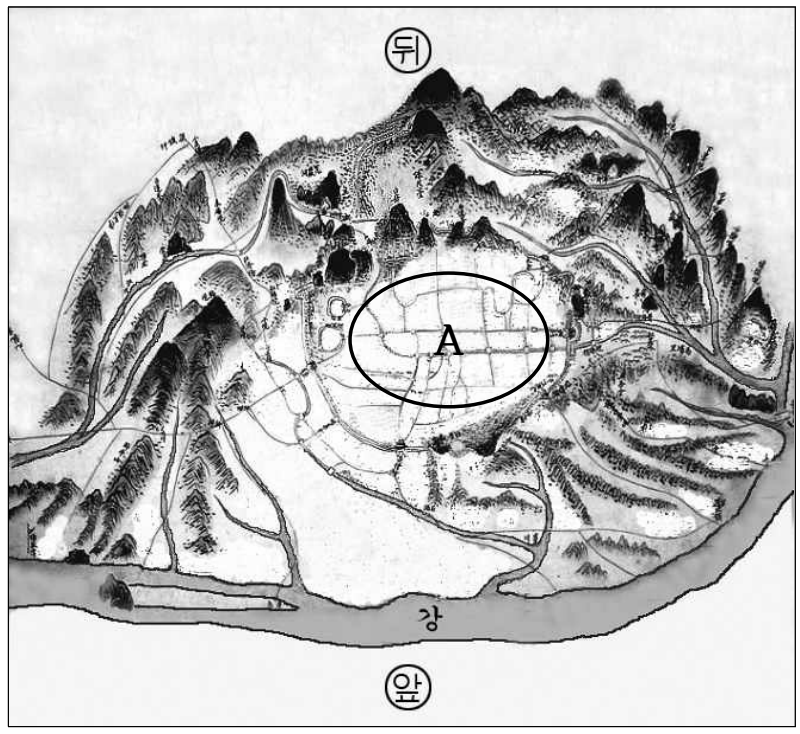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자연 그 자체에 깃든 외부적 실재가 아니다. 잡식성 영장류인 인간이 오랜 세월 진화하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특정한 환경을 잘 찾아가게끔 그 환경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일 뿐이다.

11006

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에도 진화적 근거가 깔려 있다.
② 라이트의 대표작인 「낙수장」은 진화 미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조망보다 안락함을 우선한다.
④ '조망과 피신' 이론은 몰랐던 사실에 대해 예측을 제공한다.
⑤ 사람들은 지붕이 있는 곳을 측면만 가려주는 곳보다 좋아한다.

5)다음은 어떤 지역의 지도이다. 위 글을 참고하여 A 지역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앞쪽의 위험을 빨리 알 수 있어 살기에 적당하겠군.
② 옆쪽은 산들이 가려주어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는군.
③ 앞쪽은 강으로 시야가 열려 있어 자원을 찾기 쉽겠군.
④ 뒤쪽의 산들이 뒤를 막아주어 피난처로 안성맞춤이군.
⑤ 한복판은 사방을 둘러볼 수 있어 주거지로 가장 좋아하겠군.

6)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적 배치를 바꿀 수 있는 곳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② 종족을 보존하는 데 적합한 곳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③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곳을 아름답다고 인식한다.
④ 주변의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아름답다고 파악한다.
⑤ 지형이 단순하지 않고 적당히 복잡한 곳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2부 적용 학습 (13)

단가육장-이신의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길 - 김소월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적막강산 - 백석

(다)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랠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단가육장 - 이신의

31009

7)(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8)(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② '오라는 곳'이 없음.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9)(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 한다.

10)(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③ 조성하고 있다.
④ (가)의 '정주 곽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⑤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 간적 성격을 띤다.
⑥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1) (다)의 ㉠~㉤ 중<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 널로만 하노라 : 너보다 많도다.
* 유정 : 인정이나 동정심이 있음.
* 호접 : 나비.

11703

13)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4장'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② '5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6장'은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4장'과 '5장'은 현재와 과거를 대조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⑤ '5장'과 '6장'은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 인목대비 폐위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된다. 「단가육장」은 그가 귀양살이를 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화자는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도 한다.

① '풀어낸 시름'은 '적객'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② '간 데마다 따라오'는 '명월'은 화자가 지향하는 '신의'가 투사된 자연물로 볼 수 있겠군.
③ '명월'을 '너'로 지칭하고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는 행위에서 자연물에 친화적인 화자의 시선을 엿볼 수 있군.
④ '설월'에 핀 '매화'는 화자가 지향하는 '충절'의 이념과 관련지을 수 있겠군.
⑤ '이 향기'에는 귀양살이를 오기 전의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투영되어 있군.

15)㉠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화자의 '벗'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② ㉠과 ㉡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시간과 거리로 볼 수 있다.
③ ㉠과 ㉡은 화자와 '인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은 비관적 전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녜ᄂᆞᆫ 양쥬(楊州)ㅣ ᄉᆞᆺ올히여
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긔국셩왕(開國聖王)이 셩ᄃᆡ(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당금쩡(當今景) 잣다온더
셩슈만년(聖壽萬年)ᄒᆞ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픈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듕(德重)ᄒᆞ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샷다 :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온뎌 :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뎌**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셰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늠연한 :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폐하고 : 마다하고.
* 흔덕흔덕 :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멱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홀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퉁퉁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궂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굉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훤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 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륭상 :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31810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7)(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셰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녜ᄂᆞᆫ 양쥬ㅣ 오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셩'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③ '긔국셩왕이 셩ᄃᆡ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19)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0)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그믐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닌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 표범.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나)
내 유년 시절 ⓒ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얘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1 」-

(다)
남산(南山)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도록 날랠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 제비 나니
적객(謫客)의 회포는 무슨 일로 그지없어
저 제비 나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적객(謫客)에 벗이 없어 빈 들보에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작고
어즈버 내 품은 시름은 너보다도 많노라

ⓔ 인간(人間)에 유정(有情)한 벗은 **명월(明月)**밖에 또 있는가
천리(千里)를 머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설월(雪月)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았나니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을까 하노라

- 이신의,「 단가(短歌) 」-

30903

2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향토적 정감이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④ (가)~(다)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22) (가)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자신을 '아롱범'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머니의 입김'은 화자의 추억과 연결되어 포근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③ 화자의 처지를 '등대'와 연결하여 '가도오도'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슴푸레 그리어진'은 화자의 추억이 희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얼음이 두껍다'는 화자가 지닌 신념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년기를 다룬 기형도의 시에서 아버지는 늘 부재해 있다. 현실의 울타리로서의 부성의 부재는 불안, 공포의 정서로 연결된다. 어머니는 모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부성의 부재, 불완전한 모성은 결국 기형도의 작품에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① '무서워요'는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② '어머니조차 무서워요'에서 불완전한 모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인 바람은 화자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④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쓸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부성이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 '사위어가는 호롱불'은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은 화자의 소망을, ㉡은 화자의 시름을 환기한다.
② ㉠은 화자의 과거를, ㉡은 화자의 현재를 상징한다.
③ ㉠과 ㉡은 모두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한다.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25)<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솔', '명월', '매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은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선비들은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었다. (다)는 작가가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 함경도로 유배된 상황에서 지어졌는데, 이 시의 자연물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① '솔'은 남산에 있다 베어진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작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
② '솔'은 '우로'가 깊어질 때 다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③ '명월'은 화자를 '천리를 머다 아녀 따라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
④ '매화'는 여윈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활 중 작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⑤ '매화'에는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지조를 나타내는 것 같아.

2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② ⓑ : 유사한 구조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 :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상황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 :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1) 2
[출제의도] 중심 화제 파악하기
1문단의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다는 내용에서, 정신과 신체의 관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의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물의 본질인 코나투스라는 것이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감정을 신체의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다는 내용에서 감정과 신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기쁜 감정을 느꼈을 때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슬픈 감정을 느꼈을 때 코나투스가 감소한다는 내용을 통해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내용 추론하기
스피노자는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으나,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부정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통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스피노자는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은 사물 자체가 지닌 성질로 보기 어렵다.

4) 3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 확인하기
'조망과 피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조망과 피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망보다 안락함을 우선한다는 것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5) 5
[출제의도]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지도를 보면 등 뒤가 산으로 가려 있고, 앞쪽은 강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지문에서는 어떤 공간의 한복판보다는 언저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므로 한복판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지문 둘째 문단에서 장애물에 가리지 않는 열린 시야(앞쪽은 강이 있어)는 물이나 음식물 같은 자원을 찾는 데 유리하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맞는 말이다.

6) 2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다섯 번째 단락에서 인간이 진화의 결과로 인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공간을 아름답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7) 1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떠도는 시적화자의 신세는 '까마귀'에 감정이입을 하여 표현하였고,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는 '기러기'와 대조하여 표현하였다. (나)에서 제시된 공간은 '산'과 '들'이며 이곳은 온갖 새들의 소리로 들썩이고 있지만, 화자는 이와 대조되어 적막강산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다)의 <2장>에서 시적화자의 처지는 '솔'에 빗대어 드러나고 있고, <4장>에서 '제비'는 화자의 시름을 보여주는 소재로 등장하였으며, <5장>에서 '명월'은 화자의 반가운 옛 벗으로, <6장>의 매화는 화자를 대변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시각의 대립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 작품에는 이러한 시각의 대립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 것(부근이 그다지도 날랠시고)도 (다)밖에 없다. ③ (나)의 산과 들에서 온갖 새들이 들썩이는 소리에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④ (다)에서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 ⑤ 명암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것의 대비가 나타난 것은 (가)와 (나)뿐이다.

8) 4
추론적 사고(시적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떠돌이 나그네의 신세이기에 어디론가 가야 하지만, 오라는 곳이 없어 갈 바를 모른다. 비록 고향이 있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고향은 갈 수 없는 곳이기에 화자의 외로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화자와 달리 공중의 기러기는 가고 싶은 곳을 잘 가고 있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9) 4
추론적 사고(핵심 시어에 대한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산'과 '들'은 모두 새들의 온갖 소리로 들썩이는 공간이기에 서로 상반되기보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산'과 '들'은 오히려 '적막강산'에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야생 배추가 여물어 가는 때이기에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산'과 '벌'의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적막강산'에 있다고 하여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

10) 5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비교 분석)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나)의 시에는 서술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 연에서 알 수 있듯이 적막강산에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길'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기에 소재라 할 수 있다. 반면 (나)의 '적막강산'은 사실 온갖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주 곽산'은 화자의 고향이라고 했다. '정주 동림' 은 '구십여 리 하룻길'이라 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실제 이 길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갈린 길'은 갈림길이기에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하룻길'은 길을 가는 데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 길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11) 2
추론적 사고(시적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귀양살이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야 한다.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풀려나야 할 것이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임금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귀양지에서 쓴 작품 속에 임금(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임금의 사랑이 깊으면 다시 볼까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충제충신을 강조하기에 충의 마음은 엿볼 수 있지만, 임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 ③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며 귀양살이하는 자신의 신세에 한숨을 쉬고 있다. ④ 화자는 들보 위의 제비를 보며 시름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명월을 보며 옛 친구를 만난 듯이 반가워하고 있다.

12) 3
추론적 사고(화자의 대상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벌은 소리에 들썩이는 반면 화자는 홀로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3장>에서 귀양살이하는 화자는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고 한숨에 겨워하고 있기에 이 역시 화자와 대상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1장>에서 '효제충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이다. ② <2장>에서 '솔'은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5장>에서 화자는 '명월'을 벗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6장>에서 '매화'는 화자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13) 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다.
5장의 '인간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라는 구절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4장에서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찾아볼 수 없다. ③ 6장에서는 점층적인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4장과 5장은 현재 귀양살이 중인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6장에서는 '설월', '매화'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매화는 충절과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로, 매화의 향기는 귀양살이를 오기 전 화자의 삶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풀어낸 시름'은 '적객'이 '벗이 없'는 외로운 귀양살이의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정서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제비를 보며 자신의 시름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② '신의'는 믿음과 의리로, 화자는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명월의 모습에서 신의 있는 벗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③ '명월'을 '너'로 지칭하며 인격을 부여하는 모습과 '매화'를 보기 위해 '잔을 잡고 창을 여'는 것에서 자연물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④ 모진 추위 속에 꽃을 피워내는 매화에 조선 사대부들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임금에 대한 충절과 지조의 이념을 투사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2
[출제의도]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널로만 하노라'와 연결되어 제비가 '종일' 사설을 풀어내는 것보다 자신의 시름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은 멀리 유배 온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간 데마다 따라오'는 '명월'에 대한 신의를 강화한다.
[오답풀이] ① ㉠과 ㉡ 모두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심리적 거리감은 ㉠이 아니라 ㉡을 통해 드러난다. ④ ㉠은 내면의 시름을 풀어내어 해소하는 시간이며, ㉡은 화자가 있는 유배지와 '인간' 간

의 거리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⑤ ㉠과 ㉡ 모두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앞날을 헤아려 보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다.

16)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새로운 도성인 한양과 개국 군주인 태조에 대해, (나)는 '사우(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대해, (다)는 문화유산인 석굴암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이다. ③ (가)와 (나)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만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이 나타나고 있다. ⑤ (나)는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를 제시한 후 이에 굴하지 않는 '사우'의 속성과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는 관련이 없다.

17) 5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청빈한 삶'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하게 지내는 삶을 의미하는데,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언급하여'는 이와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솔'이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임이 반갑다는 의미로 자연물에 대한 감탄을,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미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②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솔'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석굴암 앞문에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③ '그윽한 향기'는 매화에 대한, '어여쁜 파란 산들'은 석굴암 밖의 경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것이다. ④ 대나무를 보려고 창을 연 후 '대숲이 푸르러셰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원하는 사물을 본 상황이다.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글쓴이가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18)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기국셩왕이 셩딕를 니르어샷다'는 개국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임금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는 없다.
[오답풀이] ① '녜논 양쥬ㅣ 쇼올히여'는 한양의 옛 지명이 양주임을 밝히는 것이고, '당금셩'은 지금의 경치라는 의미이므로 한양의 현재 풍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녜논'이 과거의 표지, '당금'이 현재의 표지가 된다.

19) 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나)의 <제1수>의 '풍상'과 '봄빛', <제2수>의 '춘광'과 '엄상', <제3수>의 '눈', <제4수>의 '백설'이 계절감을 활용한 시어이다. (나)는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시련의 계절을 맞아 의연함을 보이는 '사우'의 모습을 통해 '사우'에 내재된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동작을 묘사한 것은 <제4수>이다. ② <제2수>, <제3수>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한 부분은 없다. ③ 색채 대비는 <제4수>에만 나타나며, 이는 '사우'의 장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0) 5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석굴암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주위의 절경을 '선경'으로, 동해의 일출 광경을 '선경중에서도 선경'으로 비유하였다. 하지만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속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홀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에서 생생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신품'이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한 것이다.

21) 1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어머니'가 '누이'에게 '마우재 말'을 들려 주셨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년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내던 동지의 밤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불안과 공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와 (나) 두 작품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다)의 '남산(南山)의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도록 날랠시고'에서는 화자를 '솔'에 빗대고 있으며, '난 후'에 인목대비 사건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2) 5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연에서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는 표현은 화자가 놓인 처지를 드러내는 구절이다. 화자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지닌 신념과는 무관한 구절이다.

23) 4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의 어머니가 '종잇장 같은 내 배' 즉 화자의 배를 쓸어내리는 행위는 치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어머니의 모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듯 어머니의 모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부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성의 부재는 작품 전반에 그대로 유지된다.

24) 1
[출제의도] 유사한 소재의 기능을 변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떠올린 이미지이다. 멧비둘기는 새처럼 날아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환기한다. ㉡은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서 느끼는 마음 즉 시름을 환기한다. ㉢은 유배지에 묶여 있는 화자와는 달리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러한 제비를 보며 화자는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한숨 겨워한다.
[오답풀이] ④ ㉠과 ㉡이 화자에게 긍정적 소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하지는 않는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쓸쓸한 마음은 정서이지 가치가 아니다.

25) 2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로'는 남산에 있다 사라진 '솔'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남산에 많던 솔이 사라진 것을 중장의 '도끼가 그대도록 날랠시고'와 연관 지어 보면, 그것이 도끼에 베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솔을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로는, 솔을 남산에 있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이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보면 유배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6) 3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바람'이라는 무생물을 의지를 지닌 생물처럼 '문풍지를 더듬'는다고 표현하여, 화자가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였던 '동지의 밤'의 분위기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는 시어는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삽살개'가 짖는 청각적 이미지와 '눈포래에 얼어붙'는다고 하는 시각 또는 촉각적 이미지가 '섣달 그믐'의 분위기를 잘 그려주고 있다. ④ '은빛 금속'이 갖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서리'가 갖는 의미가 선명해졌다.

2부 적용 학습 1. 인문 예술 (6)

환경 관리주의, 사회 생태주의, 근본 생태주의, 심층 생태론, 과타리, 생태 철학, 주체성 형성, 동질 발생, 이질 발생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상 과학 영화 속의 사이보그를 보면, 인간과 똑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듯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인간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 즉 비인간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고유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17세기 데카르트는 동물과 인간의 몸은 유사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유물론이나 진화론 등이 대두되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계 장치의 이식이나 유전자 변이에 의해 강화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 소위 '포스트휴먼'이 등장하면서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인공팔과 인공망막 등이 신체에 이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 지능의 개발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 기계 인간인 사이보그가 등장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제 인간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인간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 환경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면 기계에 대한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 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 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31403B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특정 관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ㄴ. 대상과 관련된 상반된 이론들을 절충하고 있다.
ㄷ. 가설을 세운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ㄹ.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암울한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②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기보다는 그러한 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③ 인간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하여 비인간과 구분되는 속성을 찾아내야 한다.
④ 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인간은 기계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⑤ 합리적 사고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3)<보기>는 어떤 영화의 줄거리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미래의 어느 날, 지구는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해 황폐화되고 인류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는 사이보그 T_1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T_1은 병에 걸리거나 늙지 않으며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다. 인간은 그들의 노동력 제공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인간의 아이들은 사이보그 T_1에게 교육을 받으며 인류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① 과학 기술로 만들어 낸 사이보그 T_1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포스트휴먼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인간처럼 사유하는 사이보그 T_1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인간이 사이보그 T_1의 노동력 없이 살 수 없게 된 것은 과학 기술이 만든 환경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인간이 사이보그 T_1에게 교육을 받게 된 것은 비인간이 인간의 도구에 국한되지 않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⑤ 사이보그 T_1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고유의 인간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헤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하였다.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이자 이성 중심주의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 즉 ㉠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 '존재하는 것(존재자)'을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존재자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존재자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전체 연관성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31303A

4)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헤겔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②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③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④ 환경론자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폐해보다는 인간 삶에 닥친 위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⑤ 하이데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 ㉠과 ㉡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는 ㉠에 근거하고 있다.
② 근대 철학에서 ㉠은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생성되었다.
③ ㉠으로 인해 ㉡의 본원적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다.
④ ㉡의 본원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을 극복해야 한다.
⑤ ㉡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성과 유일성을 갖는다.

6)글쓴이가 윗글에서 <보기>를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보 기 >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사유하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의식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충동과 욕망 같은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① 하이데거의 '존재자'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②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논거로 삼는다.
③ 근대 철학에서 '주체'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배경을 밝힌다.
④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거로 삼는다.
⑤ 하이데거의 '새로운 사유'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우활가-정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가]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춥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웃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팥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萇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솥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나]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협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여일려냐

[B]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표 :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항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싸리피, 바랭이 :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31609

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② ㉡ :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③ ㉢ :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④ ㉣ : 솥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⑤ ㉤ :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9)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싸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⑤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솥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A]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憂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읠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협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여읠려냐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돋을볕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B]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셔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2211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④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11)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① ㉠은 파종할 볍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② ㉡은 솥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 밤 부든 바람 금성(金聲)이 완연(宛然)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 깊이 든 밤 상사몽(相思夢) 훌쩍 깨여
㉠ 죽창(竹窓)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
천연한 이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A]
심사도 창연(悵然)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을 알리는 듯 ┐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를 머금은 듯 [B]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꾀꼬리 이미 돌아가고 ┐
소월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슬피운다 [C]
임 여희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 [D]
(중략)
지척 동방 천 리되어 바라보기 묘연(杳然)하고
은하작교(銀河鵲橋) 끈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 인정이 끈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耳目)에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 가득한데 끝끝치 느끼워라
하물며 이는 ㉢ 추풍(秋風) 별회(別懷)를 부쳐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마는
유유별한(悠悠別恨)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愁聲)이라 ┐
아해야 술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E]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나)

녯 사ᄅᆞᆷ 이젯 사ᄅᆞᆷ 이목구비(耳目口鼻) ᄀᆞᆺ것마ᄂᆞᆫ
나 ᄒᆞᆫ자 엇디 ᄒᆞ야 녯 사ᄅᆞᆷ을 그리ᄂᆞᆫ고
이제도 녯 사ᄅᆞᆷ 겨시니 긔 내 벗인가 ᄒᆞ노라
<제1수>

청송(靑松)으로 울흘 삼고 ㉣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로고
초옥삼간(草屋三間)이 숨어 겨신 져 내 벗님
흉중(胸中)에 사념(邪念)이 업스니 그를 ᄉᆞ랑ᄒᆞ노라
<제4수>

벗님 사ᄂᆞᆫ 땅을 ᄉᆡᆼ각고 ᄇᆞ라보니
용추동(龍湫洞) 밧씨오 구룸ᄃᆞ리 우희로다
밤마다 외로운 ᄭᅮᆷ만 호자 ᄃᆞᆫ녀 오노라
<제5수>

ᄆᆡ는 첩첩(疊疊)ᄒᆞ고 구룸은 자자시니
고인(故人)의 집 땅이 ᄇᆞ라도 볼셩업다
ᄆᆞ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ᄒᆞ노라
<제7수>

㉤ 상산(商山)의 영지(靈芝) 캐러 구태여 녯이 가리런가
좃츠 리 업슨듸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世上)의 어즈러온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月谷答歌)」

31907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② ㉡ :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다.
③ ㉢ :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④ ㉣ :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⑤ ㉤ : 화자가 연모하는 임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15)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B] :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C] :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D] :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⑤ [E] :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우도(友道)'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①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②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③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룸ᄃᆞ리' 위를 'ᄭᅮᆷ'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군.

④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미'와 '구룸'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와 '구룸'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⑤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즈러온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1) 2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ㄱ. 글 전체에 걸쳐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ㄹ. 3문단 이후로 포스트휴먼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2)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문단에서 필자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5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5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를 보면, 사이보그는 늙지 않고 병도 들지 않으며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물론 사이보그가 인체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대 사회에 제시된 고유의 인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② 3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양상을 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는 인간이 기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의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기계가 더 이상 인간의 도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거나 더 나아가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사이보그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인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 사이보그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4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환경론자들이 과학기술주의로 인한 자연 파괴와 그로 인한 인간의 삶의 위기 모두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론자들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는 지문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5) 2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근대 철학의 '계산적 사유'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이는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인 인간 중심주의이자 이성 중심주의의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계산적 사유'가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2
[출제의도] 자료의 활용 방안을 구상한다.
<보기>에 따르면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의식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이러한 '주체'의 의식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7) 5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봄이 되어 농사를 지으려니 농기구도 없어서 빌려와야 하고, 농기구를 빌려 와 씨앗을 찾아보니 볍씨 한 말은 쥐가 반 이상 먹어버렸고, 기장, 피, 조, 팥은 겨우 서너 되 남아 있어 춥고 굶주린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과 탄식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전송하면서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라고 하니, (가난귀신이) 불평하며 화를 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이별할 일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며 우는 듯 꾸짖는 듯 협박하는 의인화된 가난귀신과 화자와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가난귀신의 말에 설득적 어조가 있지만, 이것을 화자의 의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에는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구체적인 소재(쟁기, 호미, 올벼, 기장, 피, 조, 팥 등)가 열거되어 있고, [나]에는 추상적인 소재(가난귀신)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궁핍한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대화 형식으로 드러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라는 표현에서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가]에는 농기구도 없고, 농사지을 씨앗도 없고, 남은 곡식도 없다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로, 이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그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이지, 가난을 핑계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은 종들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은 남들에게는 (예년에 비해) 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의복이 제대로 없는 자신에게는 춥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⑤ ㉤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 온 친척들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다.

9) 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하늘이 만든 자신의 가난한 인생에 대해 '이다지도 괴로운고'라며 탄식하고 있고, [B]에서 화자는 빈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며 가난에 대해 체념하며 수용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② 나기 싫지도 않은지 너무도 잘 나는 잡초 '싸리피 바랭이'는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낙관적 세계관이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는 화자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곡 장리, 부역, 세금 등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괴로운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으며, '설마한들 어이하리'에는 우월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이 얼굴 지녀 있어'는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도 배고프고, 겨울에도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베틀 북도 솥 시루도 쓸 일이 없으며, 제사도 못 지내고 손님 접대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빈천도 내 분수니'는 자신감이 약화된 표현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체념과 수용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

10) 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의 계절적 배경은 '춘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을 배경으로 하여 파종할 볍씨도 부족하고, 끼니조차 잇기 어려우며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기 곤란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1) 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12)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 원근 친척 내빈왕객은 어이하여 접대할꼬'는 화자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거나 죄책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흠모하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태도가, (나)에서는 흠모하는 벗을 만날 수 없는 화자가 부재하는 벗을 그리워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화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⑤ (가), (나) 모두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모습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와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14) 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
'추풍(秋風)'은 임과의 이별로 인해 '별회'를 느끼는 화자에게 이별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① ㉠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임의 부재에서 오는 화자의 막막함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소재이다. ② ㉡은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아니라 임과 화자가 나누었던 사랑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④ ㉣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속세에서 벗어나 은둔하는 삶을 사는 벗의 친자연적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⑤ ㉤은 연모하는 임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벗과 함께 있고 싶은 공간이다.

15) 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
[E]에서는 대상으로 '아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아해'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에게 '술'을 따라 주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① [A]에서는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찬 기운'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정원에 ~ 알리는 듯', '추국에 ~ 머금은 듯'에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임을 떠나보낸 화자의 정서와 쓸쓸한 가을의 분위기를 조응시켜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C]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가을 잔나비'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슬픈 정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D]에서는 '삼춘에 ~ 꿈이련가'에서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임과 함께하던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6)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ᄆᆡ', '구룸'은 작가가 벗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ᄆᆡ'와 '구룸'을 매개로 작가가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① 작가는 '월곡'을 '벗'으로 설정하여 그의 충의적 삶과 친자연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작가는 자연 속에서 '사념' 없이 살아가는 벗의 맑고 깨끗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③ 작가는 현실적으로는 갈 수 없는 '구룸ᄃᆞ리' 위를 '꿈' 속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만날 수 없는 벗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작가는 '나'와 '벗'을 '우리'라는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드러내며, '어즈러온 일'은 듣지도 보지도 말자고 함으로써 혼탁한 현실을 경계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부 적용 학습 1. 인문 예술 (7)

지멜, 르네상스 초상화, 렘브란트, 개체성, 형식 법칙, 총체성, 개별성, 객관 문화, 주관 문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칸트는 '인간(人間)'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인간성을 '인격(人格)'이라 불렀고,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 보았다.

셸러는 칸트의 이러한 견해가 인간의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의 개별성을 간과하고 인간을 몰개성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인격 개념을 제시하였다. 셸러는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인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의 통일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셸러의 인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감정에 관한 셸러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셸러는 가치가 경험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치에는 객관적인 위계질서가 있는데 재화, 도구처럼 유용함과 관련된 가치는 낮은 가치이며, 도덕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높은 가치라고 구분하면서 이러한 가치의 위계질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셸러는 감정에도 객관적인 위계질서가 있으며, 낮은 감정은 그에 대응하는 낮은 가치를, 높은 감정은 높은 가치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인격은 이러한 감정작용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善)을 실현할 수도 있고, 또 낮은 가치를 선택하여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셸러에 의하면 이처럼 가치의 위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감정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이 처한 내외적 상황에 따라 그러한 선천적 감정의 지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셸러는 가치 선택의 순간에서 내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선(善)이고, 이렇게 인간을 선(善)으로 이끄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셸러는 미움이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미움으로 인해 인간은 가치들 간의 위계를 잘못 파악하는 가치 왜곡에 빠지거나, 더 높은 가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가치 맹목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셸러는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므로 인격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이란 사랑을 통해 항상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善)을 실현하는 감정작용이라 보았다. 따라서 셸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감정을 통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덕 교육의 토대를 정립했다.

21609

1)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인격에 대한 칸트의 견해
② 셸러가 말하는 가치의 특징
③ 셸러가 말하는 도덕 교육의 한계
④ 셸러의 논의에 나타난 감정의 역할
⑤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셸러의 관점

2) 윗글에 나타난 셸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격과 감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② 감정과 가치는 모두 객관적인 위계질서를 지닌다.
③ 가치 왜곡은 가치의 위계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④ 미움의 감정은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
⑤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의 차이가 나타난다.

3) 윗글의 셸러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희가 사는 동네에는 A와 B, 두 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다. A는 영희의 집에서 가깝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제3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산된 원두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B는 A보다 거리도 멀고 가격도 비싸지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한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 영희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① 영희가 커피 전문점 A에서 커피를 구입한다면 영희는 낮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겠군.
② 영희가 비싼 가격에 상관없이 커피 전문점 B를 선택한다면,'선(善)'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영희가 커피 전문점 A를 선택하는 것도, B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 '인격'의 감정작용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④ 영희가 고민 없이 커피 전문점 B가 아닌 A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이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이겠군.
⑤ 영희가 갈등을 하지 않고 커피 전문점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높은 감정'이 이끈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춤, 시, 음악, 건축, 회화, 조각 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enthousiasmos)'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techne)'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보통 '엔투시아스모스'는 '열광', '열정'을 의미하고 '테크네'는 '기술', '제작'을 의미한다.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 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엔투시아스모스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사제가 신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신과 교감하는 열광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춤, 시, 음악이 ㉠ 나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다. 또 회화와 조각이 실물의 모방이기 때문에 이 모방은 실물의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왜곡을 사용한 모방, 즉 환상의 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인간에 의한 소산이라기보다는 신과의 교감에 의해서 얻은 메시지에 가까운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과는 더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데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테크네를 발휘하여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는데 회화와 조각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 이후 예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 속에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다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투시아스모스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적 존재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 자신의 상상력, 무의식 등과 관련되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테크네의 가치는 사실주의에 의해서 부각된다.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 이데아: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原形).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초월적인 실재로서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

31704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실 세계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② 고대 그리스인들은 테크네가 신적 존재와 무관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③ 플라톤은 인간이 테크네를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 작품과 회화 작품의 창작 기원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⑤ 고대 그리스인들은 종교 행사에서 행한 몸짓, 언어 등의 활동이 인간을 엔투시아스모스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5)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표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 분	엔투시아스모스	테크네
고대 그리스인	㉮	㉯
플라톤	㉰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인간의 능력
낭만주의	㉱	
사실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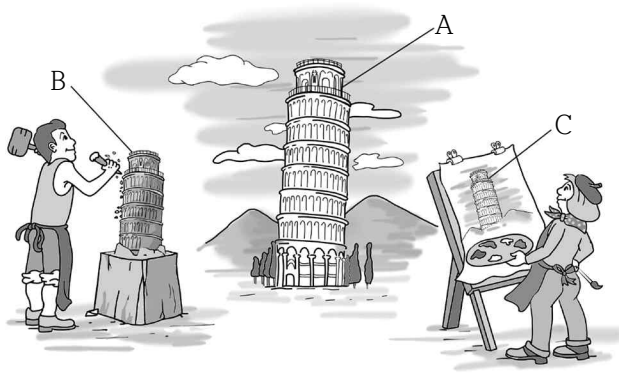
① ㉮: 종교 행사에서 사제를 제외한 참가자들이 겪는 열광적인 상태
② ㉯: 인간이 규칙 체계를 따르며 행하는 제작에 필요한 지적 능력
③ ㉰: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④ ㉱: 인간의 감정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에 강조한 개념
⑤ ㉲: 정확한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강조한 개념

6) ⓐ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작의 기원	특 징
①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의 의식적인 상상력의 산물임
②	엔투시아스모스	현실 세계와 동일한 내용이 표현됨
③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임
④	테크네	현실 세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님
⑤	테크네	교감을 통해 얻게 된 신의 메시지임

7)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 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 C 모두를 지적 능력의 소산으로 보았겠군.
② 플라톤은 A가 지닌 가치를 B, C가 지닌 가치와 다르게 규정했겠군.
③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를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여겼겠군.
④ 플라톤은 B, 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겠군.
⑤ 플라톤은 C가 A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겠군.

8)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세잔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① 플라톤은 세잔과 달리 사물의 본질이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있군.
② 세잔은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군.
③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사물의 형태에서 유발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④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추상적인 묘사를 사용한 작품 창작에 대해 비판하고 있군.
⑤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군.

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이 상품은 시장에 <u>나온</u> 후에 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② 상대가 비열하게 <u>나오면</u>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③ 우리 학교 신문에 내 친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u>나왔다</u>.
④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밖으로 <u>나오지</u> 않는다.
⑤ 경기에서 상대에게 진 것은 욕심에서 <u>나온</u> 그의 행동 때문이다.

적용 학습-고전 시가16

농가월령가-정학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西天)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의 들거고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 패고 염을 들어 고개 숙여
㉠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 송이 산호 같은 고추 다래
처마의 널었으니 가을볕 명랑하다
ⓐ 안팎 마당 닦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 가지오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다래 산과로다
뒷동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명주를 끊어 내여 추양에 마전하고*
쪽 들이고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자녀의 혼수하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 -

* 발채 망구 : 농사 도구들.
* 마전하고 : 표백하고. * 마로 재어 : 재단하여.

(나)

ⓓ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대
우리 임은 어듸 가고 답교할 줄 모로난고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듸잔듸 솩입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듸 우리 임은 어듸 가고
춘기 든 줄 모로난고
삼월 삼일 날의
ⓔ 강남셔 나온 제비 왓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흣날린다
우리 임은 어듸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로난고
[A]
사월 초파일에
관등하려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遠近) 고저(高低)의
석양은 빗겻는대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꼿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우희 천녀(天女)로다 배등 집등 산듸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獅子) 탄 체괄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노 툭 차 구을등에 일월등 밝아 잇고
칠성등 버러난듸 동령(東嶺)의 월상(月上)하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임은 어듸 가고
관등(觀燈)할 줄 모로난고

- 작자 미상, 「관등가」 -

* 답교 : 다리를 밟는 풍속.
* 임고대하니 : 높은 곳에 오르니.

(다)

서리병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뎅이를 내두르며 아그작 아그작 걷는 어미 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어미 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 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 주곤 했던 것이다. 오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열 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중략)

[B]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강가에는 빙렬(氷裂)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 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抱卵)의 인고가 끝나고 십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줄탁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 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햇순、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르죽어 있던 ㉡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으레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짝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북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 때문이다.

- 현기영, 「신생」 -

* 서리병아리 : 이른 가을에 알에서 깬 병아리.

31910

1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1)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②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⑤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재하는 임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녀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① ⓐ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는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는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는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③ ㉠은 내적 갈등의 해소와, ㉡은 내적 갈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④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⑤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①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②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솔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군.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④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군.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을 통해,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남구만-

(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는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쬘 대로 쬔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위백규, 「농가(農歌)」-

(다)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볕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품 진:품앗이를 한.
*둘러내자:휘감아서 걷어 내자.
*부룩: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31506A

15)(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다)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② (나)의 <제2수>에는 생성의 이미지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16)㉠~㉤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밝아 오는 '동창'과 '노고지리'의 지저귐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③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④ ㉣:'비 온 끝에 볕'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17)(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② (나)에는 (다)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③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⑤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1)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셸러의 인격 개념과 이러한 셸러의 인격관이 도덕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1문단에서 인격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셸러가 말하는 가치는 선험적이며 위계질서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 4문단에서 셸러는 인간의 감정이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셸러가 칸트의 인격 개념을 이성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셸러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정이고, 그러한 감정작용의 통일체가 인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감정과 인격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 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셸러는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희가 A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이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셸러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닌다. ② 비싼 가격이라는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B를 선택한 것은 높은 가치로 이끄는 감정에 의한 것이며 이는 선을 실현한 행동이다. ③ 3문단에서 인격은, 감정작용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을 실현할 수도 있고, 낮은 가치를 선택하여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와 B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는 모두 인격의 감정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높은 감정은 높은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영희가 갈등을 하지 않고 B를 선택한 것은 높은 감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의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를 보면 플라톤은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테크네가 아니라 '이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를 보면 적절하다. ② 3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1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와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를 보면 적절하다. ⑤ 2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5) 1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를 보면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의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를 보면 적절하다. ④ 5문단의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⑤ 5문단의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를 보면 적절하다.

6) 3
[출제의도] 특정 대상에 대한 철학자의 관점 파악하기
4문단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시가 엔투시아스모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엔투시아스모스가 '이성'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시를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3문단의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다.'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을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실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 회화, 조각을 모두 지적 능력인 테크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4문단의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건축의 가치를 조각과 회화의 가치보다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를 보면 플라톤은 조각과 회화를 제작할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4문단의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회화가 실물인 건축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8) 5
[출제의도] 서로 다른 두 관점 비교하기
4문단의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와 <보기>의 '세잔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를 보면 플라톤과 세잔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문맥상 '어떠한 근원에서 발생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새 상품이 시장에 나타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겉으로 드러내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안에서 밖으로 오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가)는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백곡의 이삭 패고' 등의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나무마다 춘기 들고 잔듸잔듸 솩입 나니', '이화도화 만발하고 행화방초 흣날린다' 등의 표현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봄을 맞이하여 떠올린 신생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체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봄 병아리', '노란 봄빛', '봄기운', '봄의 햇살' 등의 소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11) 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A]의 화자는 사월 초파일에 자신이 바라보는 다양한 등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B]의 글쓴이는 부화하거나 빙렬 현상이 발생할 때 시각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청각적으로 소리가 나는 달걀과 얼음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화자는 지상에서 다양한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B]의 글쓴이도 천상의 사물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화자는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며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는 것이지, 재회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B]의 글쓴이도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④ [A]의 화자는 관등을 위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지,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⑤ [A]의 화자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세시 풍속인 관등의 행사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처지이므로,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고독감을 느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B]의 글쓴이가 직접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만족감을 느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 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는 봄을 맞아 강남에서 제비가 날아오고, 기러기가 떠나는 계절적 정황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별의 정한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나)의 각 달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임은 어듸 가고 ~줄 모로난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화자의 한과 슬픔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수확과 관련한 농사일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잘 익은 밤을 모아 말려서 나중에 필요한 철에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위해 수의를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효의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나이 많은 부모님의 수의를 준비하는 관습은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다. ④ 정월 상원일의 '답교'는 화자가 그 풍속을 즐기는 소년들의 행락(行樂)을 부러워하며, 부재하는 임을 떠올리는 상사의 매개가 되고 있다.

13) 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다)의 글쓴이는 ㉡과 관련해 '노란 털북숭이 봄 병아리'를 떠올리고 있다. ㉠은 가을에 곡식이 익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회상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은 현재 곡식이 익은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③ ㉠과 ㉡에 화자가 내적 갈등을 느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과 ㉡에서 인

생의 무상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과 ㉡에 종교적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다)의 글쓴이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생명력을 발휘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라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의 모습은 모성애와 관련이 있다.

15) 5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노고지리 우지진다', (나)의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다)의 '뻐국새 자주 울고'와 '꾀꼬리 노래한다'와 같은 표현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다)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② (나)의 <제2수>는 농가의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생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는 초여름을 배경으로, 자연에 넘쳐흐르는 생명력을 그려 보이고 있으므로 '소멸의 이미지'와는 무관하다. ③ (나)의 <제3수>는 부지런히 일한 뒤에 누리는 휴식의 기쁨을 묘사한 작품으로,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제4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16) 4
정답해설 : (다)에 묘사된 '비 온 끝에 볕'이 나는 '화창'한 날씨는 '4월이 농사일을 하기에 적절한 때(농사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때)'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농사일의 괴로움'과는 무관하다.
[오답피하기] ① ㉠은 지금이 밭일을 나가야 할 이른 아침임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② ㉡은 농사일을 하러 나가는 농가의 일상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은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과 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며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농가의 식구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 집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농번기의 농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 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된 작품은 (다)이다. (다)는 4월에 심고 기를 만한 작물로 목화, 수수, 동부, 녹두, 참깨를 열거하고 있다. (나)에는 이러한 작물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나)의 <제4수>에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다)는 그 달에 해야 할 농사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휴식의 즐거움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다)는 (나)와 달리, '보리', '수수' 등 먹는 것과 '누에치기', '목화' 등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나타나 있다. ④ (나)와 (다)의 화자는 '건강한 노동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을 묘사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모두 농촌을 배경으로, 일하는 농부들의 일상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2부 적용 학습 1. 인문 예술 (8)

아방가르드, 카지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블라디미르 타톨린, 구축주의, 순수한 감상, 이콘화, 현대 추상 미술, 미니멀 아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불안, 인간 소외 등 예술적 정서나 의미를 과도하게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

이 사조는 예술 표현이 단순할수록 오히려 현실 세계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단순성의 원리'와 인간의 지각은 총체적으로 이해된다는 '확장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술 양상은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로, 건축에서는 단순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성과 확장성의 원리는 특히 조형물에서 잘 나타난다.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의 최소화를 통한 '단순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매개의 최소화는 작품의 재료, 소재, 형태 등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상,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작품에 사용되는 매개가 적고 단순할수록 감상자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감상자의 인식 속의 보편적 형상과 일치시키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둘째,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은 기하 추상에 의한 '확장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이 놓인 공간은 작품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놓인 공간은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그 작품이 놓인 공간의 관련성 속에서 감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하 추상에 의한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은 기존의 조형물이 설치된 방식과 달리 주로 바닥에 배치된다. 이로써 작품 자체가 놓인 공간과 감상자가 서 있는 장소는 관람만을 위한 전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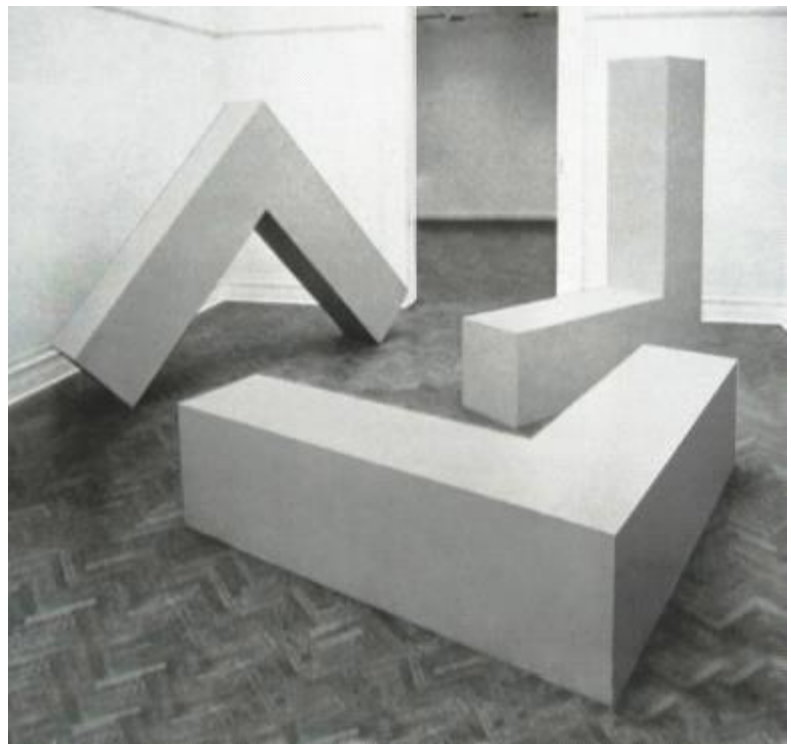
3 1 3 0 4 b

1)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미니멀리즘 음악은 일정한 강세 및 빠르기를 사용한다.
② 미니멀리즘 조형은 매개 요소를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한다.
③ 오브제 트루베는 미니멀리즘 조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④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
⑤ 미니멀리즘은 절제된 표현에 의해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다.

2)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무제-L빔들>은 로버트 모리스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회색 빛깔의 두꺼운 나무로 된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배치하여 작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①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
② L빔들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감상자는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겠군.
③ 감상자는 배치되어 있는 L빔들을 감상할 때,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주위의 배경으로 시선이 확대되겠군.
④ 실제 산업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개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군.
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매개요소로 사용하여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더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게 하는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 ~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이는 17세기 과학 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중세의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지배하는 것이다.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된다.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다.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轉化)*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며 애도하였다.

* 알레고리 : A를 말하기 위해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A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전화 : 질적으로 바뀌어서 달리 됨.

(나)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

표현주의는 한 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는 화가 노트 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할 수 있다.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붓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훗날 선이나형, 색 등의 조형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 아방가르드 :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주장한 예술 운동.

22203

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②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③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4) ㉠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움직임을 옹호하고 있다.
②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③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④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⑤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 Ⓐ, Ⓑ에 해당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는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보고,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세이렌의 일화

바다 요정 세이렌은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 제물로 삼는다. 세이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 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 달라고 애원하지만,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 무사히 섬을 지나간다.

	Ⓐ	Ⓑ
①	인간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②	인간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③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바
④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⑤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대 이성에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②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등장한 예술 운동이다.

③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다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⑤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었다.

7)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뭉크, 「절규」

① (가) :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가) :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나) :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군.

④ (나) :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나) :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색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8)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② ⓑ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③ ⓒ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름.

④ ⓓ :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⑤ ⓔ :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2부 적용 학습-고전 시가 (17)

시집살이 노래-작자미상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떱뎁까.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샐세.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31406

9)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10)㉠~㉤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1)[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져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鷰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楡槐老多穴　느릅나무 홰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楡穴鸛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홰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

(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떱뎁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楸)*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샐세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 그것도 소(沼)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 당추 : 고추의 한 종류
* 도리소반 : 둥글게 생긴 작은 밥상
* 비사리춤 : 싸리나무의 껍질
* 반물치마 : 짙은 남색 치마
* 소 : 작은 연못

21906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13) ⓐ ~ ⓔ 중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수업 시간에 정약용의 「고시」가 조선 후기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을 드러낸 작품임을 배웠어. 이 작품에서 ⓐ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을 상징하고, ⓑ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상징해. ⓒ 피지배층의 고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어. ⓓ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 이 작품을 통해 ⓔ 작가는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어.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집살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하는 아녀자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한 민요이다. 이 작품 속 여인은 대하기 어려운 시집 식구와 과중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① ㉠에서 '고추', '당추'와 비교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군.
② ㉡에서 '오 리'와 '십 리'를 활용하여 감당해야 할 노동이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군.
③ ㉢에서 '호랑새'와 '꾸중새'를 활용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하기 힘든 존재로 표현하고 있군.
④ ㉣에서 '배꽃'과 '호박꽃'을 대비하여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군.
⑤ ㉤에서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군.

1) 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미니멀리즘은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재료, 소재, 형태 등의 매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가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기 쉽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 두 번째 문장의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 네 번째 문장의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 다섯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의 특징은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는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바닥에 배치한 것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시선을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이동시켜 감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 작품이 놓인 공간을 관람만을 위한 전망대로서가 아닌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으로 만들어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 마지막 문장의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 네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 여섯 번째 문장의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단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은 감상자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3
[출제의도] 글의 흐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근대 사회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아도르노의 주장을, (나)는 근대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과 물질문명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표현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두글 모두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오답풀이] ① 근대 사회의 문제는 제시되어 있으나,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글이므로, 근대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④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에 대한 내용은(가)에만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어가기위한 노력은 두 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2
[출제의도] 인용된 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에서 '야만의 싹'이란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④ 인간이인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계몽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아도르노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인간을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 세이렌은 인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 세이렌 일화를 분석하면,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세이렌의 제물이 되지 않고 섬을 무사히 지난 것은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섬을 무사히 지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감각을 상실시키고 오로지 노를 젓게만든 결과, 부하들이 자율성과 비판적 능력을 상실한채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것은 노랫소리에 이끌리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억압한 것이므로 이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6) 3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서 마티스는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가 주장한표현의 의미가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2문단의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라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감상한다.2, 3문단에 의하면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는 회화의 전통을 거부하고, 대상의 색이나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감정이나 감각을표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작품에서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의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였다는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의 작품에서 나타내려고 한 감정은 작가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이는 근대 이성에 의해 억압되어 온 인간의 감정, 즉 내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와 같이 표현주의가 등장하게 된근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표현주의는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의 형태를 왜곡하여 나타낸다. 의 작품에서남자의 얼굴이 해골의 형상을 한 것이나 강물이 꿈틀거리는 모습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다. 따라서 작품에서 강물을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강물의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느끼는 고통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미명'의 사전적 의미는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이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에 해당하는 단어는 '규명'이다.
9) 2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솥',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뾰족새', '뾰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벙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헝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11) 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

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2) 2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황새'와 '뱀'에 의해 '제비'가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가), (나) 모두 반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과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⑤ (가), (나)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지 않는다.

13) 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그치지 않는 제비의 울음소리로 피지배계층인 백성의 고통을 표현하였으나, 현실에 굴하지 않는 백성들의 꿋꿋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② 당시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황새'와 '뱀'이 '제비'를 괴롭히는 내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집 없는 서러움'에서 피지배층의 고난을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작가는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화적 기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태도는 맞지만, 화자를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고추', '당추'와 비교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오 리'와 '십 리'를 통해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표현하므로 적절하다.

③ 대하기 힘든 존재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호랑새'와 '꾸중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배꽃'은 이전 자신의 모습, '호박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초라해진 현재 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조선 궁중 의식, 음악과 정재, 봉래의, 전인자, 후인자,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세종대왕, 용비어천가, 궁중 의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역법의 ⓐ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서경(書經)』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보*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에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 놓은 계산표이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운행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14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 정비했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추보법 가령』이다. 이 책은 정묘년(1447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은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영,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했다.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그러므로 영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라 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항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항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 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사신 박안기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향력』이 완성되었다.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산 내편』, 『정향력』 등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추보 : 천체의 운행을 관측함.

31903(인문과학복합)

1)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상수시의 개념을 소개하고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여 역법 제작에 응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②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천문과 역법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그것이 끼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⑤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2)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② 조선은 교식 추보 이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③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주도와 통제 아래 역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④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알고자 역법을 마련했다.
⑤ 조선은 역법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체계를 수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3)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으나, 신(臣) 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세종실록』권49

(나) (세종께서) "이 일의 요체는 북극출지의 고하(한양의 위도)를 정하는 데 있느니 먼저 간의를 만들어 올림이 좋겠다."하시므로, …(중략)…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북극출지 38도소를 정하니,『원사(元史)』의 측정값과 부합하였으므로 마침내 구리를 녹여 부어 간의를 만들었다.

-『세종실록』권77

(다) 수시력과 통궤의 체계에 근거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것을 가려 뽑고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을 더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하고,『칠정산 내편』이라고 했다. …(중략)… 수시력이나 통궤법의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 이순지,『사여전도통궤』발문(세종 26년)

① (가) :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 선명력을 사용해 교식을 추보할 때 오차가 컸겠군.
② (가) : 세종 12년의 교식 추보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한 것이군.
③ (나) :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에서 천체 관측 기구가 제작되었겠군.
④ (다) :『칠정산 내편』편찬에 기반이 되었던 중국의 역법으로는 수시력을 들 수 있겠군.
⑤ (다) : 세종과 이순지 모두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우리나라의 주야각 입성과 다르다고 생각했겠군.

4)<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정묘년(1447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으로, 경삭이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교식 추보법 가령』의 추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4.99였다.

① 정묘년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②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가감차 값은『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교식 추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③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에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④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⑤ 정묘년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추보하기 위해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② ㉡ :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 :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고 간주했다.
④ ㉣ : '질차'는 음의 값을, '지차'는 양의 값을 가진다고 보았다.
⑤ ㉤ :『교식 추보법 가령』의 속도항 값이 음의 값을 가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6)ⓐ ~ ⓔ의 사전적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
② ⓑ :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③ ⓒ :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춤.
④ ⓓ :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룸.
⑤ ⓔ :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섬. 또는 그렇게 함.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화(中華)사상은 한족(漢族)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이다.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하여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17세기에 이민족이 ⓐ 세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였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였다.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禽獸)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으로 이어졌다.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다. 그중 홍대용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보았다. 이런 생각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그가 저술한 「을병연행록」에서도 발견된다.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 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 주는 것은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이다.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 우주설을 주장하였다.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206

7)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는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이다. 학생의 활동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문단까지 읽고 내용을 정리한 후,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며 읽어 보자.

읽은 내용 정리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남.……①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함.……②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고, 그중 홍대용은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의산문답』을 저술함.

⬇

이어질 내용 예측	확인 결과
○홍대용이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이다.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깨달음.……③
○『의산문답』의 내용이 언급될 것이다.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설명함.……④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파 학자들의 사상이 언급될 것이다.	언급되지 않음.……⑤

8) <보기>의 대화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 천지 사이의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동물과 초목은 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오륜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고, 초목은 동물보다 천합니다.

을: 오륜은 사람의 예의입니다. 무리 지어 다니고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입니다.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습니다.

① 갑은 귀한 대상과 천한 대상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송시열과 공통점이 있다.

②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을이 동물과 초목이 각자의 예의가 있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④ 을이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⑤ 을이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9) ㉠과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을 통해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② ㉠과 ㉡은 청을 오랑캐라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었다.
③ ㉠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었고, ㉡은 척화론의 바탕이 되었다.
④ ㉡은 홍대용이 ㉠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학설이다.
⑤ ㉡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을 홍대용이 발전시킨 것이다.

10) <보기>는 심화 학습을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가), (나)에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중극 의관이 변한 지 이미 100년이 넘은지라 지금 찬하에 오직 우리 조선만이 오히려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거늘,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가련치 않겠는가? (중략) 슬프다!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 백 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홍대용. 「을병연행록」-
(나)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다 동등한 국가이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그가 쓴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은 당연하다. 그가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더라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곳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춘추」가 나왔을 것이다.
-홍대용, 「의산문답」-

① (가) :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홍대용이 중화 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 :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에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었음을 알 수 있군.
③ (가) :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에서, 홍대용이 청나라와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나) :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⑤ (나) :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11) 문맥상 ⓐ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그는 새로운 회사를 <u>세웠다.</u>
② 국가의 기강을 바로 <u>세워야</u> 한다.
③ 집을 지을 구체적인 방안을 <u>세웠다</u>.
④ 두 귀를 쫑긋 <u>세우고</u> 말소리를 들었다.
⑤ 도끼날을 잘 <u>세워야</u> 나무를 쉽게 벨 수 있다.

기녀반-허난설헌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원래 소박하셨던 아버님은 읍내 출입이 있을 때마다 40리나 되는 먼 길을 아예 걷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길을 뜨셨다가 으레껏 황혼이 지나서야 오셨다. 심한 경우는 백 리가 넘는 전주 나들이도 보행을 마다하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겨우 열 살을 지난 뒤부터 시작한 마중이 제법 익숙해졌다. 외지에 나와 중학을 다닐 때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올 때면 나는 이 마중 같은 일로 학자(學資)*를 토색질하던 불계수(不計數)*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확실히 그런 예우가 있고 나면 책값을 주실 때 관대하셨다. 그리고 우람스런 머슴을 앞세우고 깜박이는 초롱불로 길을 밝히면서도 도깨비 얘기나 들으면서 오싹오싹한 밤길을 걷는 데 짜릿한 재미도 약간 느끼곤 했었다.

그 밤도 그러한 몇 가지 속셈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목적을 위해선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굳혔었다. 이윽고 멀리 펄럭이는 하얀 두루마기를 보곤, 평소 응석 한 번 부려 보지 못하고 자란 주제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형제는 장신의 아버지 뒤를 따라 졸랑졸랑 돌아왔다. 여느 아빠처럼 두 팔에 형제를 거느리고 사탕이라도 한 개 속주머니에서 꺼내 주셨으면 했지만, 그렇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립다. 도연명(陶淵明)이가 낙향할 때 문간에서 마중했던 그의 치자(稚子)보다 우린 더욱 어리석어서 먼 길을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우리들 자식이 원행(遠行)의 아버님을 마중하던 곳은 먼 고개를 넘어 돌들이 산을 이룬 성황 고개요, 비단물이 반짝이는 청강수(淸江水) 징검다리요, 숨이 깔딱이는 높은 비석재였다. 요즘처럼 편리하게시리 문전에서 영송하는 것은 사무적이어서 싫다. 통금 5분 전에 귀가하는 탕부(蕩父)나 낭아(浪兒)가 아닌데도 벨소릴 듣고서야 슬리퍼를 끌며 발발이와 함께 문을 열어 주는 그런 것은 더욱 싫다. <중략>

살벌한 오늘의 서울에서도 때로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는 초저녁 주택가 입구를 스치면, 많은 아주머니나 어린 자녀들이 우산을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풍경을 본다. 지금쯤 어느 대폿집에서 술타령하는 남편이나 아빠를 기다리는 뜨겁고 목마른 풍경을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승달이 지고 까맣게 어두운 고개에서, 지금은 다시 뵈올 수 없는 아버지의 하얀 두루마기를 기다리느라 우리 형제가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디었던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

- 허세욱,「 초승달이 질 때 」-

* 학자(學資) : 학비

** 불계수(不計數) :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나)

三三五五(삼삼 오오) 冶遊園(야유원)에 새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없이 나가 있어, 白馬金鞭(백마금편)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긋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 열두 때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은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픠여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 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 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허난설헌,「 규원가 」-

* 蟋蟀(실솔) : 귀뚜라미

(다)

聊將月老訴冥府　월하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
來世夫妻易地爲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我死君生千里外　나는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서,
使君知有此心悲　그대에게 이 슬픔 알게 했으면.

- 김정희,「 배소만처상(配所輓妻喪) 」-

30710

12)(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다)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② (가)는 과거 상황을, (나)는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가)에는 세태 비판이, (나)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④ (가)와 (다)에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
⑤ (나)와 (다)의 화자는 독백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13) (가) ~ (다)의 화자 '갑、을、병'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갑] : 제가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당신[을]도 임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군요.
② [을] : 하지만 사계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고통스럽네요.
③ [병] : 그래도 저와는 달리 당신[을]은 보고 싶은 사람을 이승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④ [을] :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만남의 기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⑤ [병] : 결국 당신[을]이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14)(나)의 ⓐ와 <보기>의 '실솔'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님 글인 想思夢(상사몽)이 ⓑ 蟋蟀(실솔)의 넉시되야
秋夜長(추야장) 긴픈 밤에 님의 房(방)에 드럿다가
날 닛고 깁히 든 줌을 씨와 볼가 ᄒᆞ노라.　- 박효관 -

① ⓐ는 지조와, ⓑ는 변절과 관련이 있다.
② ⓐ는 능동적 존재이고, ⓑ는 수동적 존재이다.
③ ⓐ는 회상의 대상이고, ⓑ는 회상의 매개체이다.
④ ⓐ는 비유적 의미로, ⓑ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는 화자의 슬픔을, ⓑ는 화자의 그리움을 내포하고 있다.

15)[A]를 시나리오로 고쳐 쓸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S#10. 밤길

초롱불을 든 머슴을 따라 두 형제가 캄캄한 길을 걷고 있다.

동생: 형, 아버지가 오늘 전주에 가신다고 했지.

세욱: ㉮ 응,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오시니까 늦으시나 봐. ㉯ (독백으로) 책을 몇 권 사야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하면 책값을 주시지 않을까.

동생: ㉰ (앞에 가는 머슴을 보며) 아저씨,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하나 해 주세요.

머슴: 그럴까요.

이때 앞쪽에 하얀 두루마기가 어렴풋이 보인다. 형제는 반색을 하며 동시에 '아버지'를 부른다. 어둠을 뚫고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버지: ㉱ (형제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어이구 이 녀석들, 무서운데 집에 있지 왜 여기까지 나왔어.

S#11. 서재

성인이 된 세욱이 사진첩을 넘겨 아버지의 사진을 찾고 있다. 아버지의 사진 C.U.

세욱: ㉲ (사진을 들여다 보며)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네.

① ㉮ ② ㉯ ③ ㉰ ④ ㉱ ⑤ ㉲

16)(다)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

< 보 기 >

견우 직녀도 이 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 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베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베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에 나눠 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핫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 도종환,「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① 내적 갈등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② 시적 대상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오를 성찰하고 있다.
⑤ 성실한 삶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 년 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顔)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랴
(중략)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가락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 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않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섧다
세상(世上)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 군자 호구: 군자의 좋은 배필.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
* 화표: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위가 있음.

31507A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 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② '스스로 참괴하니'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③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군.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19) 윗글과 <보기>의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만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 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뵌 듯하여라

- 이정환, 「비가(悲歌)」 제1수 -

* 요양: 청나라 심양.
* 학가 선용: '왕세자가 타던 수레'와 '신선의 용모'를 뜻하는 말로,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이름.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③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⑤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된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골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A 시작]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괼소냐 -[A 끝]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B 시작]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고-[B 끝]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라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옳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쭉** 하나니
- 작자 미상 -

32209

20)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1)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2)<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 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⑤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나)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지는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바람만이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피었던 꽃들이 오늘 이울고 있습니다.

- 도종환, 「가을비」-

(다)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뜨락에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
못 위의 연꽃은 시들어도 밤까지 향기 여전하고
우물가의 **오동잎은 떨어져** 그림자 없는 가을.
물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서풍 타고 울리는데
발(簾) 밖에는 서리 내려 밤벌레만 시끄럽구나.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낸 뒤
옥관* 임의 꿈을 깨니 ㉡비단 장막은 허전하다.
먼 길 나그네에게 부치려고 **임의 옷을 재단하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힐 뿐.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 써놓았는데**
역사* 내일 아침 남쪽 동네로 전해준다네.
옷과 편지 봉하고 뜨락에 나서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네**.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

紗幮寒逼殘宵永　　露下虛庭玉屛冷
池荷粉褪夜有香　　井梧葉下秋無影
丁東玉漏響西風　　簾外霜多啼夕蟲
金刀剪下機中素　　玉關夢斷羅帷空
裁作衣裳寄遠客　　悄悄蘭燈明暗壁
含啼寫得一封書　　驛使明朝發南陌
裁封已就步中庭　　耿耿銀河明曉星
寒衾轉輾不成寐　　落月多情窺畵屛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

* 옥관: 옥문관(국경을 지키러 간 남편이 있는 공간)
* 역사: 편지를 전하는 사람

11009

2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공간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24)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고향'은 현실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담은 정신적 안식처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찾은 현실적인 고향은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정신적인 안식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다. 이 시는 정신적인 고향과 현실적 고향 사이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① '고향'은 화자가 현실에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③ '항구로 떠도는 구름'은 자신이 추구하는 고향을 찾지 못한 화자의 정신적 방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④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인한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⑤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잃어버렸던 유년의 꿈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책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②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④ ㉡은 ㉠과 달리,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26) <보기>를 참조하여 (나)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선생님: 시를 영상물로 제작할 때에는 작품에 대해 감상한 바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시적 화자를 구체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시를 둘러싼 분위기와 여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 요소가 부차적인 것으로 물러앉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의미가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단풍이 든 숲에 빗방울 소리를 음향 효과로 넣어 계절적 분위기를 드러내자.

⇓

② 숲이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사랑하던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어.

⇓

③ 주인공이 혼자 바라보는 낙엽에 임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

④ 남녀가 머물렀던 숲에 찾아오는 다른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을 대비시켜 주인공의 절망감을 강조하자.

⇓

⑤ 피었던 꽃이 시드는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만남과 헤어짐이 삶의 보편적 모습임을 암시하는 것이 좋겠어.

27)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②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으로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④ 대구적 표현을 반복하여 정형적 운율미를 드러낸다.
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28)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라는 표현에는 화자의 외로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② '오동잎은 떨어져'라는 표현은 하강의 이미지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임의 옷을 재단하니'와 '편지 한 장 써놓았는데'라는 표현에는 임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④ '반짝이는 은하수'와 '새벽별만 밝네'라는 표현에는 임과 지내던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라는 표현에서, '지는 달'은 잠 못 이루는 화자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1) 3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먼저 『서경(書經)』의 '관상수시'라는 말을 활용해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이러한 유교적 관점에 따라 역법을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역법이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관상수시'의 뜻을 소개하고 있지만,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문과 역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조선의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교식 추보 방법에 있어 조선이 당시 유럽 천문학보다 우수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2) 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관상수시'는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는 중국의 역법인 선명력과 수시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역법인 수시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려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칠정산 내편』은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이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칠정산'은 교식 추보에 필요한 태양과 달의 운동뿐 아니라, 다섯 행성의 운동도 계산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교식 추보 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 했다. ③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역법의 운용과 역서 발행을 중요한 국가 통치 행위로 여겨 국가 주도로 역법의 연구를 수행했다. ④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⑤ 조선은 『칠정산 내편』 등의 역법 확립으로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3)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가)는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지만, '수시력법을 연구'한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고 자부했다가, '그러나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2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가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그 해결책을 찾고자 연구한 결과로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편찬되었다.
[오답풀이] ①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다고 했는데, 1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조선에서 교식을 추보할 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로 보아 '북극출지의 고하'를 정하기 위해 '간의'를 '나무'로 만들었다가 '구리'를 녹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2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천체 관측 기구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로 보아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는 데, 수시력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수시력은 중국의 역법이다. ⑤ (다)의 발문을 쓴 '이순지'는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조선의 입성이 달랐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4) 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보기>는 정묘년(1447년) 8월 교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축이며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축차이며 음의 값이다.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역시 달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지차이며 음의 값이다. <보기>에 의하면 정묘년 8월 경삭에서 영축차 값과 지질차 값 모두 음의 값이므로 가감차 값은 양의 값이 된다. 따라서 정삭을 추보할 때 가감차 값을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보다 뒤처져 있었을 것이다. ② 가감차 값에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속도항 값에는 두 가령이 차이가 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를,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그러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고, 가감차 값은 『교식 추보법 가령』이 더 컸을 것이다. ④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축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는 정삭이 아니라 정망이다.

5) 3
[출제의도]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이해한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으로,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세종은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양에서의 주야각 입성을 추보하려 했다. ② 북반구에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질차'는 양의 값을, '지차'는 음의 값을 가진다. ⑤ 달이 태양보다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이동하므로 『교식 추보법 가령』의 속도항 값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6) 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 '통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함.'이다. ②에 제시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은 '통찰'의 사전적 의미이다.

7)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하늘이 둥글다는 것은 전통적인 천지관이며, 홍대용이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깨달은 점이아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자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② 2문단에서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자 조선의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④ 3문단에서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을 설명하고 있다.⑤ 이 글에서는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파 학자들의사상이 언급되지 않는다.

8) 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갑의 말은 사람이 귀한 존재이고 동물이 천한 존재이므로 이들이 같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신분이 낮은 자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천한 신분이라도 능력에 따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갑의 말과는 다른 생각이다.
[오답풀이] ① 갑은 사람을 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동물과 초목은 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송시열또한 중국과 인류를 귀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랑캐와금수는 천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③ 을의 말은 동물과 초목도 각자 기준이 될 수 있다는것이며, 이는 모든 국가와 문화, 사람이 각자 중심이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홍대용 사상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공통점이 있다.④ 을의 말은 정해진 관점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각자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연결될 수있다.⑤ 을의 말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땅을 보면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다.

9) 4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내용 파악하기
2, 3문단에서 홍대용은 ㉠에서 벗어나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이라고하였다.
[오답풀이] ① ㉠은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은것이 맞지만, ㉡은 ㉠에 어긋나는 학설이다.② ㉠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지만, ㉡은 아니다.③ ㉠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지만, ㉡은 척화론과 관련이 없다.⑤ ㉠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맞지만, ㉡이 ㉠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10) 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파악하기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므로 주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홍대용의 생각을보여 주는 것으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중화사상과는 다른 생각이다.
[오답풀이] ①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것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②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조선이 중화였던 명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로 생각했었음을 보여 준다.③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은, 오랑캐로 여겨졌던 청나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⑤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은, 주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을 알 수 있다.

11) 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와 ①의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생기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하거나 짜다.'라는 의미이다.③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라는 의미이다.④ '처져 있던 것을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하다.'라는 의미이다.⑤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12) 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유배지에서 아내의 부고를 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낸 (다)에는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에서는 비관적 인식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아버지에 대한, (나)에는 자신을

찾지 않는 남편에 대한, (다)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13) 4
[출제의도]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소식이야 더욱 알랴'라는 구절로 볼 때, (나)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14) 5
[출제의도] 시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화자의 한과 슬픔을 담고 있으며, ⓑ는 화자의 분신으로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15) 4
[출제 의도] 작품을 다른 장르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아버지는 엄하고 잔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분이므로, ④는 원작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풀이] ⑤ [A]의 뒷부분에 나오는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립다'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장면이다.

16) 2
[출제의도] 공통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아내와 사별한 슬픔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17) 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소상야우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 천 년의 별학이 울고 있는 듯'과 같이 대구법이 사용되었지만, 녹기금 연주소리에 대한 표현일 뿐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18)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천상의 견우직녀'는 화자의 상황과 달리 일 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본문의 '꿈'은 그리운 임을 보기 위한 수단이며 <보기>의 '꿈' 역시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이다.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은 현실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⑤ 현실의 문제가 꿈을 통해 극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20) 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빈화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베오리', '북' 등 베틀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화자는 이들 소재가 베를 짤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빗대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 등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이라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겨울밤 차고 찬 제', '여름날 길고 길 제'와 '자최눈 섯거 치고', '궂은비는 무슨 일고',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과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등의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1) 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 남편(임)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과거에 남편과 혼인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③ ㉠은 과거의 회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비롯된 행동으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 앞에 나오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 등을 통해 ㉠은 화자와 남편의 인연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겠다는 재회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화자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22)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뉘 귀에 들리소니'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이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솔'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소나무'의 모습과 임이 그리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어 울며 '후루룩 비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삼춘화류 호시절' 은 봄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데, 화자가 여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운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버들'은 화자가 그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화자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4) 5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그리던 고향을 보지 못해 허망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5) 5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의 '숲'과 ㉡의 '비단 장막'은 모두 사랑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6) 4
[출제의도]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4연은 주인공이 겪은 경험이 일반화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대비를 통해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1
[출제의도] 표현상 공통점 파악하기
(가)와 (나)는 모두 처음 연과 끝 연의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어 형태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8) 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은하수', '새벽별'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옷과 편지를 봉한 후 본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부 적용 학습 1. 인문 예술 (10)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근대주권, 임무니타스, 무누스, 코무니타스, 홉스, 사회 계약론, 자연권, 면역 패러다임, 도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당 방위에는 두 가지 기본 사상이 깔려 있다. 그 하나가 자기 보존의 사상이다. 누구나 타인의 위법한 공격에 직면할 때 자기 자신 또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 향유(享有)하는 이익이 눈앞에서 위법.부당한 공격으로 침해되는 것을 보고서도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는 것이냐'라고 달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은 보통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경우 자기 보존을 위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킬 선제 공격이나 기선을 ⓑ 제압(制壓)하는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방위는 개인의 자기 보존 사상 외에도 법이 무엇인가를 확충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밑에 깔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법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자는 이로써 법 질서 전체의 효력까지도 방어하는 것이다. 이 사상을 옛날부터 '부정(不正) 대 정(正)의 원칙'이라고 불러 왔다. 즉 법은 불법에 양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것이 부당한 것에 길을 비켜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법 질서 전체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방위의 옳음에 대한 ⓒ 신봉(信奉) 때문에 정당 방위는 가차 없는 방어 수단을 들이대도 허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침해 받은 이익이 재산적 가치밖에 없는 것인데도 방어 수단으로는 그 공격자의 인명에 손해를 가해도 허용된다.

정당 방위의 이 같은 과단성(果斷性)*이 제대로 인식된 것은 우리 법문화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 방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아직도 큰 이익과 작은 이익의 갈등 사이를 비교하려는 법익 교량(法益較量)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부정(不正) 대 정(正)의 사상은 피해자가 도망할 수 있는 경우에 도망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게 공격한 경우까지도 허용하는 입장이다. 부당한 공격에 정당한 것이 길을 비켜야 할 이유가 없듯 공격을 당하는 자에게 비겁하게 도망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당 방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기 보전과 법 질서의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칙적인 금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정당 방위가 당당히 나서서 꼭 실현해야 할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격한 정당 방위에도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먼저 방어 행위는 사실상 방어의 필요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방어자는 위법한 공격에 대해 불안전한 방어 수단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주먹으로 방어해도 될 일에 무기를 사용했다 해서 언제나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어자는 공격을 확실하고 위험 없이 막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중 가장 ⓓ 경미(輕微)한 것으로도 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방어 행위는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여야 한다. 법 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방어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요구된 행위이기 위해서는 ㉠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相當性)**이 있어야 한다. 방어 행위에 의해 ⓔ 야기(惹起)된 손해가 공격 위험에 비해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룰 때 정당 방위의 자기 보전 근거가 탈락된다. 만약 이 같은 극단적 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방어 행위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권리 남용일 뿐 정당 방위는 아니다.

*과단성 : 일을 딱 잘라 결정하는 성질

**상당성 : 어떤 일이 어떤 경우나 상태에 알맞거나 합당한 상태를 이루는 것

20611

1) 글쓴이의 집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당 방위의 한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② 정당 방위의 기본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③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④ 정당 방위의 사상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
⑤ 정당 방위의 자기 방어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2) <보기>에 나타난 '길동이'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다.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보 기〉

시장에서 길동이와 꺽정이의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질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로 싸움은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분을 삭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시장에서 볼 일을 다 본 후 집으로 가던 길동이는 골목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꺽정이를 만났다. 꺽정이는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감정이 격해졌고, 순간 길동이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휘둘러 꺽정이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자기 보존의 사상을 취한 행위라고 생각해.
② 공격 위험에 대비해 방어 행위가 과격하게 표출된 경우로 권리남용이라 생각해.
③ 상대방의 공격에 적극적인 방어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최선의 행동이라 생각해.
④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도망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해.
⑤ 법질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不正)대 정(正)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3)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 방위는 법 질서상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이어야 한다.
② 방어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이어야 한다.
③ 방어 행위는 침해된 법익과 보호된 법익 간의 극단적인 불균형이 금지되어야 한다.
④ 방어 행위는 가급적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정당 방위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향유(享有) - 누려서 가짐
② ⓑ 제압(制壓) - 압력을 넣어 위협함
③ ⓒ 신봉(信奉) - 옳다고 믿고 받듦
④ ⓓ 경미(輕微) - 가볍고도 극히 적음
⑤ ⓔ 야기(惹起)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에서 '자연'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개념에는 자연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태나 특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연이라는 개념에 부여되는 의미는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했는데, 근대에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였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 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관은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 왔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

㉠ 니체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는 홉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홉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자연일 뿐이다.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의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였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몸'으로서의 인간에게 육체의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니체는 이러한 '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배제하고 이성적 활동만을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육체의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시 찾아 더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31804

5)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사례를 통해 특정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③ 특정 이론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하고 그 이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④ 특정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따르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⑤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6) <보기>에 대해 윗글의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마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에 마을 책임자인 A 씨는 주민들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 B 씨의 친구는 돈을 노리고 B 씨에게 접근하여 그를 위하는 척하다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B 씨를 배신했다. 이후 B 씨는 살던 도시를 등지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살았다. 그러나 산 속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여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 C 씨는 어린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남녀의 유별(有別)을 중시하는 도덕의식을 과도하게 강요하였다. 그래서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녀 간의 사랑에 어려움을 겪었다.

① 홉스: A 씨가 책임자로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식량을 얻으려고 싸우는 상황을 보니 자연 상태에서와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군.
② 홉스: A 씨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보다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③ 루소: B 씨가 산 속에서의 삶에 불편함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온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보여주는군.
④ 루소: B 씨의 친구가 B 씨에게 한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삶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⑤ 니체: C 씨가 도덕을 바탕으로 아들의 본능을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아들은 성인이 되어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넘치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군.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홉스와 루소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자연 개념을 구축하였다.
②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국가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이 완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③ 홉스는 자연보다 인간의 문명에, 루소는 인간의 문명보다 자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였다.
④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 홉스는 자연을 악한 것으로, 루소는 자연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자연 그 자체를 간과하였다.
⑤ 자연이 지닌 긍정적 가치에 대해 홉스는 인간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루소는 인간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규정하였다.

8) ⓐ에 대한 '니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어 비롯된 결과이다.
② ⓐ는 인간이 자연을 해석과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③ ⓐ는 도덕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④ ⓐ는 끊임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⑤ ⓐ는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9) 윗글과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데카르트와 메를르 퐁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라고 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가진 '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취했다. 반면 메를르 퐁티는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하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므로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 되는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① 니체와 데카르트는 모두 이분법적 관점으로 독립적 실체인 '몸' 개념을 설명하고 있군.
② 니체와 메를르 퐁티는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군.
③ 데카르트는 니체와 달리,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군.
④ 메를르 퐁티는 니체와 달리, '작은 이성'이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⑤ 니체는 메를르 퐁티와 달리, '큰 이성'이라는 개념이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군.

2부 적용 학습 2.현대시 (1)

초혼-김소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가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山)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가네 내 못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不歸)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 -

* 촉도지난 :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율포의 기억」 -

31410b

10)(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김소월은 땅, 집, 고향 등을 모티프로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힘이나 상황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로 그려진다. 김소월은 이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① 1연 :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2연 : '촉도지난'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③ 3연 : '새가 되면'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통해, 귀향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④ 4연 :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실향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⑤ 5연 : '못 벗어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12)(나)의 ㉠, ㉡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순수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군.
②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③ ㉠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를 상징하고, ㉡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을 상징하는군.
④ ㉠은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하지만, ㉡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군.
⑤ ㉠은 화자가 미래에 살아갈 모습에 대해 상상하게 해 주고, ㉡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 떠 가나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 보습 :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의 일종.
* 산경 : 산에 있는 경작지.

(나)

[A]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B]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C]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D]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E]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리겠니

- 고재종,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

* 우듬지 : 나무줄기 꼭대기.
* 면면함 :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 있음.

31403b

13)(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②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④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1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② ㉡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③ ㉢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난다.
④ ㉣ : 유랑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⑤ ㉤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15)<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보 기 >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놓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듯 농촌 역시 생명력과 공동체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면면히 '겨울'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제목인 '면면함'은 이 시의 주제를 함축한다.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②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⑤ [A] ~ [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1) 3
[집필의 목적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우리나라 정당 방위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면 자기 보존 사상과 법이 무엇인가를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당 방위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방어의 필요성을 갖추고,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여야 한다며,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이다. 글쓴이의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볼 때,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밝힌 글이라고 할 수 있다.

2) 2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사례에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사례는 말다툼을 했던 길동이와 꺽정이가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진 길동이가 막대기를 휘둘러 꺽정이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주어진 공격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대응한 과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있는,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길동이의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닌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5
[용어 설명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용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쓴이는 정당 방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방어자가 방어 행위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5문단과 6문단에서 밝히고 있다. 방어 행위가 정당 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의 필요성을 갖추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가장 경미한 수단,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이어야 하며, 공격과 방어가 극단적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어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는 것은 위의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방어 행위이다.

4) 2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 글에 사용된 어휘 중 어려운 어휘를 묻는 문제이다. '제압(制壓)'의 사전적 의미는 '위력이나 위엄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함'으로 '제어하여 누르다'라는 의미이다.

5) 5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홉스와 루소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 두 철학자의 이론이 지닌 한계에 대해 비판한 니체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3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3문단의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를 보면, 루소는 자연에서의 삶을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를 보면 홉스가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2문단의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를 보면 홉스는 A 씨가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문단의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를 보면 루소는 B 씨의 친구가 B 씨에게 한 위선적인 행동에서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삶의 일면을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를 보면 니체가 C 씨가 도덕을 바탕으로 아들의 본능을 억압한 것을 아들이 넘치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다.

7) 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2문단과 3문단을 보면,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홉스와 루소는 상반되는 주장을 제시하는데, 이 주장의 바탕에는 홉스가 자연을 악한 것으로, 루소가 자연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그리고 4문단을 보면, 자연에 대한 두 철학자의 관점이 니체가 보기에는 도덕적 규정일 뿐이고, 니체는 그들이 제시하지 못한, 도덕적 규정 이전의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3문단을 보면,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자연 개념을 구축한 것은 루소의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을 보면, 홉스는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상적 인간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을 보면,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을 보면, 홉스는 자연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인간이 수용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5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의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 육체에 주목하였다.'를 보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를 보면 적절하다. ② 4문단의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4문단의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를 보면 적절하다. ④ 4문단의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와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를 보면 적절하다.

9) 2
[출제의도]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5문단의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와 <보기>의 '메를르 퐁티는 몸에 대한 ~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를 보면 니체와 메를르 퐁티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10) 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전체적으로 '삼수갑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상황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역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바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바다'를 '뻘밭'이 있는 공간과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무위한 해조음'이 있는 공간으로 구분하고 대비하였다.

11) 4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시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물도 많고 산 첩첩'은 '삼수갑산'의 모습을 형용한 표현이지, 화자가 떠난 고향의 모습을 형용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물도 많고 산 첩첩'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삼수갑산'의 지형적 특징으로 형용한 것이어서 고향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다.

12) 2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화자의 어머니는 화자를 데리고 뻘밭을 보여 주기 위해 바다로 갔다. 화자는 그곳에서 힘겹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는다. 이 시는 '검은 뻘밭'을 '푸른 물'과 대비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나는 동무들과 내가 ~ 꿈을 꾸었노라'에서, (나)는 '너 ~ 소리 들어 보았니'에서 각각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14) 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떠돌으랴'는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오답풀이] ① '꿈'에는 동무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② '집'의 상실과 '땅'의 부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집 잃은'을 통해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떠돌으랴'와 함께 유랑의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드러난다. ⑤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15) 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C]의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농촌의 모습이다. '나무'의 아픔은 곧 '마을(사람들)'의 아픔이다. '나무'의 흐느낌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를 통해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B]의 '상처투성이'의 '겨울' 나무와 [D]의 겨울을 이겨낸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나무가 대조적 상황을 보여준다. ③ [D],[E]에는 시련을 이겨낸 '나무'의 의연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④ [E]에서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윌슨, 사회 생물학,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 현실적 존재자, 공재, 합생, 객체적 불멸성, 개체 유전, 유전자 결정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학자인 윌슨은 21세기 과학 기술의 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느 한 가지 학문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다양한 학문 간 '통섭(統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통섭이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과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문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환원주의이다. 이는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윌슨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역시 자연과학으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자연과학으로 완벽히 포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운동을 물체와 땅 사이의 마찰력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사랑이나 사회조직의 작동을 호르몬이나 유전자와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윌슨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인문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섭이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인간은 자연물과 달리 자연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체의 낙하는 중력이라는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번지 점프와 같은 인간의 낙하는 중력보다는 신체 단련이나 즐거움 등 개인의 특별한 목적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탐구하는 대상의 본질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님을 지적한다.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은 물리적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대상 인식 방법인 관찰과 실험은 인문학에서는 대상의 본질을 연구하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인문학자들은 관찰 주체가 지닌 관점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관찰자의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처럼 자연과학과 명백한 경계선을 갖는 인문학적 관점이 윌슨의 생각처럼 자연과학으로 완전히 포섭되기란 어렵다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소통하여야 한다는 윌슨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그 소통의 방법이 통일된 지식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문 간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506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윌슨은 현상의 원인을 일관된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② 윌슨은 학문 간 통섭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③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정체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인문학자들은 물체의 낙하와 인간의 낙하를 동일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을 밝혀 내려는 이론이다.
②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쉽게 변화한다는 인식이다.
③ 대상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④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3) 윌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정서적 작용은 뇌의 화학적 작용의 결과임이 밝혀지고 있다.
② IT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속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③ 동물이 개체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④ 자동 번역 시스템이 고안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⑤ 인지심리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심리학적 동기가 밝혀지고 있다.

4)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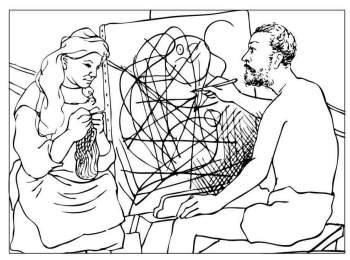


그림 속 화가는 눈앞에 앉은 모델과는 무관한 낙서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화가가 스케치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비밀은 모델의 동작에 있다. 모델은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바늘을 앞뒤로 움직이고 실타래를 매만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보이는데, 화가는 바로 모델의 동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① 화가의 스케치는 모델을 물리적 현상처럼 관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 화가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델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③ 화가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델의 객관적 실체를 대상의 본질로 인식한다.
④ 화가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관이 배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화가의 스케치는 대상의 본질과 무관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어떤 개체의 행동이나 상태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할 때에는 물리적 태세, 목적론적 태세, 지향적 태세라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소금을 물에 넣고, 물속의 소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물,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대상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통해 그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 '물리적 태세*'라 한다.

ⓑ '목적론적 태세'는 개체의 설계 목적이나 기능을 파악하여 그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가령 컴퓨터의 'F8' 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만 하면 'F8' 키를 누를 때 컴퓨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다. 즉 'F8' 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맞춤법을 검사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 '지향적 태세'는 지향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개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여기서 '지향성'이란 어떤 대상을 향한 개체의 의식, 신념, 욕망 등을 가리킨다.

가령 쥐의 왼쪽에 고양이가 나타났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물리적 태세를 취해 쥐의 물리적 구성 요소나 쥐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쥐가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개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목적론적 태세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쥐가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 개체라고 전제하고, 그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쥐는 생존 욕구에 의해 '왼쪽에 고양이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면 잡아먹힐 위험이 있다. 그러니 왼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쥐가 고양이가 있는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예측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쥐가 살아남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향적 태세를 취한다는 것은 예측 대상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유기체는 생존과 번성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지향성을 지닌다. 그리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된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유기체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지향성을 지니며 진화해 왔다. 지향적 태세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와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태세: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나 자세.

21311B

5)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를 서로 절충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④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⑤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6)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적론적 태세는 개체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겠군.
② 물리적 태세는 개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군.
③ 개체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지향적 태세를 취하는 전제가 되겠군.
④ 지향적 태세를 취하려면 인간만이 합리적 행동을 하는 개체라는 인식을 버려야겠군.
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체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겠군.

7)ⓐ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ㄱ. 달리던 자동차의 질량, 속도, 마찰력 등을 분석하여, 자동차가 급하게 정지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한다.
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ㄷ. 컴퓨터와 체스게임을 할 때 컴퓨터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유기체로 인식하여, 컴퓨터의 다음 수를 예측한다.
ㄹ.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가정할 때 외계인이 어떤 욕구에 의해 지구에 왔을지 고려하여, 어떤 행동들을 취할지 예측한다.

	ⓐ	ⓑ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ㄹ	ㄷ	ㄱ
④	ㄴ, ㄷ	ㄱ	ㄹ
⑤	ㄷ	ㄴ, ㄹ	ㄱ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개인과 집단에 적용시킨 사회 이론이다. 사회 진화론의 중심 개념은 19세기에 등장한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인데, 이 두 개념의 적용 범위가 개인인가 집단인가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와 결합하기도 하고 민족주의나 제국주의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186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 진화론자인 ㉠ 스펜서는 인간 사회의 생활은 개인 간의 '생존 경쟁'이며, 그 경쟁은 '적자생존'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스펜서는 가난한 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된 자'이므로 인위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빈부 격차는 사회 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가 확장되던 영국과 미국에서 자유 경쟁과 약육강식의 현실을 정당화하고, 개인주의적 정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19세기 말 ㉡ 키드, 피어슨 등은 인종이나 민족, 국가 등의 집단 단위로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적용하여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종 차별이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였다. 우생학과 결합한 사회 진화론은 앵글로 · 색슨 족이나 아리아 족의 문화적 · 생물학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지지함으로써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세기 말 ㉢ 문명 개화론자들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국가와 민족 단위에 적용하여 '약육강식' · '우승열패'의 논리를 바탕으로 서구식 근대 문명국가 건설과 군국주의를 역설하였다. 나아가 세계적인 대세에 잘 적응한 일본이 경쟁에서 뒤처진 조선

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주장을 전개했는데, 이는 나중에 식민사관으로 이어졌다.

사회 진화론은 구한말 개화파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윤치호 같은 일부 개화파는 강자에 의한 패배를 불가피한 숙명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선 망국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 박은식, 신채호 등 민족주의자들은 같은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자강론의 근거로 삼았다.

31110

8)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조선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
② 사회 진화론의 한계와 전망
③ 사회 진화론의 형성과 수용 양상
④ 생물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의 관계
⑤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에 미친 영향

9)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19세기 말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에서 더 환영받았다.
② 일본과 구한말 조선에서는 주로 개화론자들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였다.
③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④ 사회 진화론은 다른 학문들과 결합하면서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⑤ 스펜서는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개인 간의 자유 경쟁에 적용하여 개인주의적 정서를 강화하였다.

10)<보기>에 대한 ㉠ ~ ㉤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세기 말 일본에서 근대화된 방직 기계로 대량 생산된 면제품이 들어오면서 재래식 기계로 옷감을 짜는 조선의 수공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제 막 공장을 갖추어 가던 조선의 수공업자들은 도산하였으며, 이들의 도산으로 면화 재배 농민들도 잇달아 몰락하였다.

① ㉠ : 자유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도태된 조선인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군.
② ㉡ :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군.
③ ㉢ : 일본이 조선보다 앞서 서구식 근대 문명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군.
④ ㉣ : 기계 공업에 밀려 수공업자들과 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숙명이군.
⑤ ㉤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 경쟁에서 승리해야겠군.

이별가-박목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아아 경주역(慶州驛).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존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나라
백성. 고향사람들.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하늘 햇살속에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항렬을. 성(姓)받이를.

이제라도
갈까부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느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가부다

무슨 소리를.
발에는 족가(足枷)*.
손에는 쇠고랑이
귀양온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싯벌건 그 무늬를.

- 박목월, 「사향가(思鄕歌)」 -

* 족가: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형구.

(나)

㉠ 옷을 껴입듯 한겹 또 한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 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위를
㉤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 박남준, 「따뜻한 얼음」 -

31904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데, 이상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① '막막한 지역'에서 '영혼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에서 현실적 공간에 있으면서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군.
② '그나라'에서 '백성'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볼 수 있군.
③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모습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④ '새까만 밤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려는 화자가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것에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⑤ '귀양온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군.

1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31609

14)(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15)<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1) 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물체의 낙하는 중력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낙하는 중력보다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게 개입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윌슨은 현상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법칙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② 1문단과 5문단에서 윌슨이 통섭을 통해 현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3~5문단에서 윌슨의 통섭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인문학자들의 입장이 드러난다.

2) 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환원주의'는 통섭의 전제로 인문학이 자연과학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끌어낸다.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환원주의는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인문학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인문학적 속성과는 무관하다. ②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밝히려는 것으로, 이는 본질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③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객관적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⑤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바라봄으로써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활용하기
2문단에서 윌슨은 자연과학으로 인문학을 포섭하는 통섭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문학의 하나인 심리학의 문제를 뇌 과학으로 설명하는 사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④ 기술이 가져온 변화이다. ③ 생물학이 밝혀낸 사실이다. ⑤ 인문학이 가져온 변화이다.

4) 2
[출제의도] 사례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그림 속 화가는 모델을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모델의 형상이 아닌 모델의 동선에 있다. 이처럼 관찰의 결과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그림 속 화가의 태도는 인문학자들의 대상 인식과 닮은 점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은 인문학적 대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화가는 모델의 움직임을 자신의 관점에서 스케치하였다. ③ 화가는 대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모델의 객관적 실체를 관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화가가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주관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자연과학의 입장이다. ⑤ <보기>에서 화가의 스케치는 낙서가 아닌 모델의 동선에 초점을 두고 그린 그림이므로 본질과 무관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5) 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물리적 태세와 목적론적 태세 그리고 지향적 태세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다양한 관점을 절충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핵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6) 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지향적 태세를 취하려면 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쥐와 같은 유기체도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고 가정해야 하므로 인간만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① 개체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지향적 태세이다. ② 물리적 태세가 개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개체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목적론적 태세의 전제이다. ⑤ 개체는 생존과 성장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지향성을 지니므로 욕망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욕망을 키우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7) 1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기
<보기>의 ㄱ은 개체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그것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통해 개체의 변화를 예측하는 물리적 태세의 사례이다. ㄴ은 엘리베이터의 설계 목적이나 기능을 파악하여 개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전략인 목적론적 태세의 사례이다. ㄷ은 컴퓨터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행동을 예측하는 지향적 태세의 사례이다. ㄹ은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지향적 태세의 사례이다.

8) 3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이 글은 1단락에서 사회 진화론의 형성과 중심 개념을 소개하고, 2、3단락에서는 자본주의 및 우생학과 결합하여 수용된 양상을 소개하였으며, 4、5단락에서는 19세기 말 일본과 조선에 수용되는 양상을 드러내었으므로 ③이 중심 화제로 적절하다.

9) 1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확인한다.
3단락과 4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었다. 따라서 ①의 내용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0) 2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한다.
<보기>는 국가 간 산업 경쟁에서 승패가 갈린 사례이다. 근대화된 방직 기계를 앞세운 일본이 '생존 경쟁'에서 전근대적인 생산 방식을 지닌 조선에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열등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진화론의 논리에 어긋나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2단락에서 스펜서는 인간 사회의 생활을 개인 간의 생존 경쟁으로 파악했고, 인위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패자인 조선의 수공업자들과 면화 재배 농민들의 몰락이 당연하며, 이들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 4단락을 보면 문명 개화론자들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여 서구식 근대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들이라면 일본이 근대화된 방직 기계를 사용해서 조선의 재래식 기계를 압도한 것은 근대화에 앞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④ 강자에 대한 패배를 불가피한 숙명으로 인식한 윤치호 같은 인물은 조선의 수공업자나 농민들의 몰락을 어쩔 수 없는 일로 해석했을 것이다.

11) 3
[출제의도] 표현 방식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새까만 밤', '싯벌건 그 무늬'에서, (나)의 '푸른빛을 잃지 않고'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인 고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낸 것일 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막막한 지역'은 화자가 있는 현실적 공간을, '영혼의 나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을 드러내며, 5연에서 '이제라도 갈까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나라'는 고향을 의미하며 '그나라'의 '백성'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모습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새까만 밤을 달릴가부다'에서 고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것에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귀양온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통을 겪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4
[출제의도] 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에서 '쫓기고 내몰린 것들'은 고립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음'과 같은 존재가 '껴안'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옷을 껴입듯'이라는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추위가 더할수록' '두께가 깊어지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즉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제 몸의 온기란 온기'를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와 '그 빛나는 것이라니'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4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일까'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와 같이 변주하여 제시함으로써 나무가 연상시키는 고독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흰옷', '하얀 다리'등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병원', (나)에는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들이 일상의 공간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으며, 두 작품 모두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는 것에 가깝다. ⑤ (가)에서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15)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병원에서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여자의 병과 고통,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 화자가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를 원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여자'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에서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에게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의 고독한 모습과 자신의 내면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나무'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병을 앓는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성 → 조치원 → 공주 → 온양 →서울까지의 여행 중에 본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서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병원에 온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떠올리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떠올린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에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그 여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내고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통해 이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고독한 내면을 깨닫게 되고, '나무'들의 모습이 '외로워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여자'에게 공감을 느끼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를 통해 '여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게서 느꼈던 묵중하고 침울한, 고독한 모습이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깨닫는다. 이를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기론, 율곡 이이, 도덕 실천, 기정진, 운동 변화, 동일성, 다양성, 전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질서를 '이(理)'와 '기(氣)'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기론' 또는 '이기 철학'이라고도 부른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언제나 한결같지만 '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우주 만물의 원리는 그대로지만 형체는 다양하다. 이러한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기'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서경덕에 의하면, 태초에 '기'가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기와 양기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불과 물 등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기'는 어떤 외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 한다. 기일원론의 바탕에는, 현실 세계의 모습은 '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므로, '기'가 다시 움직이면 현실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 비판하며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며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이'는 하늘의 뜻, 즉 천도(天道)이며, 만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성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 사회는 천도에 맞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한다고 보았다. 현실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악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악한 마음은 인간의 생체적 욕구, 욕망 등인 '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기'가 하나일 수는 없으며, 둘은 철저히 ⓓ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 한다. 이황은 '이'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동*한다고 보았다. '이'가 발동하면 그에 따라 '기'도 작용하여 인간이나 사회는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만,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하면 인간이나 사회는 비도덕적 모습이 될 수 있다. 이황은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현실의 문제 상황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이'를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의 논의가 양극단을 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기'의 관계를 새롭게 ⓔ 규정하였다. 이이는 '이'를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로, '기'를 그 원리를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모나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물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이 그릇에 담겨 있지만 물과 그릇이 다른 존재이듯이, '이'와 '기'도 한 몸처럼 붙어 있지만 '이'와 '기'로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현실에 아무 작용을 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기보다는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 자체를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가 조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 발동(發動) : 일어나 움직임.

21706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철학적 용어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② 철학적 용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③ 문답의 형식을 통해 철학적 용어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가 등장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⑤ 철학적 용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2) 윗글을 참고할 때, 아래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경덕	이황
'이'와 '기'란 무엇인가?	'이'란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란 '이'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다.	
'이'와 '기'의 성격은 어떠한가?	ㄱ	ㄴ

① ㄱ : '이'와 '기'는 하나이다.
ㄴ : '이'와 '기'는 철저히 구분된다.

② ㄱ : '이'는 '기'와 별도로 작용한다.
ㄴ : '이'는 '기'와 동시에 작용한다.

③ ㄱ :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이다.
ㄴ :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기'이다.

④ ㄱ : '기'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ㄴ : '이'는 '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⑤ ㄱ :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본다.
ㄴ :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라고 본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이'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양반이 되어야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밤낮으로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고을 호적부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되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하면 양반이 되고, 두건을 쓰고 과거 시험장에 드나들면 양반이 된다. 몰래 불어나고, 암암리에 늘어나고, 해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불어나 장차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양반이 되고 말 것이다.

- 정약용, 「신포의(身布議)」 -

①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문제는 본성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이므로,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② 편법으로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백성을 이렇게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③ 백성들의 행동은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가 잘못되어 나타난 현상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④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모습은 음양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음양의 또 다른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⑤ 백성들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군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따르지 않도록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4)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내부적으로 미리 정함.
② ⓑ :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③ ⓒ :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함.
④ ⓓ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눔.
⑤ ⓔ : 내용이나 성격 따위를 밝혀 정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성리학의 리(理)와 기(氣)의 개념은 철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과 이이는 리와 기의 개념을 통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선악의 문제와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리가 원리.본질 등을 의미한다면 기는 현실 세계의 현상.재료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리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불상리(不相離)'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상이 곧 원리라고 할 수 없으며 재료가 곧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리는 리고 기는 기여서 서로 섞일 수 없는데, 이것을 '불상잡(不相雜)'이라고 한다. 불상리와 불상잡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황은 불상잡의 측면을 강조하여 리를 기로부터 분리한다. 그에게 리란 본연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며 ㉠공정(公正)하고 바른 마음이다. 반면에 기는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마음이며 기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그는 기질의 한계를 벗어나 ㉡선험적(先驗的)으로 주어진 리가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인간이 힘써 실천해야 할 ㉢당위(當爲)라고 생각했다. 즉 이황은 리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자 도덕 원리일 뿐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운동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또 터럭만큼의 나쁨도 섞이지 않은 성인의 모습을 원했고 그 근거를 리에서 ㉣도출(導出)해 냈다. 리의 본연성이 기의 작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성인이 되는 방법이라 보았으며 인간 사회에서 리의 발현을 통해 선의지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이는 근원적으로 리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리는 운동성이 없는 원리의 개념이며, 운동하는 것은 기뿐이라고 주장했다. 리는 스스로 ㉤발현(發顯)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나타날 때 원리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리는 모든 인간에게 무형무위한 원리로 보편적이지만 기는 유형유위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바르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한다. 선악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기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나타나면 악이 되고, 알맞게 발현되면 선이 된다고 보았다. 이이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리보다는 개별적인 기의 작용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런 점에서 기질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이는 기의 발현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21109

5) 위 글을 읽고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황	이이
①	본연성 중시	기질성 중시
②	리의 운동성 긍정	리의 운동성 부정
③	개별적 선의지 강조	보편적 선의지 강조
④	리의 현실적 실현 추구	기의 올바른 발현 추구
⑤	리와 기의 불상잡에 중점	리와 기의 불상리에 중점

6) 이황이 <보기>와 같이 말한 근거를 위 글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림별곡(翰林別曲) 같은 부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교만하고 방탕한데다 비루하게 희롱하고 절도 없이 좋아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 이황, 「도산십이곡 발(跋)」에서 -

① 혼탁한 리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② 현실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③ 리와 기가 알맞게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사사로운 기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⑤ 개별적 기의 작용보다 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7) 위 글의 두 학자에 대해 <보기>의 화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물의 본성은 타고난 기호 내지 지향성일 뿐이다. 본성은 불변하는 형이상학적 단위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선악의 문제도 기질에 따른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선을 택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본성과 기질을 넘어서 주체성을 가진 인간의 실천의 문제일 뿐이다.

① 이황의 입장에서 사물의 형이상학적 본성을 강조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② 이이의 입장에서 리와 기의 차이점을 논하며 기질의 능동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③ 두 학자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며 인간의 선택과 결단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두 학자의 주장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그들의 핵심 주장을 전하고 있다.
⑤ 두 학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8)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 공평하고 올바름.
② ㉡: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선천적으로 가능함을 밝히려는 것
③ ㉢: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
④ ㉣: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미루어 짐작함.
⑤ ㉤: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됨.

노정기-이육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쩡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렷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냐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육사, 「노정기」

* 쩡크: 정크(Junk).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 노정: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C]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D] 물왕저수지라는 팻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팻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E] 잉어들은 쩝쩝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최승호, 「발효」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온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그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에까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찔러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잘 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서 얕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둡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고 마르며, 그 살갗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이 이와 같으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잠수부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픕니다. 이제 그만 둡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김진규, 「몰인설(沒人說)」

32304

9)(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가)~(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10)<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쩡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④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11)(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12)[A]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13)<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설(끎)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몰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D]
고비사막을 끝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E]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황혼」-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왼몸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바다에서」-

32107

14)(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5)[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② [B] :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③ [C] :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D] :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왼몸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17)<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江)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江) 건너갔소

[A]

강(江) 건너 하늘 끝에 사막(沙漠)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B]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C]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江) 건너갔소.

- 이육사,「강 건너간 노래」-

* 쨍쨍 얼어 조이던 : 강이 얼어 얼음의 부피가 커지면서 서로 밀치는.
* 모래불 : 좁고 긴 모래 언덕.
* 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하는 것.

31407A

18)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② 첫 연과 마지막 연에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19)[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② [A]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③ [B]는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④ [C]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⑤ [C]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0)<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강 건너간 노래」는 식민지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를 견디며 버텨내야 했던 이육사의 고뇌와 방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① '섣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하는 배경이군.
② '어린 날개'는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③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④ '사막'은 '푸른 하늘'이 덮여 있는 공간으로,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는군.
⑤ '또 한 가락 어디멘가'는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군.

1) 5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제시문은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 사람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기'가 하나라고 본 서경덕의 관점,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며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황의 관점, '이'와 '기'는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로 붙어 있다는 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철학적 용어 '이', '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철학적 용어 '이', '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철학적 용어 '이', '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 '이', '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2) 1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서경덕은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고 하였다(2문단). 이황은 '이'와 '기'는 하나일 수 없으며 이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문단).
[오답풀이] ② ㄱ-서경덕은 '이'가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문단). ㄴ-이황은 '이'의 발동에 따라 '기'가 작용하거나,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고 보았다(3문단).
③ ㄱ-서경덕은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고 보았다(2문단).
④ ㄱ-서경덕은 '이'가 '기' 속에 있다고 보았으므로(2문단) '기'가 '이' 속에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ㄴ-이황은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보았다(3문단).

3) 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이'는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것은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문단). <보기>는 군포를 면제받기 위해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기'로 드러난 현실, 즉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의 주장이다(3문단).
③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성리학에서 '이'는 만물의 근원이므로(1문단),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이가 할 수는 없다.
④ 음양의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서경덕의 입장에 가깝다(2문단).
⑤ 천도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황의 입장에 가깝다(3문단).

4) 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내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의 내부에 들어 있음'이다. '내부적으로 미리 정함'은 '내정(內定)'이다.

5) 3
[출제의도] 글의 세부내용 파악하기
세 번째 단락에서 이황은 리의 발현을 통한 보편적 선의지를 강조, 네 번째 단락에서 이이는 개별적 기의 작용을 통한 선의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6) 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관련 자료에 적용하기
<보기>의 문인의 태도는 기질적이고 사사로운 모습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7) 3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보기>는 '본성은~아니며'를 통해 이황의 사상과 '선악의~아니다'를 통해 이이의 사상을 모두 비판하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8) 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도출(導出)'이란 '어떤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 냄.'을 의미하므로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미루어 짐작함'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에서, (다)는 '그러므로 사람은~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쩡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온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11) 1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가)는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서 남들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을, (다)는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 묻는 것에서 벼슬하는 사람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잠수부'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4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하기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는 [B]에서 '나'가 '묵은 관료들'이 '숙변'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욕'을 받아들인 것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나'가 '침묵'하고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가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잉어들은 쩝쩝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4
.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는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을 뿐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뜨거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고 싶은 '입술'의 온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차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물보라'의 부정적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①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 지 않는다. ③ (가)에는 묻는 형식이 나타나나 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묻고 답하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색채어 '푸른'이 나타나나 (나)에는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도,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15) 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C]에서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다고 여기고,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화자는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다의 흰갈매기'에 비유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황혼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자 하므로 황혼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행상대'나 '인디언'이 황혼의 '품안'에 안기기를 바라며,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말함으로써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오늘 맞아들인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아늑'해졌음을 느끼면서,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밤이면 사라지는 '황혼'이 '내일도' 다시 찾아

올 것이라 여기며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3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을 '아득히 띄워보내'려 하므로 이러한 행동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미련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화자는 자신의 '옛날'과 현재를 단절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화자는 과거에 겪었던 시련을 떠올리며 '차운 물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화자는 자신이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현재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을 '아득히' 띄워 보내며 부정적 과거와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⑤ 화자는 현재 '바다만' 한 '슬픔'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을' '하늘'을 꿈꾸고 있으므로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바다'는 '차운 물보라'나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고난과 슬픔의 부정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바다 위에 존재하는 '하늘'은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과거의 자신과는 달리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바다만' 한 '슬픔'을 딛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슬픔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가)에서 화자가 '커-튼을 걷'음으로써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이 골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를 통해 차단된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는 골방의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아들이고자 하고 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 같은 소외된 존재들에게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소외된 존재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전하고 싶어 한다. ⑤ (나)의 화자는 1연에서 바다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5연에서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 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첫 연의 3행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소'와 마지막 연의 3행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를 보면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 5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았-, -던' 등의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으며, '제비같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B]의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가정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C]에는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슬픔, 죽음, 상실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C]에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화자의 태도 또한 변화하지 않는다.

20)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작가의 고뇌와 방황 같은 불안한 내면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사막'은 화자가 부른 노래가 건너간 공간으로, 푸른 하늘이 덮여 있기는 하지만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슬픈 공간이다. 또 '모래불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사막을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